

성경 바로 보기 제1과

강해 노트 자료: www.KeepBible.com, 다운로드 자료실, 성경 바로 보기 강해노트

교재: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그리스도 예수안에 출판사, 생명의 말씀사 총판)

<성경 바로 보기>(라킨, 젤러 지음, 그리스도 예수안에 출판사)

1.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딤후3:16-17).
All scripture is given by inspiration of God, and is profitable for doctrine, for reproof, for correction, for instruction in righteousness: That the man of God may be perfect, throughly furnished unto all good works

교리: 마귀가 의미를 변개시킨 단어 중 하나

1. 교리는 쓸데없는 말장난이다: '압핀 위에서 몇 마리의 마귀가 춤출 수 있는가?'
2. 교리는 분열을 가져온다.
3. 교리와 영혼 구원은 양립할 수 없다.
4. 교리는 재미없고 실제로 쓸모가 없다.
5. 지금 알고 있는 것을 지키지도 못하는데 뭐 하러 더 많은 교리를 공부하는가?
6. 성령님의 열매만 있으면 된다.

교리(doctrine): 단수 51회(구6, 신45), 복수 5회(신약에만), 총 56회

1. 교리의 정의: 어떤 진리에 대한 사실들을 체계적으로 모으고 제시하는 것
2. 교리는 반드시 빛과 어둠을, 참과 거짓을, 생명과 사망을 나눈다. 교리가 없이는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다.
3. 교리와 영혼 구원은 양립한다. 사도 바울을 보라. 바른 교리를 가져야 바르게 구원한다.
4. 교리를 알면 사람이 열정에 차게 된다(눅24:32; 계1:3; 22:7).
5. 성령님의 열매는 뿌리가 있어야 나온다. 그 뿌리는 진리를 아는 것 즉 교리이다(요17:3).

교리의 중요성

1. 교리는 독극물을 막아 준다(딤후4:1, 13-16; 딤후4:1-4).
2. 교리는 성도에게 안정감과 평안을 준다(엡4:14).
3. 교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준다.
 - a. 이스라엘의 역사(고전10:1)
 - b. 이스라엘의 회복(롬11:25)
 - c. 영적인 선물들(고전12:1)
 - d. 휴거(살전4:13)
 - e. 새 하늘과 새 땅의 도래: 이 땅의 정화(벧후3:8-10)
4. 교리는 성도를 세워 준다(딤후2:15)
5. 교리는 성도를 무장시켜 준다(딤후3:13-17; 엡6:10-17).

성경이 주어진 목적: 딤후3:16-17

잘못된 교리는 이단을 양산한다.

1. 바리새인들의 교리: 사람들의 전통(마15:9; 막7:7).(카톨릭, 칼빈주의, 신천지, 안상홍, 안식교 등)
2. 골로새 사람들의 교리: 사람들의 명령들과 교리들(골2:20-23)
3. 마귀들의 교리들(딤후4:1)
4.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히13:9, 8절과 대비)

5.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는 자들을 마크하고 피하라(롬16:17).
6. 교리의 바람에 밀려 다녀서는 안 된다(엡4:14).
7.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는 세대가 온다(딤후4:3).
8. 성도들이 사도들의 교리 안에 머물 때에 성장이 이루어짐(행2:42,47).

건전한 교리(sound doctrine): 4회(딤후1:10; 딤후4:3; 딤후1:9; 2:1)

목회 서신(딤후, 딤후, 디도서)의 교리: 17회(단수 16회, 복수 1회)

성도들을 위한 기본 교리

1. 성경, 2. 삼위일체 하나님, 3. 아버지 하나님, 4. 그리스도, 5. 성령님, 6. 사탄과 천사들,
7. 사람, 8. 죄, 9. 구원, 10. 교회, 11. 예언(종말론)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교리에 달려 있다(특히 구원에 관한 교리).

성경적으로 교리가 바른 사람이 가장 행복하며 안정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

성경적으로 교리가 바른 목사가 가장 좋은 목회자가 될 수 있다.

바른 성경, 바른 교리, 바른 구원, 바른 가정, 바른 교회, 바른 사회!

성경 바로 보기 제2과

2.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네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딤후2:15).¹⁾

Study to show thyself approved unto God, a workman that needeth not to be ashamed, rightly dividing the Word of Truth.

성경에는 바르게 나누어서 보아야 할 기본적인 것들이 있다.

1. 유대인, 이방인, 교회
2. 하나님의 경륜(dispensations, 구약, 신약)
3.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4.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5. 여러 가지 심판
6. 율법과 은혜
7. 구원과 보상(성화) 등

이런 것을 구분하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 1차 세계 대전, 2차 세계 대전,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 걸프 전쟁, 몽땅 묶어서 20세기의 전쟁이라고 하면 문제가 된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려면 연구해야 한다. 부지런히 공부해야 한다.

“행인도 보석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보석은 땅을 깊이 파고 광석을 캐낸 뒤 정제해야 만들어진다. 그러므로 보석으로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땅을 깊이 파야 한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의 보석으로 부자가 되려면 깊이 파야 한다.”(스절전).

1.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교리에서 수고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딤후5:17).
2. 말씀 연구에 전념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딤후4:16).

“바르게 나누다”의 의미: “바르게 정교하게 자른다”

의대생의 해부학 수업

1. 정교한 도구로 정교하게 몸을 잘라야 한다.
2. 그리고는 유사한 것과 다른 것을 구분해야 한다(동맥, 정맥, 실핏줄, 대장과 소장).
3. 어떤 것은 몸 전체에 걸쳐 있고 어떤 것은 한 부분에만 있다(피 순환 시스템, 소화 시스템, 생식 시스템).
4. 성경도 마찬가지이다. 같은 단어라도 대상에 따라 뜻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5. 독이 없는 뱀도 있고 독이 있는 뱀이 있다. 식용 버섯이 있고 먹으면 안 되는 버섯이 있다.
6. 부지런한 일꾼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진리와 한 시대에만 적용되는 진리를 나눌 줄 알아야 한다.
7. 성경 관통 진리: a. 하나님의 성품, b. 마귀의 성품, c. 믿음에 의해 은혜로 구원받는다. d. 죄의 속성 등.
8. 한 시대에만 적용되는 것: 어린양의 희생예물, 제사장, 성전(성막) 등

성경 해석에서 가장 큰 문제: 성경의 수신자와 시대를 바르게 구분하지 않고 성경을 보면 성경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된다.

성경 때문에 패가망신하는 사례가 생긴다(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몰몬, 신천지, 안중회 등)

1.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는가? 마10:5-6; 15:24; 28:18-20
2. 어떤 복음을 전하는가? 하늘의 왕국의 복음(마3:2; 5:17; 24:14), 은혜의 복음(행20:24; 롬

1) <http://middletownbiblechurch.org/dispens/rightlydi.htm>

1:16)

3.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가? 언제부터가 신약인가?

New testament(히9:15-17), 갈4:4-5, 롬10:4

4. 신약과 구약의 차이: 예배드리러 오면서 양을 가져오는가? 제사장이 있는가? 성전이 있는가? 맥추절이 있는가?

5. 돼지고기, 갈치를 먹는가?(레11:7; 10)

6. 안식일을 지키는가?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안상홍 등²⁾, 안식일은 누구에게 주어진 날인가?

a. 주전 1500년경에 안식일 명령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짐(출20:8-11): 구약 성경의 안식일은 제칠일이다(히4:4).

b. 그 전에는 아무도 그것을 명령으로 지키지 않음.

c. 아담, 아벨,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의 창세기 인물 중 아무도 지키지 않음.

d. 아담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창1:15-17)은 안식일을 포함하지 않음.

e. 성경에서 처음 안식일이 언급된 곳은 출16:23임.

f. 출애굽기 16:23-36을 읽어보면 안식일이 그들에게도 생소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g. 처음으로 자기 백성(이스라엘)에게 안식일을 알리심(느9:13-14).

h.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특별 표적(출31:12-17, 특히 14절, 겔20:10-12)

i.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임을 당한다(출31:14; 35:2).

j. 심지어 땅도 안식년을 지켜야 한다(레25:1-7).

k. 안식일은 모세 율법의 일부분: 돼지 고기 등 먹는 것, 할례, 정결례, 각종 희생 제사 등

l. 교회시대의 성도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교리적으로 맞지 않음

m. 예수님께서도 단 한 번도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음(요5:18)

n. 사도들도 결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 적이 없다.

o. 갈라디아서(은혜로 얻는 구원; 갈1:6-10; 2:16; 4:10-11; 5:2-5)

p. 이방인 성도들에 대한 결정 사항(행15:10-11)

q. 안식일은 대환난기와 천년왕국 기간에도 지켜진다(마24:20; 사66:23)

r.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킨 이유(눅4:16; 13:10 등), 갈4:4

s. 구약의 율법 명령들은 이제 폐기되었고(고후3) 크리스천들은 이제 율법 하에 있지 않음(롬6:14)

t. 실제로 유대인들 외에는 안식일을 바르게 지킬 수 없음(거리 문제)

u.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에 모였음(150년경에는 크리스천들 사이에서 거의 확정됨)

v. 그런데도 불구하고 토요일 안식일만 강조하면 그 시스템은 이미 잘못된 것

2) <http://www.middletownbiblechurch.org/reformed/sabbath.htm>

성경 바로 보기 제3과

정상적인 성경 해석 방법: 문자적 해석

한 여인이 2주 동안 산 속에 있다가 산 채로 발견됨(AP 통신)

오레곤 주 베이커 시티, 76세 먹은 한 여인이 남편과 함께 사냥을 갔다가 사라진 지 2주 만에 이번 주 목요일에 산 채로 산 속에서 발견됨.

비정상 해석: 34살, 죽은 채로, 사막에서, 두 달 만에, 고기 잡으러 갔다가, 남동생과 함께

그런데 성경을 읽고는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해석하는 이들이 매우 많다.

성경 해석의 황금률

어떤 성경 구절의 평범한 의미가 상식 수준의 의미일 때는 더 이상 다른 의미를 찾으려 하지 말라.

다시 말해 그 구절의 앞뒤 문맥이나 관련 구절이나 근본 진리 등이 분명하게 다른 의미를 주지 않는다면 그 구절의 모든 단어를 평범하게 문자적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계시하시면서 독자가 혼동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아니하셨으며 자신의 자녀들이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하신다. - 작자 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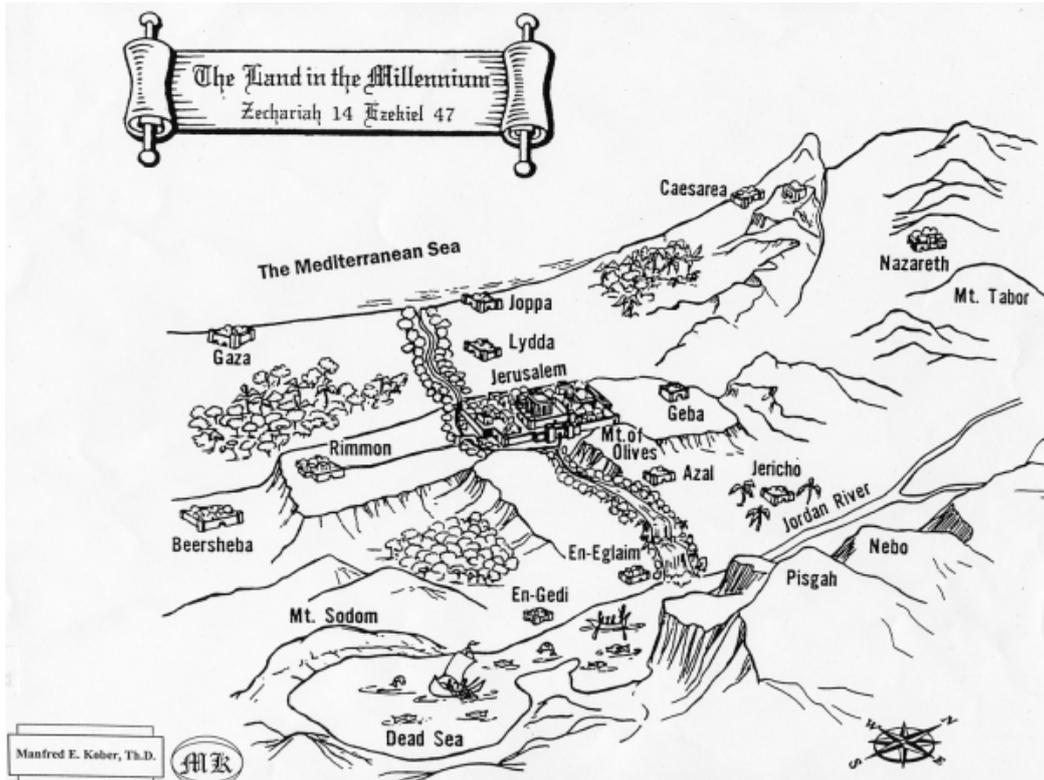
문자적 해석 테스트³⁾

1. 6일 창조(창1; 창2:1; 출20:11 등)
2. 사람의 수명
 - a. 므두셀라 969세(창5:27; 12, 15, 21), 홍수 이전에는 대개 900세 이상을 살았다.
 - b. 천년왕국이 되면 또 이런 일이 반복된다(사65:17, 20, 22, 25).
 - c. 올리브나무는 2,000년도 산다.
 - d. 연대기(창조 연대, 창조 6일, 아담부터 아브라함(라멕, 셈), 바벨탑 단기(2014년은 4347년), 수명 감소)
3. 계20의 천년왕국(2, 3, 4, 5, 6, 7절)
4. 천년왕국의 짐승들(사11:1, 6-9; 65:25; 35:1-2, 5-6 등)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의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에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3) <http://www.middletonbiblechurch.org/dispn/literal.htm>

성경 바로 보기 제4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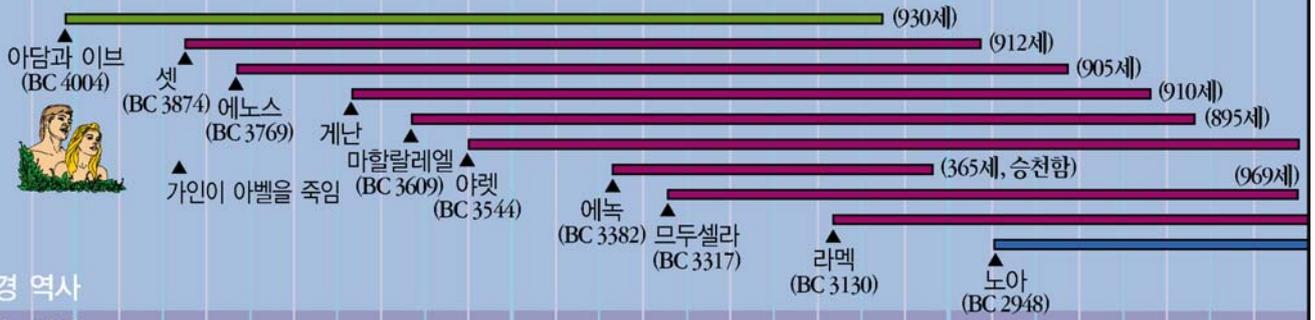
5. 천년왕국 성전에서의 희생 예물
 - a. 겔40-48의 천년왕국 성전이 있는가?
 - b. 그때에 희생 예물을 바치는가?(겔43:19-27; 사56:6-7; 60:7; 슥14:16-21)
 - c.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있는가?(말3:1-4)
6. 천년왕국 때에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물이 나와 사해를 살리는가?(겔47:1-10; 율3:18; 슥14:8; 시46:9-10)
 - a. 이 강은 지역들의 이름을 담고 있다(겔47:8-10).
 - b. 강의 깊이가 나온다(겔47:3-5)



7.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는가?
 - a. 세상(요3:16; 6:33,51), b. 온 세상(요일2:2)
 - c. 모든 사람(딤후2:6), d. 우리 모두(사53:6)
 - e. 모든 사람(롬5:18), f. 모든 사람(히2:9)
 - g.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벧후2:1)
8. 모세의 10가지 재앙과 계시록의 재앙
 - a. 개구리 재앙(출8:1-5)
 - b. 계8:8-9의 둘째 나팔 재앙
 - c. 계16:8-9의 넷째 금병의 재앙
9. 다니엘과 계시록의 3년 반
 - a. 1260일(계12:6, 14)
 - b. 42달(계11:2; 13:5)
 - c. 한 때, 두 때, 반 때(단12:7; 계12:14), d. 7년을 나타내는 한 이레의 반(단9:27)

성경의 연대 1

(대략적인 연대임)



성경 역사

세속 역사

(없음)

◎ 창조 연대

- 어셔(J. Ussher): BC 4004년
- 존즈(F. Jones): BC 4004년
- 벌링거(E. W. Bullinger): BC 4004년
- 클라센(F. Klassen): BC 3975년
- 요세푸스(F. Josephus): BC 4000년경
- 정통파 유대인들: BC 4000년경

◎ 창조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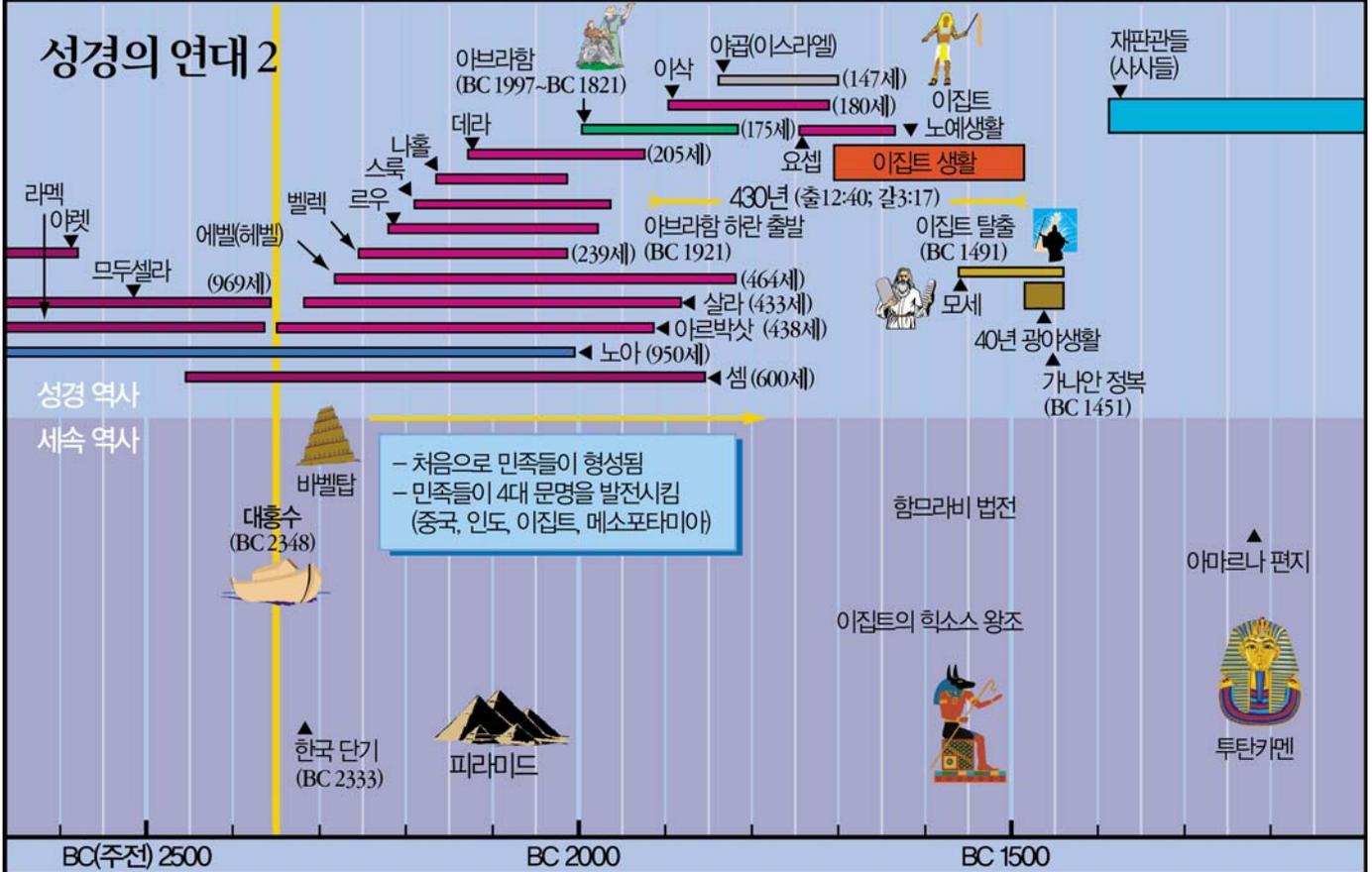
- 지금과 동일한 24시간 하루의 6일 창조
- 무에서 유를 직접 창조
 - 첫째 날: 하늘과 지구, 빛과 어둠
 - 둘째 날: 궁창
 - 셋째 날: 땅과 바다, 과일 나무, 채소
 - 넷째 날: 해와 달
 - 다섯째 날: 물고기, 고래, 새
 - 여섯째 날: 가축, 짐승, 사람

BC(주전) 4000

BC 3500

BC 3000

성경의 연대 2



성경 역사

세속 역사

- 처음으로 민족들이 형성됨
- 민족들이 4대 문명을 발전시킴 (중국, 인도,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함므라비 법전

이집트의 힉소스 왕조



아마르나 편지



BC(주전) 2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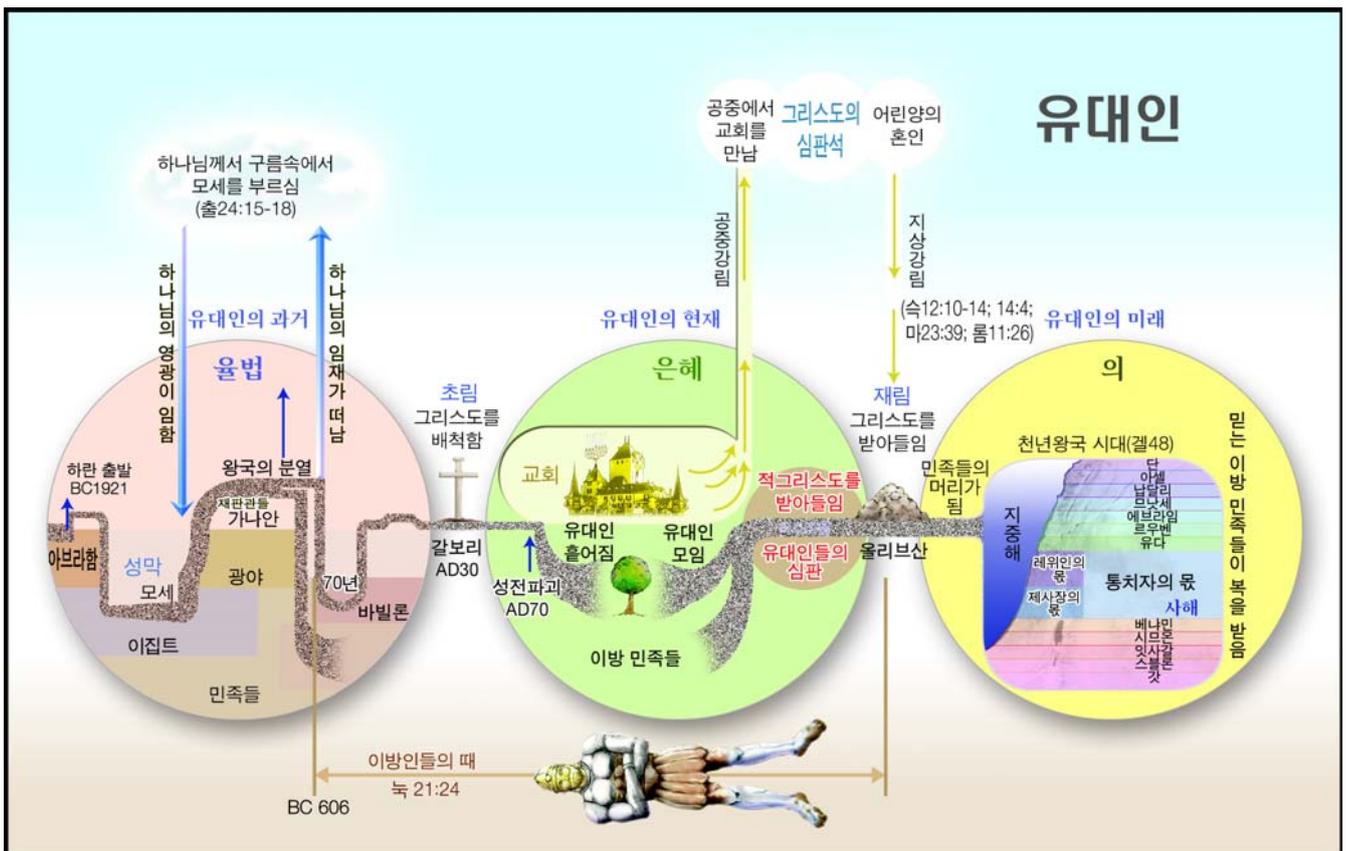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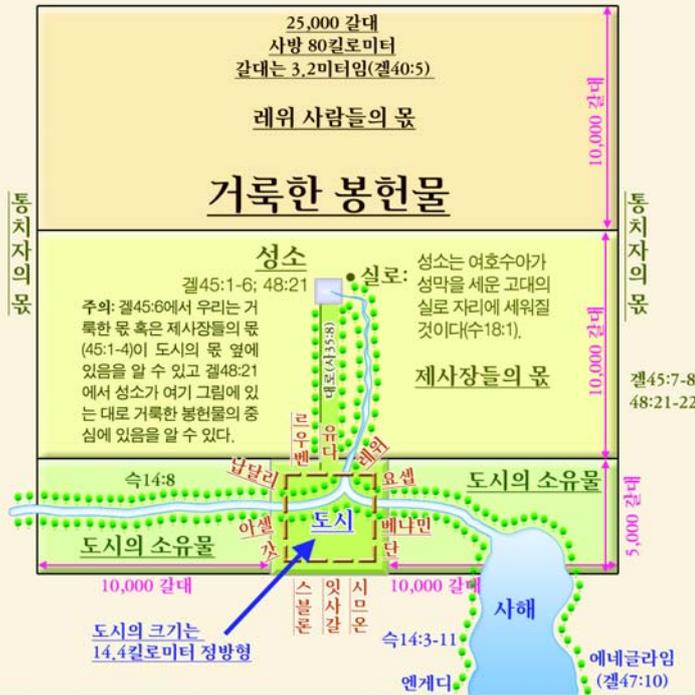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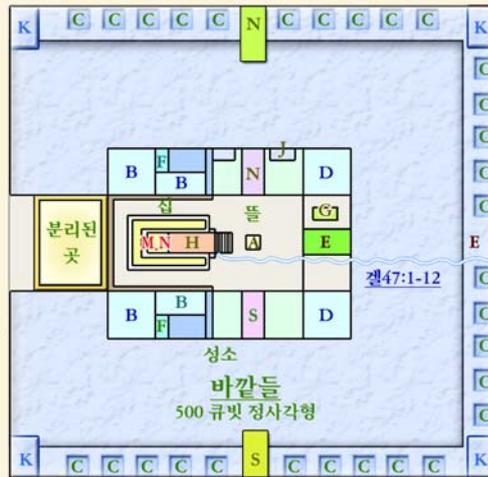
BC 2000

BC 1500

천년왕국의 성전과 도시

- A: 번제헌물 제단
- B: 제사장들이 먹는 곳
- C: 방들
- D: 제사장들이 옷을 갈아입는 곳
- E: 동문
- F: 끓이는 곳
- G: 헌물을 씻는 곳
- H: 성소
- M: 지성소
- J: 노래하는 자들의 처소
- K: 부엌
- N: 복문
- S: 남문

겔40:1-43:27



성경 바로 보기 제5과

올바른 성경 해석 방법⁴⁾

성경 신자들은 문법적, 역사적, 신학적 해석을 취한다.

1. 문법적: 문맥에 맞추어 문자 그대로의 정상적인 의미를 취한다. 창세기 하루(출20:8-11), 천년왕국(계20:2,3,4,5,6,7), 5. 겔47:성전의 물, 1000큐빗(밭), 1000큐빗(무릎), 1000큐빗(강), 스가랴서 14장의 올리브 산 강림, 장막절 지킴 등
2. 역사적: 역사적 시대, 수신자, 목적, 배경 등을 이해하고 문맥에 맞게 해석한다. 구약성경(엡 2:11-13, 3:1-6 등), 사복음서, 사도행전(변천기 역사, 1-10장, 11-28장),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로마서 등 바울 서신 등). 구원은 모든 시대에서 오직 믿음을 통해 은혜로
3. 신학적: 하나님의 목적과 설계에 따라 해석한다.
 - a. 예: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골짜기의 마른 뼈 환상(겔37:1-10),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니 뼈들이 큰 군대가 됨
 - b. 영적 해석: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 살게 되어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었음
 - c. 교리적 해석: 이 구절의 이해가 위의 영적 해석으로 끝나서는 교리가 정립이 안 됨.
 - d.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마른 뼈와 같이 죽어 있는 이스라엘(지금 저 중동에 서 있는 이스라엘)을 부활시킬 것을 보여주고 있음(36-39장 천년왕국 전의 유대와 이스라엘, 36:24-28, 37장의 마른 뼈, 37:15-22, 24-25의 다윗, 26-28 설명, 38장 곡과 마곡의 침입, 39장 곡의 군대들이 멸망함, 17절의 아마겟돈 전쟁(계19:17-18), 39장 29 설명(을2:28, 슄12:10), 그리고 40-48장의 천년왕국 성전과 이스라엘의 땅 분배

성경의 적용: 성경 안에 있는 모든 구절은 세 가지로 적용된다.

1. 역사적 적용 : 이것은 어떤 사건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보여 준다.
2. 교리적 적용 : 성경 속의 모든 구절들은 어떤 특정한 사람을 향해, 어떤 특정한 이유로 인해, 어떤 특정한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 쓰였다.
3. 영적인 적용 : 딤후 3장 16절의 말씀에 의거하여 성경의 모든 구절은 사람들을 올바르게 하거나 의로 교육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영적인 적용을 담고 있다.
 - a. 우리 성도들에게는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의 모든 말씀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 b. 그러나 그 안의 모든 말씀들이 다 지금 우리에게 교리가 되는 것이 아님(롬15:4).
 - c. 즉 성경 안에서 시대를 분별하고, 주어진 대상을 분별하여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야함

4) <http://www.middletonbiblechurch.org/dispen/litconsist.htm>

성경 바로 보기 제6과

비유 해석(사람마다 다 해석이 다른 이유)

1. 삼상17:40, 5개의 돌: 믿음, 소망, 사랑, 기쁨, 평안 혹은 용기, 힘, 인내, 권능, 견인

2.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

-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한번 봅시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예루살렘은 교회이고 여리고는 세상입니다. 교회에서 세상 밖으로 나가면 강도를 만납니다. 우리는 여리고로 내려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합니다. 또 만약 강도를 만나서 피투성이가 되었다면 - 죄악에 물들었다면 - 포도즙과 기름으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포도즙은 그리스도의 피요, 기름은 성령입니다. 예수님의 피와 성령으로 치료를 받아서 우리 영혼의 상처를 고쳐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 더 잘 치료 받으려면 데나리온 돌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신약과 구약입니다.” (또 더욱 더 심하게 해석하는 경우에는 강도 만난 자를 태우고 가는 짐승의 네 다리는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우리는 사복음서라는 짐승을 타고 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적 상처는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 또 어떤 목사는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이고 두 데나리온은 2,000년을 가리킨다고 말한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 2,000이 지난 이 시점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비유에서 과연 어디에 예수님의 재림 내용이 있는가?
-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를 알려주시고,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주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을 문맥과는 전혀 무관하게 해석하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나 그 말씀을 들은 율법사의 반응은 고려하지 않은 채 오로지 비유나 상징으로만 해석하면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전달하고자 하시는 의미를 발견할 수 없다.

신천지의 비유 해석

1. 마태복음 13장 34-35절

개역: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킹제임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없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All these things spake Jesus unto the multitude in parables; and without a parable spake he not unto them:

계시록 7장의 144,00명: 4절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 5-8절 유다 지파, 르우벤 지파 등
꽤어 맞추기 해석 No!

- 창38장의 유다와 다말: 엘과 오난, 엘의 아내 다말, 엘이 사악하여 하나님이 죽임, 오난도 죽임, 막내아들 셀라, 셀라가 장성해도 다말을 그에게 주지 않음. 창녀 변장하여 유다와 음행을 벌임, 아기를 잉태함, 베레스와 세라, 다말이 메시아 계보를 잇기 위해 간음하였다. No!
- 아브라함의 씨가 저주받는 이유(10절), 그래서 그의 자손이 400년 동안 나그네로 살면서 저주를 받음, No! 새는 원래 쪼개는 것이 아니다(레1:14-17). 이방 나라에서 떠도는 이유(16절)

QT 문제

- Quiet time은 중요하다. 그런데 그룹 모임에서 어떤 성경 구절로 QT를 하면서 받은 은혜를 나누라고 하니 성경을 자의적으로 문맥과 전혀 상관없이 해석하는 나눔이 이루어진다.
- 작은 화분 하나를 보고도 거기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성경 한 구절에서도 자기만의 진지한 적용과 철학을 발견하는 것에 놀란다.
- 이런 식의 묵상을 하다 보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점점 자기만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개발해 사람들에게 들려주려는 쪽으로 방향이 기울게 된다. 한마디로 사람을

- 위한 생각, 남을 감동시키기 위한 생각을 개발하는 매너리즘에 빠지게 된다.
4. 그래서 QT의 파트너가 바뀌면 나눌 내용이나 수위나 코드 자체가 바뀌는 것은 당연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통해 나눔을 잘하는 사람만 부각되거나, 신앙보다는 느낌과 감동에 치중하는 모임이 된다.
 5. 예를 들면, 유명 강사가 와서 사람의 입술 위 인종의 패인 골은 태어나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걸 너와 나만의 비밀이야.” 하시면서 입을 다물도록 꼭 눌렀기 때문에 생겼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 자국이 생겼고, 아기는 그 비밀을 발설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서는 말을 못하는 것이며, 자라면서 그 약속을 잊는다.
 6. QT의 폐해를 만들어내는 이런 실수는 논리적인 사람보다 감상적인 사람들이 자주 한다. 성경과 기독교는 명확한 논리를 기본으로 하고, 그 이후에 은혜와 감동과 스토리가 있다. 그런데 명확함은 간과하고 감상적인 목상만을 좇는 습관은 성경을 이해할 때도 그대로 드러나 제1의 의미를 알기도 전에 부수적인 것만 찾아 느끼려 하고, 누구에게 준 말씀인지 파악도 하기 전에 무작정 자기 것으로 소화하려고 한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대로 깨닫거나 개념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많은 기독교인들의 신앙적 지식이 늘 제자리걸음을 하는 첫째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7. 하나님은 느낌으로 다가가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계시된 것을 이해하면서 먼저 알게 되고, 그 후에 서로 알게 되며, 관계를 맺는 분이다.
 8. 성경에 없는 것을 자꾸 찾으려 하면 세상 논리와 학문이 동원되면서 궤변을 말하는 실수를 범하기 쉽다. 물론 성경 안에서만 말할 수 없을 때도 있고, 그러다 보면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바른 전제를 통해 말해야 한다는 생각과 기준이 필요할 것입니다.
 9. 신학자는 참신한 자기만의 해석을 시도하고, 목사는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호소력 있는 메시지를 구하며, 크리스천은 주변에 함께 나눔 감동을 찾는다.
 10. 이 모두가 나쁜 일은 아니지만 본질과 목적에 집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보다 스스로가 드러나는 결과를 낳게 되고, 이런 일을 지속하다 보면 진리에서 그만큼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
 11. 한국 교회를 망친 것 중 하나는 QT이다. 성경은 읽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초신자 때부터 혼자 묵상하며 자기만의 하나님을 찾다 보니 절대적인 기준과 절대자 하나님의 속성은 사라지고, 각자 느끼는 기준과 개인적인 모습의 하나님만 남아, 기독교는 그때그때 다른 '상대주의적' 종교가 된다.
 12. 성경과 하나님에 대한 이런 방식의 접근이 계속되면, 교리는 교훈이 되고, 좁은 길은 넓은 길이 되며, 유일한 방법은 다양한 요령으로 바뀐다. 그러므로 진정한 의미의 묵상은 먼저 말씀을 읽고 언어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을 키워 하나님의 최소한의 경륜을 이해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성경적으로 할 수 있다. 어설픈 QT는 초보운전자가 고속도로에 나가는 것처럼 위험한 일이다.
 13. 바르게 QT를 하려면 (1) 우선 정확한 교리 공부 필요하다. (2) 지나친 해석을 하기보다는 단순히 읽고 그 뜻을 알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3) QT 안내서를 버리라. (4) 질문에 신중해야 한다. 제대로 된 지식과 바른 상식 안에서 말씀을 다루는 곳을 찾고 분별해 신중하게 질문하는 것이 중요하다. (5) 답변에 신중하라. 모르는 것이나 애매한 것은 정직하게 모른다고 해야지, 답변을 해야 한다는 의무감이나 도움을 주고 싶다는 의욕에서 적당히 답하면 타인에게 바른길을 제시하지 못한다. (6) 설교나 나눔에 진지해야 한다. 모임에 믿을 만한 리더가 없다면 아무나 말씀을 나누거나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는 등의 일은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 이런 때는 검증된 사람이 전하는 말씀을 인터넷 등을 통해 함께 듣거나, 검증된 신앙도서의 내용 일부를 한 사람이 전달하고 교육하는 방식이 좋다. (7) 적당한 리더가 없다면 바른 성경을 그대로 읽고 이해하는 습관을 들인다.
 14.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며, 이웃에게 바르게 전하면서 그분 안에 거하려는 간절하고 진정한 마음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QT는 구원과 말씀 그리고 성화의 성장을 가져온다.

성경 바로 보기 제7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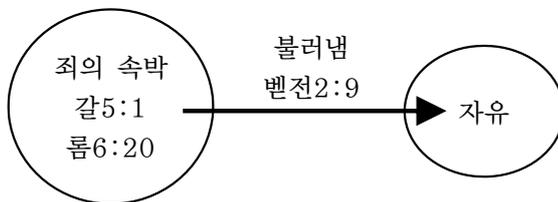
같은 말도 잘 구분해야 한다.

교회는 구약에도 있는가?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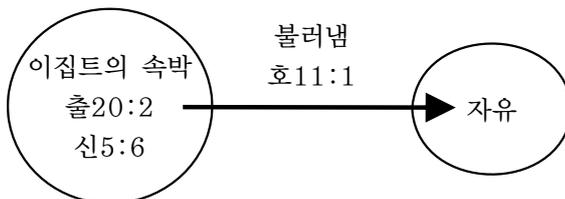
1. 장로교인(개혁신의)들은 교회란 아담부터 모든 시대에 걸쳐 구원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한다.
2. 톰슨주석성경, 이사야서 관주(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 교회가 위로를 받음, 교회의 회복 등등)
3. 마16:18과 행7:38
4. 교회(church): 총 77회, 단수 마16:18-계3:14
 - a. 마16:18; 18:17: 미래 사건(will, shall)
 - b. 행2:47~계3:14: 신약 교회
 - c. 교회들(churches): 총 37회, 행9:31~계22:16, 단복수 총 114회
 - d.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 (1) 건물은 기도하지 않는다(행12:5).
 - (2) 건물은 사람들을 보내지 않는다(행15:3).
 - (3) 건물은 기뻐하지 않는다(행15:22).
 - (4) 건물은 핍박 받지 않는다(고전15:9).
 - (5) 건물은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한다(계2:23).
 - e. 교회는 어떤 목적을 위해 모인 사람들의 집회(Assembly)이다.
 - (1) 바나바와 바울이 교회와 함께 모였다(행11:26, 중요 구절).
 - (2) 바나바와 바울이 교회를 함께 모았다(행14:27).
 - (3) 모인 무리(Assembly, 행19:32).
 - (4) 교회에 함께 모인다(고전11:18).
 - (5) 온 교회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인다(고전14:23)
 - (6) 초대 교회 성도들은 모였다(행2:42, 44, 46).
 - (7) 모이지 않는 교회는 성경의 용례 상 교회가 아니다.
 - (8)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폐하는 어떤 자들과 같이 되지 말라(히10:25).
4. 교회: 그리스어 에클레시아(신약에 117회);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 집회(행19:32; 39)

~에서 나와(Out of) ~로 들어간 사람들(Into)

예: 사망에서 생명으로(요일3:14)



구약의 이스라엘(행7:38)도 교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내 교회 즉 신약 교회는 아니다(마16:18).



5) <http://middletownbiblechurch.org/dispn/begin.htm>

5. 신약 교회의 의미로 쓰인 교회의 경우 대부분 한 지역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인 ‘눈에 보이는 지역 교회’를 뜻한다(고린도, 에베소 교회).
6. ‘눈에 보이지 않는 전 우주적인 교회’ 즉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을 뜻하는 교회도 몇 군데 발견된다(엡1:22-23; 마16:18; 히12:23).
7. 이 외에도 교회라는 말은 건물 혹은 이교도들의 신전 등도 가리킨다(행19:37).
8. 교회의 기능과 목적(엡4:11-12)
 - a.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 b. And he gave some, apostles; and some, prophets; and some, evangelists; and some, pastors and teachers; For the perfecting of the saints, for the work of the ministry, for the edifying of the body of Christ:
9. 교회에 모이는 목적
 - a. 바르게 준비하고 훈련을 받아 완전하게 되어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모인다.
 - b.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반드시 훈련과 교육이 있어야 한다.
 - c. 교제 중심이 아니고 교육과 훈련 중심이어야 한다.
 - d. 이를 위해 교사와 목사가 필요하다.
 - e. 목사와 양들(평등과 동등)
10. 지역 교회는 불신자가 아니라 성도 중심이다.
 - a. 복음 선포 중심이 아니라 말씀 선포 중심이다.
 - b. 성경 전체를 선포하여 양육과 훈련을 시켜야 한다(어떻게 살 것인가?).
 - c. 매주 구원만 선포하면 문제다(어떻게 구원받는가?).
11. 지역 교회 요약: 성도 양육 장소
 - a. 실제로 이단들이 성경적인 지역 교회 개념을 가장 바르게 이행하고 있다.
 - b. 불신자들이 교회에 오면 다음을 보아야 한다.
건강한 유기체(생명체, 고전14:22-25), 성도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임재와 경외감
구원의 메시지

성경 바로 보기 제6과

12. 예수님의 몸 된 신약 교회에 속하는 방법: 성령 침례(고전12:13)

- a. 침례와 세례: ‘담근다’와 ‘뿌려서 깨끗하게 한다’
- b. 한국은 장로교와 감리교가 다수라 세례, 미국은 침례교가 다수라 침례, 전 세계적으로는 침례가 더 많다. 이것은 다수결의 문제가 아니라 용어 정의의 문제이다.
- c. ‘세례’로 번역된 그리스어는 ‘뱃티조’(baptizo, 스트롱 번호 907), ‘뱃티스마’(baptisma, 908



번), 그리고 ‘뱃티스테스’(Baptistes, 910번) 등이다. 이 단어들은 모두 그리스어 ‘뱃토’(bapto, 911번)에서 나왔으며 신약성경에 총 115회 사용되었는데 용례별로 살펴보면 명사 ‘뱃티스마’가 23회, 인물을 가리키는 명사 ‘뱃티스테스’가 15회, 그리고 동사 ‘뱃티조’가 77회 쓰였다.

- d. 개역성경과는 달리 「바인의 신약성경단어사전」, 「국제표준성경백과사전」, 「영거의 성경사전」, 「스트롱의 용어색인」 등 기독교계에서 널리 인정받고 있는 참고문헌들과 신학적 편견 없이 영어 단어 자체의 뜻을 가장 잘 보여 주는 것으로 정평이 있는 「옥스퍼드 영어사전」 등의 세속 문헌들은 한결 같이 이 단어들의 의미가 ‘물을 뿌리는 세례’(sprinkling)가 아니라 ‘물속에 담그는 침례’(immersion)임을 분명히 보여 주고 있다.
- e. 행8:38-39, 그가 명령하여 병거를 멈추게 한 뒤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속으로(into the water) 내려가니 그가 내시에게 침례를 주니라. 39 그들이 물속에서 나와(out of the water) 올라올 때에 [주의] [영]께서 빌립을 채어 가시므로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보지 못하더라.
- f. 왜 요르단 강으로 갔을까? 지금도 요르단 강에서는 침례만 준다. 초대 교회의 유적지를 가 보면 다 침례를 주는 장소가 있다.
- g. 침례의 종류: 물 침례(마3:5, 11; 28:19), 불 침례(마3:11-12), 성령 침례(마3:11-12), 구름과 바다 밑 침례(고전10:1-2)
- h. 모든 침례는 잡겨야 한다.
- i. 물 침례는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께 속하여 그분과 하나 됨을 보여 준다(롬6:1-9). 구약의 침례도 구원 이후에 이루어진다.

13. 성령 침례

- a. 예언(마3:11; 막1:8; 눅3:16; 요1:33 등)
- b. 성령 침례는 불 침례가 아니다(행2:2-3). 성령을 바로 보아야 한다. 성령의 불은 대개 소멸과 불을 뜻한다(출19:18, 12; 히12:28-29; 마25:41; 막9:44, 46, 48; 계20:10; 14).
- c. 마16:18, I will build my church,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교회를 짓고 계신다(행2:47)
- d. 성령 침례가 시작되려 함(행1:5). 아직까지 성령 침례 없음. 이제 몇 날이 되어야 시작됨(요 7:38-39)

14. 그러므로 신약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존재한다(엡1:19-23).

15.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 구분 없이 한 몸이 된다(엡2:15): 구약에는 이런 일이 없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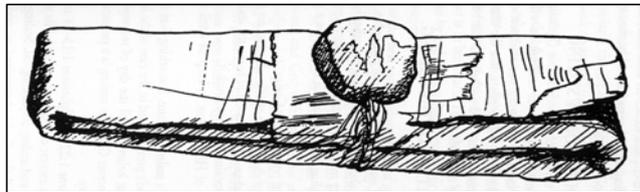
16. 한 몸, 한 침례(엡4:4-6) 여기의 침례는 성령 침례, 구약에는 없었음
17. 바울의 교회 핏박(갈1:13; 고전15:9; 빌3:6), 사도행전 9장의 바울 회심 전에 존재해야 함
18. 신약 교회는 오순절에 시작되었다.
19. 구약의 교회는 이스라엘에 대해 공동체로서 한 번 언급되었다.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교회가 아니다.
20. 아브라함, 이삭, 다윗 등 모두 훌륭하지만 교회의 일원은 아니다(구원 받은 성도이다).

개역 성경의 구원 구절

구원이 가장 중요하다. 구원은 받고 봐야 한다. 구원은 모든 시대에 걸쳐 은혜로 믿음을 통해 된다(엡 2:8-10).

영원한 생명(eternal life)과 영존하는 생명(everlasting life) 요3:14-16

1. 요5:24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2. 그래서 성도의 구원은 봉인되어 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엡4:30).



3. 예수님께서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전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히 7:25).
4. 벧전2:2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 a. 개역: 갓난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5. 빌2:12, 개역: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work out your own salvation).
 - a. 킹제임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성경 바로 보기 제1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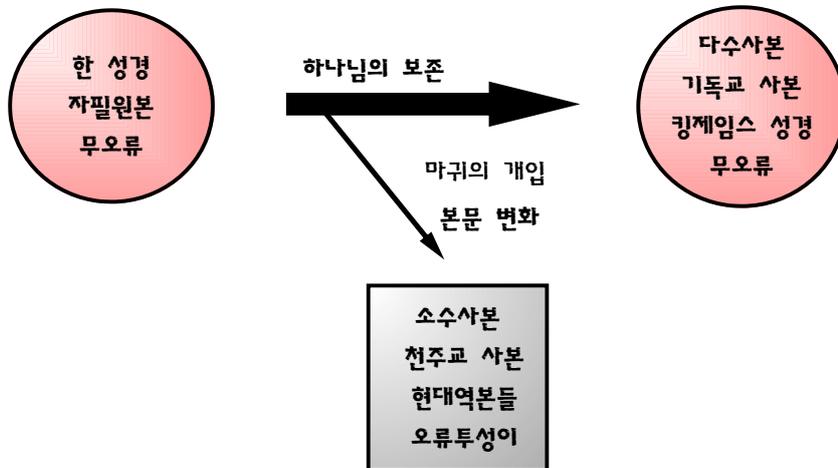
성경을 바로 알려면 교과서인 성경이 올바라야 한다.

성경이 틀리면 교리적으로 심각한 오류가 생기며 심지어 구원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알지 못하는 사실: 성경 본문은 두 종류다.

〈내용이 전혀 다른 성경 구절들〉

개역/개정, NIV 등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욥19:26	내가 여전히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악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시10:4-5	[사악한 자]의 길들은 항상 고통을 주고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잠26:22	소문을 퍼뜨리는 자의 말들은 상처들과 같아서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전1:14	모든 것이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로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호10:1	이스라엘은 텅 빈 포도나무요
삼일마다 너희 십일조를 드리며	암4:4	삼 년 뒤에 너희 십일조를 가져오고
없음	막9:44, 46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 하느니라.
없음(6절을 둘로 나누어 6절 후반부를 7절에 넣었음)	요일5:7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성경 본문 전달 과정 요약〉

하나님의 말씀 변개 경고(계22:18-19)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보존과 부패에 대한 전쟁이다.

자필원본, 사본(위키 백과 신약 사본 약 5,800개)⁶⁾, 성경 번역을 위한 본문

사본들의 99% 다수 사본: 신약시대 성도들이 사용해 온 사본들, 루터 성경, 킹제임스 성경 등

사본들의 1% 소수 사본: 천주교 바티칸 도서관, 시내 산 동방 정교회 수도원

신약이든 구약이든 성경 본문이 두 종류다.

알렉산드리아(필로, 클레멘트, 오리겐 등, 영해, 비유해석, 성경 변개), 안디옥, 로마(천주교)

6) http://en.wikipedia.org/wiki/Biblical_manuscript

교회: 마16:18의 내 교회, 오순절 성령 강림과 더불어 신약 교회가 시작됨.

특징: 전 성도 제사장(휘장이 찢어짐), 반복 희생 예물의 불필요, 오직 성경(전통 규제 No!), 오직 믿음
마귀의 체계는 늘 이와 반대되는 것을 실행하였다.

1. 말씀 부패(고후2:17)

2. 믿음+행위

벧전2:2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a. 개역: 갓난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천주교의 일곱 성사: 세례, 견진, 성체(미사), 고해, 혼인, 신품, 병자

3. 계시록의 니콜라당(계2:6): 제사장 체계

4. 미사(매주 예수님을 하늘에서 데려다가 피없는 제물을 바침, 히9:22와 배치됨)

a. 천주교회는 예수님의 영원한 단번 속죄를 믿지 않는다(히10:10-13, 18)

b. 화체설, 사제가 빵을 들어 축사하면 바로 그 순간 그 빵이 실제 예수님의 살이 되고 포도주가
실제 예수님의 피가 된다. 그리고는 그것을 먹고 마신다. 요한복음 6장 53-56절을 인용한다.
60절, 63절 설명, 요한복음 6장은 주의 만찬을 말하지 않는다. 구약의 만나는 그리스도를 가리키
는 예표이다. 그분의 실제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식인종이다.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고전
11:23-26, 27, 29절 설명)

c. 이렇게 하려니 이런 것을 가르치는 성경 구절을 없애야 한다. 그래서 바티칸 사본에는 히9:14절부터
10장 전체가 없다. 특히 10-14절은 교황에게 치명타다. 미사를 유지하기 위해 찢어버림.

d. 카톨릭 교회의 미사(반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드리는 제사)는 결코 죄를 제거하지 못한다.

인쇄술 발명 이전(AD 60년부터 1500년경): 다수 사본 성경만 쓰임

인쇄술 발명 이후(AD 1500년부터 1970년경): 킹제임스 성경, 루터 성경 등이 절대 다수

1970년 이후 NIV, 메시지, ESV 등이 시장 잠식, 적그리스도의 때, 성경 변경이 극심할 것이다.

a. New world order(새 세계 질서): 뉴에이지 추종자들이 사용하는 말, 적그리스도의 통치
히9:10, KJV, Which stood only in meats and drinks, and divers washings, and
carnal ordinances, imposed on them until the time of reformation.

NIV, until the time of the new order.

b. 시118:22, KJV, The stone which the builders refused is become the head stone
of the corner. 벧전2:7, KJV, Unto you therefore which believe he is precious: but
unto them which be disobedient, the stone which the builders disallowed, the
same is made the head of the corner,

NIV, "The stone the builders rejected has become the capstone,"



성경 바로 보기 제1과

개역 성경 문제: **대본인 본문뿐만 아니라 사머니즘이 팽배하다.**

1. 하나님의 신(God of god), '하나님의 영'(the Spirit of God) 혹은 '주의 영'(the Spirit of the LORD) 등에 있는 성령님(the Spirit)은 구약성경에 28회나 나오지만 개역성경은 이것을 다 '신'(god)으로 번역하여 구약에서 성령님을 제거했다.

개역: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창1:2)

흠정역: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시니라.

하나님의 신, 'god of God'이 되는데 사실 이런 식으로 번역된 성경은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다. 강신(降神)의 무속신앙 개념으로 성경의 '성령님'을 이해하였기 때문이다.

개역: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므로(삼상10:10)

개역: 여호와와 그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삿6:34)

2.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

삼위일체 이단: 양태론은 한 하나님이 아버지도 되고 아들도 되고 성령님도 된다는 것이다. 양태론 이단이 많다.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 성령님의 이름 예수(요17:11; 마28:19)

개역: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이름을 줌)

흠정역: 이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이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키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그들을 줌).

NIV: I will remain in the world no longer, but they are still in the world, and I am coming to you. Holy Father, protect them by the power of your name—the name you gave me—so that they may be one as we are one.

3. 성경적 삼위일체: 뚜렷이 구분되는 서로 다른 세 인격체 즉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한 하나님으로서 이 세 인격체 중 하나가 없으면 한 하나님이 되지 않는다(요일5:7). 시간과 물체 등

4. 영혼육 비구분(창2:7; 살전5:23): 사람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에 역시 영, 혼, 몸으로 구성된 삼중적 존재이다.

흠정역: 평강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 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살전5:23).

개역: 여호와 하나님이 흠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창2:7), 흠정역: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흠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 있는 혼이 되니라.

'영이 없는 사람'(창세기 1장)이 있고 '영이 있는 사람'(창세기 2장)이 있다는 '이중 아담론'

사람이 '산 영'(living spirit)이면 죽지 않는데 그러면 부활이 왜 필요한가?

성경에는 혼이라는 단어가 535회 나오는데 혼을 믿지 않는 개역성경의 번역자들은 살전5:23; 히4:12 같이 꼭 혼이 나와야만 말이 되는 구절에서만 혼을 혼으로 번역했다.

이런 곳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혼을 영혼이나 자(者) 등으로 바꾸어버렸다.

개역: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출12:15)

흠정역: 누구든지 누룩 있는 빵을 먹는 혼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개역: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아픔을 인하여 말하며 내 영혼의 괴로움을

인하여 원망하리이다(욥7:11)

흠정역: --- 내 영이 번민 중에 말하며 내 혼이 고통 중에 불평하리이다.

soul winning, 흠정역: 그때에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침례를 받으며 바로 그 날에 삼천 혼 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지니라(행2:41).

개역: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 날에 제자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짐승의 혼 혹은 영(전3:21)

5. 대언과 예언

‘prophecy’ 혹은 ‘prophet’, 성경에 500회 이상 나오며 성경 기록 그 자체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현대 영어사전: ‘예언하다’, ‘예언자’ No!!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남의 말을 대신 전한다’는 ‘대언’(代言)이며 성경의 용례 역시 전적으로 이것을 가리킨다. 개역성경도 출7: 1, 겔37:4, 계19:10 등 10구절에서는 부득이 대언으로 바르게 번역했다.

성경 기록 자체가 대언이다. 흠정역: 성경 기록의 대언 중 어떤 것도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벧후1:20-21). 개역: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선지자’나 ‘예언’, 한국 교회 내에서도 고린도전서 14장의 예언 문제, 대언과 대언자가 맞는다.

6. 왕국과 나라

성경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왕국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것이다(엡 1:6, 12, 14).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개념으로 가득하다.

흠정역: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이제 요한이 감옥에 갇힌 뒤에 예수님께서 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여(막1:1, 14)

개역: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막1:14)

이렇게 왕국이 중요하므로 예수님께서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언하신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구절을 개역성경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번역하고 있다.

한편 예수님의 재림 전에 선포될 복음도 천국 복음이 아니고 바로 왕국의 이 복음이다(마24:14).

흠정역: 주여, 주께서 이때에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고자 하시나이까? 하매

개역: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나이까(행1:6)

‘kingdom’은 성경에 총 342회 나오며 이것은 원래 왕권(kingship)을 의미했으나 후에는 주로 왕이 다스리는 통치 체제 즉 왕국을 의미하게 되었다. 이런 중요한 단어를 ‘나라’나 ‘천국’ 등으로 일관성 없게 번역했으므로 개역성경으로는 성경의 핵심 주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성경의 핵심 주제를 보여 주는 이 단어는 단지 여호와의 증인들의 전용 용어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다.

7. 귀신

개역성경의 귀신은 어떤 존재인가? 눅16장을 보면 구천, 음부, 명부, 유명 등의 장소는 없다.

개역: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흠정역: 그러나 내가 말하건대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희생물로 드리는 것들을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리지 아니하고 마귀들에게 드리나니(고전10:20)

구약의 소제, 화목제, 속건제 등도 제사가 아니라 ‘음식 헌물’, ‘화평 헌물’, ‘범법 헌물’

조상신을 섬기는 데 쓰는 제사는 성경에서의 희생 헌물을 드린다는 개념과는 전혀 다르다.

개역: 저희가 그 자녀로 사신에게 제사하였도다(시106:37)

흠정역: 참으로 그들이 자기 아들딸들을 마귀들에게 희생물로 바쳤으며

많은 신(gods)이 있고 유일한 하나님(God)이 있으며 많은 아들(sons)이 있고 유일한 아들(the Son)이 있으며 많은 마귀(devils)가 있고 유일한 마귀(the devil)가 있다.

참고 자료: 천주교에서 말하는 일곱 성사의 효과, 믿음 + 행위

1. 세례성사: 물로 씻는 예절을 통해 받는 성사로서 세례 전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는 성사
2. 견진성사: 세례 받은 신자를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성령과 칠은을 주는 성사로서 하느님의 일꾼이 되게 한다. (영신적으로 어른이 됨)
3. 성체성사: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통해 하느님과 인간과 또 인간들 사이의 일치를 가져다주는 성사로서, 영혼 생명의 양식이 된다.
4. 고해성사: 세례 후에 지은 죄를 참회, 고백하여 하느님께 용서받는 성사로서 죄로 인해 끊어진 하느님과 이웃과 교회와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화해의 성사이다.
5. 혼인성사: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느님과 공동체 앞에서 자유로이 계약을 맺고 결합하여 사랑과 봉사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성사이다.
6. 신품성사(=성품성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제직을 이어받아 하느님 백성을 위해 봉사하며, 세상의 구원사업을 계속하는 사제들을 만들기 위하여 교회의 권위로 축성하는 성사
7. 병자성사: 죽을 위협에 처한 병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에 동참케 하여 위로와 치유의 은총을 주는 성사

성경 바로 보기 제11과

성경을 성경으로 풀기: 많은 경우 성경 자체가 성경 단어들의 내장 사전이다(천국, 지옥, 낙원).

A. 지옥 관련 용어

1. 지옥(Hell) 지옥은 '스올'이라는 히브리말과 '하데스'라는 그리스말을 번역한 것으로 성경에 총 54회 나온다(시16:10; 사14:9; 겔31:16; 눅16:23, 구약 31회, 신약 23회, 예수님은 직접 15회 말씀하심). 이 경우는 지옥이란 단어가 실제로 쓰인 경우이고 이 외에도 성경에는 '영원한 불', '영원한 멸망', '바깥 어두운 곳', '불 호수', '바닥없는 구덩이' 등과 같이 지옥 및 최종 멸망 장소를 묘사하는 표현이 많이 나온다. 이런 구절들은 지옥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분명한 장소임을 보여 준다. 천국과 지옥은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장소이다.
2. 영어의 지옥 즉 hell은 '감추다' 또는 '덮다'라는 뜻의 앵글로색슨어에서 유래한 말로서 넓은 의미에서는 '죽은 사람들이 가는 지하 세계'를 뜻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좁은 의미에서는 '지하 세계에서 악한 사람들이 고통 받는 곳'을 뜻한다. 그러므로 한자의 '지옥'(地獄) 즉 '땅의 감옥'이란 표현은 아주 적절하다. 바벨탑에서 언어가 혼잡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말 성경에 아주 근사한 용어를 허락해 주셨다.
3. 스올(히브리말): 66회 중 32회는 지옥, 31회 무덤, 3회는 구덩이로 번역됨
 - a. 죽은 자들의 몸이 놓인 무덤, b. 죽은 자들의 혼이 가는 곳(지하 세계)
4. 하데스: 스올에 해당하는 그리스말(스트롱 번호 86), 11회, 10회는 지옥, 1회는 무덤
5. 타르타로스: 1회(벧후2:4), 스트롱 번호 5020, 창6장의 타락한 천사들의 거처(유6)
6. 게헨나: 12회(스트롱 번호 1067), 11회는 주님의 말씀(마5:22, 29-30; 10:28; 18:9; 25:15, 33; 막9:43, 45, 47; 눅12:5 등)

B. 지옥의 위치

1. 성경은 지옥이 땅의 중심부에 있다고 명백히 가르친다(민16:32-33; 마12:39-40). "사람의 말을 믿지 말고 성경 기록을 그대로 믿어라."
신32:22, 내가 분노하는 중에 불이 일어나 가장 낮은 지옥까지 태우고 땅과 땅의 소출을 소멸시키며 산들의 기초들도 불붙게 하리라(For a fire is kindled in mine anger, and shall burn unto the lowest hell, and shall consume the earth with her increase, and set on fire the foundations of the mountains).
욥11:8, 그것은 하늘만큼이나 높으니 네가 무엇을 하겠느냐? 또 지옥보다도 깊으니 네가 무엇을 알겠느냐?(It is as high as heaven; what canst thou do? deeper than hell; what canst thou know?), 여기의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혹은 하나님의 지혜
시55:15, 사망이 그들을 붙들어서 그들이 산 채로 지옥에 내려가게 할지니 사악함이 그들의 거처들에 있으며 그들 가운데 있도다(Let death seize upon them, and let them go down quick into hell:)
시86:13, 나를 향하신 주의 긍휼이 크사 주께서 내 혼을 가장 낮은 지옥에서 건지셨나이다(For great is thy mercy toward me: and thou hast delivered my soul from the lowest hell.)
잠7:27, 그녀의 집은 지옥에 이르는 길 곧 사망의 방들로 내려가는 길이니라(Her house is the way to hell, going down to the chambers of death).
잠9:18, 그러나 그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녀의 객들이 지옥의 깊음들 속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But he knoweth not that the dead are there; and that her guests are in the depths of hell).

- 잠15:24, 지혜로운 자에게는 생명의 길이 위에 있으므로 그는 아래에 있는 지옥에서 떠나느니라(The way of life is above to the wise, that he may depart from hell beneath).
- 사5:14, 그러므로 지옥이 자기를 확장하고 한량없이 자기 입을 벌렸은즉 그들의 영광과 그들의 큰 무리와 그들의 영화와 또 기뻐하는 자가 거기로 내려가리로다(Therefore hell hath enlarged herself, and opened her mouth without measure: and their glory, and their multitude, and their pomp, and he that rejoiceth, shall descend into it).
- 사14:9, 밑에서 나온 지옥이 내가 오기 때문에 너를 맞이하려고 너로 인해 움직였으며 지옥이 너로 인해 죽은 자들 곧 땅의 모든 우두머리들을 일으켜 세우며(Hell from beneath is moved for thee to meet thee at thy coming: it stirreth up the dead for thee...).
- 사14:15, 그러나 너는 끌려가 지옥으로 곧 그 구덩이의 옆면들로 내려가리로다(Yet thou shalt be brought down to hell, to the sides of the pit).
- 겔31:16, 내가 그를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과 함께 지옥에 내던질 때에 민족들로 하여금 그의 떨어지는 소리로 말미암아 요동하게 하였은즉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의 최상급 가장 좋은 것 즉 물을 마시는 모든 것이 땅의 아랫부분에서 위로를 받으리라(I made the nations to shake at the sound of his fall, when I cast him down to hell with them that descend into the pit:...all that drink water, shall be comforted in the nether parts of the earth).
- 마11:23,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여졌으나 지옥에까지 떨어지리라(And thou, Capernaum, which art exalted unto heaven, shalt be brought down to hell:).
2. 지옥은 땅위 사람들을 기준으로 밑에 있다. 내려가야 한다.
 3. 그러나 최종 멸망 장소인 불 호수 즉 게헨나는 지구가 아닌 다른 곳에 있다(마8:12; 22:13; 25:30; 벧후2:17; 유13; 계20:13-15): 바깥의 어두운 곳, 하나님의 존전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 둘째 사망의 불 호수
 4. 바른 성경은 스올과 하데스 가운데 54회를 죽은 자들(엄밀히 혼)이 가는 지옥으로 번역하였다. 그러나 우리말 성경은 그중 반 이상을 ‘스올’로 음역해서 구약에서는 지옥을 완전히 제거하였으며 신약에서도 몇 차례만 지옥으로 번역하고 나머지는 음부로 번역했다. 음부는 저승과 같은 말로서 ‘죽은 혼령이 가서 사는 세상’으로 ‘구천’ 혹은 ‘유명’이라고 말한다. 이런 이교도 사상이 기존의 우리말 성경에 그대로 반영되어 교리와 신학에 참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 a. 음부와 유명도 여호와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인생의 마음어리요(개역성경 잠15:11). 바른 번역은 지옥과 멸망이다.
 - b. 음부와 유명은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개역성경 잠27:20).
 6. 누가 가는가? 예수님 밖에서 멸망한 모든 자들 즉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마10:28; 눅12:5; 막9:43-48)

그래서 불신자는 가장 먼저 지옥을 부인한다.

 - a. 이성주의—“하나님이 없으므로 지옥은 없다.” 종종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옴. 죽으면 몸이 썩어 없어지므로 자연히 부활은 없다. 지옥은 없다. 찰스 다윈의 지옥 부인
 - b. 종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지옥을 만들 리가 없다.
 - (1) 크리스천 사이언스: 지옥은 지성인의 실수이다.
 - (2) 여호와와 증인: 악인은 멸절된다.
 - (3) 몰몬: 지옥은 믿지만 영원성은 믿지 않는다.
 7. 지옥에서 사람의 상태: 말도 하고 감각도 있다(눅16:19-31): 갈증(눅16:24), 고통(계

14:10-11), 형제들 걱정, 중간 단계의 어떤 몸을 가지고 있다.

8. 성경의 가르침: 지옥 형벌은 영원무궁하다(마25:41; 계14:11; 20:10).

성경 바로 보기 제1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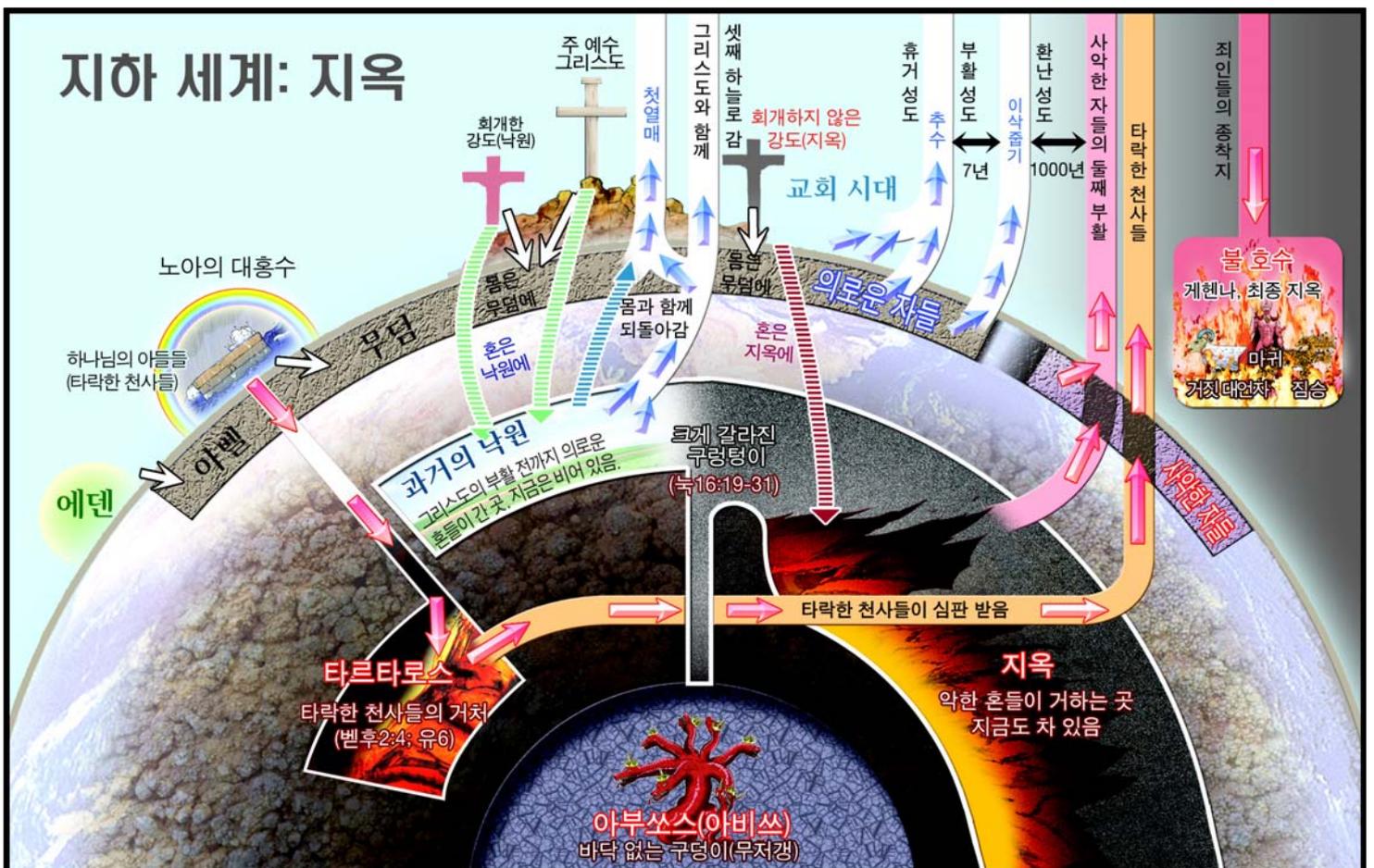
9. 어떻게 지옥을 피할 수 있는가?

- a. 하나님의 유일하신 구원의 해결책인 예수님을 믿어 구원자로 받아들여야 한다(요1:12).
- b. 그것은 선물이다. 행위로 얻을 수 없다(엡2:8; 요3:14-17).
- c. 믿음으로 성경을 통해 성령님의 살리심으로(롬10:17; 요5:39; 벰전1:18-19, 23-25).
- d. 이렇게 한번 성경적으로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요5:24; 히7:25; 10:10).
- e. 어떻게 아는가? 열매로 안다(엡2:8-10; 마7:15-20): 말씀을 사모한다(벰전2:2), 속사람의 변화(사람의 무가치함), 진리와 오류의 분별, 영원을 사모함, 구령의 마음

C. 예수님이 죽어서 가신 곳(눅23:42-32의 낙원)

0. 구약 시대 사람들이 죽어서 간 장소: 의인은 천국?, 악인은 지옥? 그럴까?

- a. 눅16:22-23, 의인은 아브라함의 품, 악인은 지옥, 아브라함도 지하에 있다.
- b. 시16:8-10, 행2:22-32, 예수님의 혼은 지옥에, 즉 예수님의 혼도 지하에 있었다.
- c. 그러므로 성경의 지옥은 넓은 의미의 지하세계(혹은 낙원)를 가리키기도 하고 좁은 의미의 불타는 지옥을 가리키기도 한다.



1. 마12:39-40,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대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
2. 행2:30-32, 그런즉 그는 대언자이므로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에게 서약으로 맹세하사 육체를 따라 자기 허리의 열매에서 그리스도를 일으켜서 자기 왕좌에 앉히실 것을 알았고 또 이것을 미리 보았으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였고 그의 육체도 썩음을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였느니라.
3. 욥2:2-3, 이르되, 내가 내 고난으로 인하여 {주}께 부르짖었더니 그분께서 내 말을 들으셨고 내가 지옥의 배 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으로, 바다들 한가운데로 던지셨으므로 넘치는 큰물이 나를 에워쌌고 주의 큰 물결과 파도가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요나는 죽었다가 부활하였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표적이다.”
4. 시16:10,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 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5. 엡4:8-10,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에 포로로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아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도다, 하시느니라. (이제 그분께서 올라가셨은 즉 그것은 곧 그분께서 또한 먼저 땅의 더 낮은 부분으로 내려가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나? 내려가신 그분께서 또한 모든 하늘들보다 훨씬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6. 눅23:43,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7. 결론: 예수님의 몸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있었다. 그분의 혼은 지옥에 즉 땅의 더 낮은 부분으로 내려가셨다. 그런데 그분은 그곳을 낙원(아브라함의 품)이라 부르신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흘 동안 땅 속 지하세계(넓은 의미의 지옥)의 낙원에 가셨다. 그리고 지옥(타르타로스)에 있는 영들에게 승리를 선포하셨다(벧전3:19-20). 그리고 사흘 뒤 낙원에 있던 구약 시대의 구원받은 자들의 거처인 낙원을 통째로 셋째 하늘로 옮기셨다(고후12:2-4; 계2:7; 22:1-2).
8. 구약 시대의 구원 받은 사람은 모두 낙원 즉 ‘아브라함의 품’으로 내려갔다(눅16:22; 삼상 28:14-15).

성경 바로 보기 제3과

D. 천국(하늘, heaven): 지옥보다 훨씬 더 많이 언급된다. heaven 582회, heavens 133회(총 715회)

1. 성경의 하늘들

a. 첫째 하늘: 새와 구름이 있는 곳(단4:12; 마6:26), 창7:23

b. 둘째 하늘: 해와 달과 별이 있는 곳(창22:17; 시19:1), 창26:4

(1) 하늘의 궁창, 둘째 날, 넷째 날

(2) firmament

c. 셋째 하늘: 하나님의 거처(고후12:2; 왕상8:27, 30; 마6:9)

(1). 첫째 하늘에서 둘째 하늘로 가려면 지식과 지혜와 기술이 있어야 한다(인류 시작 후 약 5900년 걸림).

(2) 둘째 하늘에서 셋째 하늘로 가려면 피(믿음)가 있어야 한다(요3:3).

(3)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이 보지 못하였고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도다(고전2:9).

(4) 창1:1의 하늘과 2:1의 하늘들은 같은 것이다(스트롱 번호 8064.shamayim, 단수 복수 가능), 하나님도 엘로힘(단수 복수 가능). 1:1의 하늘은 우주 즉 universe 를 말한다.

2. 하늘의 위치: heaven above(창49:25; 출20:4; 수2:11; 렘31:37; 행2:19 등), heaven은 땅의 사람을 기준으로 위에 있다. 지옥은 아래에 있다.

3. 셋째 하늘의 위치: 단순히 하늘 위를 가리키면 안 된다. 북반구와 남반구에 사는 사람들

a. 셋째 하늘은 북쪽에 있다(시48:1-2; 욥26:7과 욥9:8-9)

b. 시75:5-7

c. 우리가 거기로부터 예수님을 기다린다(빌3:20-21).

4. 성도들의 최종 장소: 새 예루살렘(계3:12; 21:1-2)

a. 구약 시대 성도들이 고대하던 곳

b. 믿음을 가진 모든 남녀들이 바라던 곳(히11:13, 16)

c. 복음서에 약속되어 있는 곳(요14:1-3)

d. 서신서 등—'위에 있는 예루살렘'(갈4:26), '살아 있는 하나님의 도시'(히12:22), '영구히 지속되는 도시'(히13:14), 거룩한 도시(계21:2; 22:19), 시온 산(히12:22)

5. 구약 성도들은 죽은 뒤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불리는 낙원으로 갔다. 그러나 신약 성도들은 죽으면 곧바로 하늘로 간다(빌1:21-24; 고후5:8; 히11:39-40).

6. 조직신학 43-46과 참조

E. 성경의 부활(욥19:25-29; 사26:19-21; 단12:2, 13; 요5:28; 요11:23-24; 행24:15; 고전15:22-24; 계20:6)

1. 의인의 부활(첫째 부활)

a. 구약시대 성도들의 부활

b. 신약시대 성도들의 부활(마27:50-53; 고전15:22-24; 살전4:13-18)

c. 환난기 성도들의 부활

2. 악인의 부활(둘째 부활)

F. 그러면 어찌할까?(골3:1-3)

1. 성경 공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과학자처럼 되면 곤란하다.

성경 바로 보기 제14과

성경 해석 방법 요약

1.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게 기록하셨으므로, 우리는 그것을 문자 그대로 읽고 받아들여야 한다. 오히려 그 말씀 속에 무슨 다른 뜻이 있거나, 감추어진 신기한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를 비유나 상징으로 해석하다 보면 오류에 빠지게 된다. 각 시대별로, 각 수신자 집단별로 각기 다르게 적용되는 말씀들에 대해서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연구해야 하며, 그 말씀이 기록될 당시의 역사적, 사회적 배경도 함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계시록 같은 경우 상징적인 것은 하나님이 의미를 해석해 주신다(계17:1-2의 음녀, 3절의 일곱 머리와 열 뿔 짐승, 6절의 음녀, 12절의 열 뿔은 열 왕이다. 13-14절 이들이 어린양과 전쟁을 벌인다. 15절 여자가 앉아 있는 물들, 16절 음녀의 멸망, 18절 여자는 저 큰 도시 등).

세대주의 개관(성경 바로 보기 책 젤러 편 2장)⁷⁾

o 신학 체계: 믿는 바 즉 교리를 요약한 틀

어떤 신학 체계도 완벽하지 못함.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려 할 뿐임.
체계가 하나이면 좋은데 보는 관점에 따라(교단에 따라) 여러 개로, 크게는 둘로 나뉜다.
우리는 OO주의라고 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개의 체계가 있다.
미국의 양대 주석 성경: 스코필드 성경(세대주의 신학, 예언과 이스라엘에 관한 한 문자적 해석),
톰슨 성경(언약주의 신학, 예언과 이스라엘에 관한 한 비유적 해석)

o 세대주의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신학 체계를 영미권에서는 'Dispensationalism'이라고 부르며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세대주의'라고 부른다.
Dispensation은 '경영 체제'를 뜻한다. Old Testament dispensation, NT dispensation
특정 경영 체제가 지속되는 기간도 'dispensation'이다. 'Mosaic dispensation'
미국의 침례교회 등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 교파나 성도들의 성경 해석 방법, 존 맥아더, 빌리
그래함 등 침례교 목사, 가장 큰 신학교들: 달라스. 밥존스, 무디, 바이올라, 펜사콜라 등
영화 <레프트 비하인드>(Left Behind, 휴거 이후에 남겨진 자들)

I. 특징

- A. 세대주의 신학 체계에서는 인류의 역사를 여러 '경영 시대'(dispensations)로 나눈다.
1. 고전적인 세대주의: 인류의 역사를 일곱 개의 '경영 시대'(경륜)로 나누어 생각하고 설명함.
 2. 세대주의에서 경륜은 꼭 일곱 개로 제한할 필요가 없다 두 개, 다섯 개, 아홉 개 등 여러 개의 경륜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경륜의 개수에 상관없이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고 해석한다는 세대주의의 본질은 동일하다.
 4.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모든 사람은 시대에 상관없이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5. 시대에 따라 구원 방식이 다르다고 하면 성경에 배치된다.

II. 차이점 인식

- A.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다(말3:6).
- B. 그러나 그분의 경영 방식은 변한다: 구약과 신약
1. 노아는 방주를 지었고 솔로몬은 성전을 지었다.
 2. 예: 음식에 관한 규정
 - a. 초식(창1:29-30)
 - b. 육식 허용(창9:3-6)

7) <http://www.middletonbiblechurch.org/dispensa/dispens.htm>

- c. 유대인들의 음식 규정(레11:7, 9절 등)
- d. 초대 교회의 음식 문제(행15:29)
- e. 롬14:1-3, 14-21
- f. 딤후전4:1-5, 골2:16, 20-23
- g. 초식의 복원: 천년왕국(사11:6-9)

III. 계시되는 진리의 정도가 다르다.

A. 성경은 점진적으로 계시가 진보함을 보인다.

- 1. 마13:17
- 2. 요16:12
- 3. 엡3:3-5
- 4. 계1:1-3, 9-12 등

B. 성도에게도 진리의 계시가 진보된다.

- 1. 젓, 단단한 음식과 고기(벧전2:2; 고전3:1-2; 히5:12-14)

C. 예를 들어 성경 자체를 살펴보자.

- 1. 성경: 약 1,600년 동안 40명의 기록자들이 기록함
 - a. 아담: 성경이 없었다.
 - b. 아브라함: 성경 같은 건 없었고 다만 하나님께서 여러 번 나타나 말씀하셨다(창17:1; 18:1 등).
 - c. 모세: 그가 가진 성경은 모세오경 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의 5권으로 구성되었다.
 - d. 다윗: 모세오경과 여호수아기, 사사기 그리고 그가 기록한 시편들
 - e. 에스라: 대부분의 구약성경이 있었지만 전부는 아니었다.
 - f. 침례자 요한: 구약성경 전체, 신약성경은 없었다.
 - g. 바울: 구약성경 전체와 신약성경의 대부분
 - h. 요한: 구약성경 전체와 신약성경 전체를 가지고 있었고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신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을 쓰게 하셨다.
 - i. 우리: 구약 39권, 신약 27권

성경 바로 보기 제15과

IV. 몇 가지 명백한 차이점

- A. 역사를 통해 하나님은 항상 공휼과 은혜를 베푸시고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원하셨다.
- B. 그리고 언제나 그 길을 열어 놓으셨다.
- C. 모든 경륜에 걸쳐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 은혜로 사람들을 구원하신다(엡2:8).
1. 율법 이전 사람인 아브라함이 이렇게 구원받았다(창15:6; 롬4:3).
 2. 율법 시대에 살던 다윗도 그렇게 구원받았다(롬4:6).
 3. 신약시대의 우리도 그렇게 구원받았다(롬4:5).
 4. 노아, 이사야, 베드로, 바울 등 천국에 간 모든 사람들은 한 목소리로 이같이 말할 것이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즉 그런 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내게 값없이 부어 주신 하나님의 친절과 사랑과 호의로 구원받았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5. 인류 역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 은혜로 사람을 구원하신다.
 6. 세대주의는 결코 시대마다 구원 방법이 다르다고 가르치지 않는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그것이 더 이상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그러나 만일 그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행위가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라.”(롬11:6)
 7. 은혜에 행위를 더해 구원받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아니다.
- D.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 별로 경영 방식은 다르다.
1. 구약 시대 짐승 희생, 지금 No!
 2. 구약 시대 안식일 준수(사형 출35:2; 민15:32-36), 지금 No!
 3. 구약 시대 성전, 지금 No!
 4. 구약 시대 제사장(priest), 지금은 목사(pastor), 모든 신자가 제사장(벧전2:9; 계1:6)
 5. 구약 시대 남자아이 할례, 지금 No!, 6. 아담의 경우 선악과 No!, 지금은 그런 규정이 없다.
 7. 구약 시대에는 침례, 주의 만찬 No!
 8. 이스라엘에게만 복음을 선포하는 시대(마10:5-7), 모든 민족(마28:19-20)
- E. 경영 방식이 항상 같다고 주장하면 문제가 생긴다.
1. 구약에도 교회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2. 유대인, 이방인, 교회가 있음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고전10:32)

V. 경영 방식 변화 전후의 차이

- A. 각 경륜(시대)마다 핵심 사건이 있고 사건 전후가 달라진다.
1. 사람의 타락 2. 노아의 대홍수, 3. 바벨탑 심판, 4. 아브라함을 부르심(창12), 5. 율법 수여(출 19-20), 6.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 7. 성령 강림(행2), 8.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
- a. 사람의 타락

타락

타락 이전  타락 이후



창2:25, 3:7 비교(롬5:12)

b. 노아의 홍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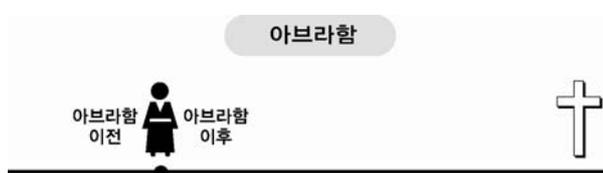
채식(창1:29), 사형 없음(창4:15), 육식(창9:2-3), 사형 허용(창9:6)

c. 바벨탑 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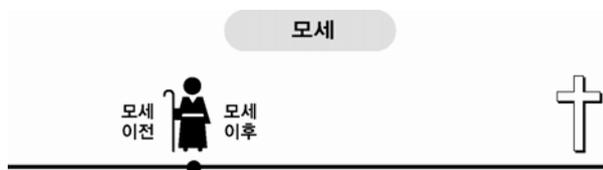
언어가 하나(창11:7-9), 유대인 없음, 민족들 형성(창10, 11장), 세계 4대 문명 형성, 단군

d. 아브라함을 부르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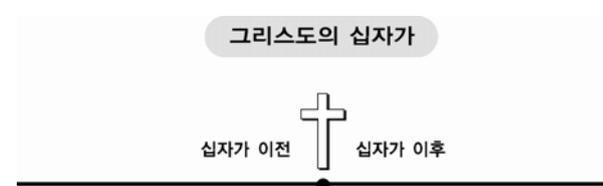
유대인, 이방인, 할례의 명령과 표적(롬4:9-12)

e. 모세의 율법



글로 기록된 명령들, 이스라엘이 구약 체제로 들어감, 음식물, 제사장, 짐승 희생, 예배 등의 규례

f. 그리스도의 십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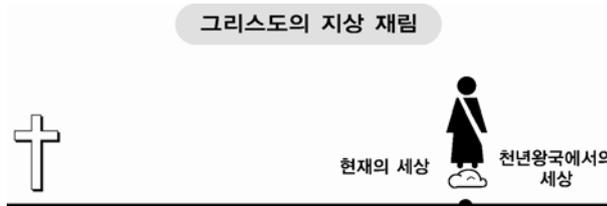
구약과 신약, 안식일과 주일, 음식물 규정 폐지(딤후4:3-5)

g. 오순절 성령 강림



교회의 형성, 성령님의 내주, 유대교와 기독교

h.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



하늘의 왕국의 도래, 짐승들의 식습관 변화, 전쟁이 없음, 대언을 하면 죽임을 당함(슥13:3), 장막절을 지켜야 함

- B. 세대주의자란 성경을 믿고 역사를 통해 나타난 이 중요한 차이점들을 인식하게 된 사람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네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딤후2:15)

VI. 경륜/세대의 뜻

- A. 경영 방식 혹은 경륜에 해당하는 그리스어 ‘오이코노미아’는 ‘관리하다’, ‘규제하다’, ‘집행하다’, ‘계획하다’ 등을 의미하는 동사에서 나옴.
- B.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 ‘사람이 사는 집의 일을 나누다, 할당하다, 집행하다, 혹은 관리하다’를 뜻하는 여러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복합어
- C. ‘오이코노미아’(oikonomia)와 영어의 ‘economy’를 비교해 보자. 매우 비슷하다.
1. oikos = 집(house)
 2. nomos = 법(law)
 3. 따라서 이 단어는 ‘한 집안의 법’ 혹은 ‘집안 법’을 뜻한다.
 4. 가정에는 ‘집안의 법’ 같은 것이 있다. ‘집안 규칙’이 있다. 부모가 자식들에게 부여하는 의무나 책임이 있다. 규칙을 어겼을 때는 꾸지람을 듣는다.
- D. 신약성경에는 ‘오이코노미아’와 같은 어원을 가진 단어들이 20여 회 나타난다.
1. 동사 ‘오이코노메오’는 누가복음 16장 2절에서 ‘청지기가 되는 것’이라는 뜻으로 1회 사용되었다.
 2. 명사 ‘오이코노모스’는 10회 사용되었으며(눅12:42; 16:1, 3, 8; 롬16:23; 고전4:1, 2; 갈4:2; 딤펴1:7; 벧전4:10) 로마서 16장 23절에서 ‘재무관’으로 사용된 것을 제외하고는 대개 ‘청지기’로 번역되었다.
 3. 명사 ‘오이코노미아’는 9회 사용되면서(눅16:2, 3, 4; 고전9:17; 엡1:10; 3:2, 9; 골1:25; 딤펴1:4) 다양하게 번역되었다(청지기, 세대, 직분, 경영 체계, 위임, 일 등).
- E. 영어 ‘dispensation’
1. 그리스어 ‘오이코노미아’를 라틴어 별게이트 성경으로 옮기면서 사용한 ‘디스펜사티오’(dispensatio)라는 라틴어에서 나와 영어로 정착된 말
 2. 이 라틴어 동사는 ‘무게를 달아서 나누다’ 혹은 ‘배분하다’란 뜻의 복합어

F. 「옥스퍼드 영어 사전」의 의미

1. 나누어주거나 배포하는 행위
2. 행정을 보거나 지휘를 하거나 혹은 관리를 하는 행위 혹은 물건들을 주거나 운영하는 체계
3. 어떤 요구 조건과 더불어 무엇인가를 분배해 주는 행위
4. 신학적 의미: 경륜/세대는 점진적 계시의 한 단계, 특정한 민족이나 기간의 필요에 특별히 부응하는 단계…또한 어떤 체제가 널리 보급된 시대나 기간

G. ‘경륜’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 ‘dispensation’ 자체는 신약성경에 딱 4회 나온다.

1. 이것은 충만한 때의 ‘경륜’(dispensation) 안에서 친히 모든 것 즉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곧 그분 안에서 다 함께 하나로 모으려 하심이라(엡1:10).
2.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dispensation)을 너희가 들었으리라(엡3:2).
3. 내가 교회의 사역자가 된 것은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dispensation)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자 함이니라(골1:25)
4. 내가 자원하여 이 일을 하면 보상을 얻으려니와 내 뜻에 반하여 한다 할지라도 복음의 ‘분배 사역’(dispensation)을 내가 맡았노라(고전9:17).

VII. 청지기직의 이해

A. ‘dispensation’과 같은 어원을 가진 그리스어는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나와 있는 대로 ‘청지기 직’(stewardship)으로 번역될 수도 있다.

B. ‘경륜/세대’ 혹은 ‘경영 체계’란 의미의 ‘dispensation’의 중심 개념은 가정의 일을 관리하거나 집행하는 것이다.

C. 따라서 우리는 경륜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기 위해 먼저 ‘청지기직’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

1. 청지기직

- a. 청지기는 ‘집안을 관리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소유 - 물건이나 재산 - 를 돌보는 사람
- b. 관리자로서 다른 사람의 소유를 돌보는 책임을 맡는다.
- c. 청지기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함이다(고전4:1-2).
- d. 예: 누가복음 16장 1-4절의 청지기
- e. 청지기는 집안을 관리하는 사람이지만 그 집의 소유주가 아니다. 집의 소유주는 따로 있다(눅 16:1).

2. 특권과 책임

- a. 보디발의 소유를 관리하던 요셉에게는 특권과 책임이 동시에 있었다.
- b. 신자 역시 어느 시대에 살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돌보는 책임과 특권을 가지고 있다.
- c. 아브라함, 모세, 바울의 책임과 특권이 다르다.
- d. 청지기는 직장을 얻은 사람에 비교될 수 있다.
- e. 직장을 얻은 경우: (1) 월급을 받는다. (2) 모든 혜택을 누린다. (3) 승진도 한다. (4) 책임도 있다. (5) 잘못하면 해고당할 수도 있다.

3.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청지기 요약

- a. 기본적으로 두 부류 즉 의무를 부과하는 권세를 지닌 자와 이러한 명령을 수행할 책임을 지닌 자가 있다. 누가복음 16장의 비유에서 부자와 청지기가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1절).
- b. 독특한 책임이 있다. 이 비유에서 청지기는 자기 주인의 재물을 허비함으로 자신이 알고 있는 의무를 이행하는 데 실패했다(1절).
- c. 책임뿐만 아니라 회계 보고도 이러한 구성 및 배열의 한 부분이다. 청지기는 어느 때라도 부름을 받아 자기의 청지기직 이행 실적에 대해 회계 보고를 해야 한다. 주인은 자기가 청지기에 게 맡긴 의무들을 그가 성실히 수행할 것을 기대할 특권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 d. 현재의 경영 체계 하에서 신실하지 못한 요소가 발견되면 언제라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더 이상 청지기가 되지 못하리라.” - 2절).

VIII. 경륜/세대 요약: ‘경륜’과 ‘청지기직’은 같은 말이다.

- A. 집 주인: 청지기직이 있다면 집 주인이나 소유주가 있다. ‘집안의 법’을 세운 사람이 있다. 즉 의무와 책임, 특권을 규정해 놓은 사람이 있어야 한다. 성경에서 우리는 집의 주인이 바로 살아 계신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다(히3:4 참조).
- B. 집: 주인이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주인이 그 규정을 집행하고 권위를 행사할 장소가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집은 바로 세상이다(시24:1; 창18:25; 출9:29 참조).
- C. 청지기: 집 주인과 집 말고 또 청지기가 있어야 한다. 청지기는 책임을 맡은 사람이다. 그는 신실하고 집주인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청지기는 어떤 물건이나 직무를 맡는다(행17:30, 요일 3:23). 청지기는 주인이 자기에게 준 ‘집안 규칙’을 따라야 한다. 청지기가 ‘집안 규칙’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곤경에 빠진다. 하나님의 청지기는 곧 인류이다(딤후1:7; 고전4:1-2)

성경 바로 보기 제16과

IX. 경륜/세대는 여러 개다.

- A. 하나님은 시대마다 다른 방식으로 집을 다스리신다.
- B. 하나님의 집안 규칙이 늘 동일하지는 않다.
 - 1.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사도 바울은 모두 동일한 하나님이 다스리는 동일한 세상에 살았지만 그들 각자에게 적용된 집안 규칙은 달랐다.
 - 2. 가정부 이야기
- C. 하나님은 각 경륜에 단지 규칙만을 주시지 않고 사람이 믿고 순종하고 다루어야 할 어느 정도의 진리도 주셨다. 규칙과 법에는 그것들에 상응하는 특권과 기회와 책임이 따르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리를 사람의 손에 맡기셨기 때문이다.
- D. 또한 우리가 '서로 다른 집안 규칙'을 말한다고 해서 각 경륜에 주어지는 규칙과 책임과 특권이 서로 판이하게 다른 것은 아니다. 경륜이 바뀌어도 여전히 동일하게 남아 있는 규칙이나 특권이 있고 바뀐 것도 있다.
- E. 홍길동 씨 집안 이야기: 한 집안의 가장으로 그에게는 세 가지 '집안 규칙과 특권'이 있다. 세대 차가 나는 세 아들이 있기 때문이다. 장남은 큰 특권과 큰 책임, 막내는 작은 특권과 작은 책임
 - 1. 여덟 살짜리 아들
 - a. 부모에게 순종할 것
 - b. 부모를 존경할 것
 - c. 거짓말이나 도둑질하지 말 것
 - d. 오후 9시면 잠자리에 들 것
 - e. 매주 용돈이 지급됨
 - f. 숙제에 대한 규칙을 준수할 것
 - g. 차를 몰 수 있는 특권은 없음
 - 2. 열다섯 살 먹은 아들
 - a. 부모에게 순종할 것
 - b. 부모를 존경할 것
 - c. 거짓말이나 도둑질하지 말 것
 - d. 오후 10시에 취침할 것
 - e. 매주 막내보다 많은 용돈이 지급됨
 - f. 숙제에 대한 규정이 강화됨
 - g. 차를 몰 수 있는 특권은 없음
 - 3. 스무 살 된 아들
 - a. 부모에게 순종할 것
 - b. 부모를 존경할 것
 - c. 거짓말이나 도둑질하지 말 것
 - d. 취침시간에 대한 규정 완화
 - e. 용돈은 없음 - 스스로 벌어서 쓸 것
 - f. 졸업했기에 숙제에 대한 규정은 없음
 - g. 운전할 수 있는 특권과 책임이 주어짐
- F. 세 아들에게 공통된 것이 있지만 나이가 들에 따라 바뀌는 것도 있다. 왜 그럴까?
- G. 이와 같은 원리가 경륜에도 적용된다. 동일한 하나님과 다른 때 태어난 신자들이 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변하거나 새롭게 더해진 규정이나 책임이 있고 그대로 남은 것도 있다.

4. 노아 - 홍수 이후 시대(율법 이전 시대)

- a.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을 수 있는 특권과 믿어야 하는 책임이 있었음
- b.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있는 특권이 있었음(창6:9)
- c.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책임이 있었음(히11:7과 비교)
- d. 살인자는 사형시켜야 함(창9:6)
- e. 짐승의 희생 예물을 드림(창8:20)
- f. 안식일을 지키거나 사내아이에게 할례를 행하거나 믿는 이에게 물로 침례를 주어야 한다는 명령은 없었음

5. 다윗 - 모세의 율법 시대

- a.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을 수 있는 특권과 믿어야 하는 책임이 있었음(노아보다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됨)
- b.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있는 특권이 있었음
- c.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책임이 있었음(신8:1)
- d. 살인자는 사형시켜야 함(출21:12)
- e. 짐승의 희생 예물을 드림(레1-5장)
- f. 안식일을 지키고 사내아이에게 할례를 행해야 했음(레12:3; 신5:12-14)
- g. 믿는 이에게 물로 침례를 주어야 한다는 명령은 없었음

6. 바울 - 교회 시대

- a.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을 수 있는 특권과 믿어야 하는 책임이 있었음(노아나 다윗보다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됨)
- b.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있는 특권이 있었음
- c.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책임이 있었음(요일2:3-5)
- d. 살인자는 사형시켜야 함(롬13:1-4)
- e. 짐승 희생은 더 이상 필요치 않음(히10장)
- f. 안식일을 지키라거나 사내아이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명령은 필요 없음
- g.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물로 침례를 주라는 명령을 받음(마28:19-20)

H. 세 경륜 속에서 꾸준히 남아 있으면서 이 세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들이 있다. 왜 그럴까? 바뀌거나 변화된 사항들도 있는데 왜 그럴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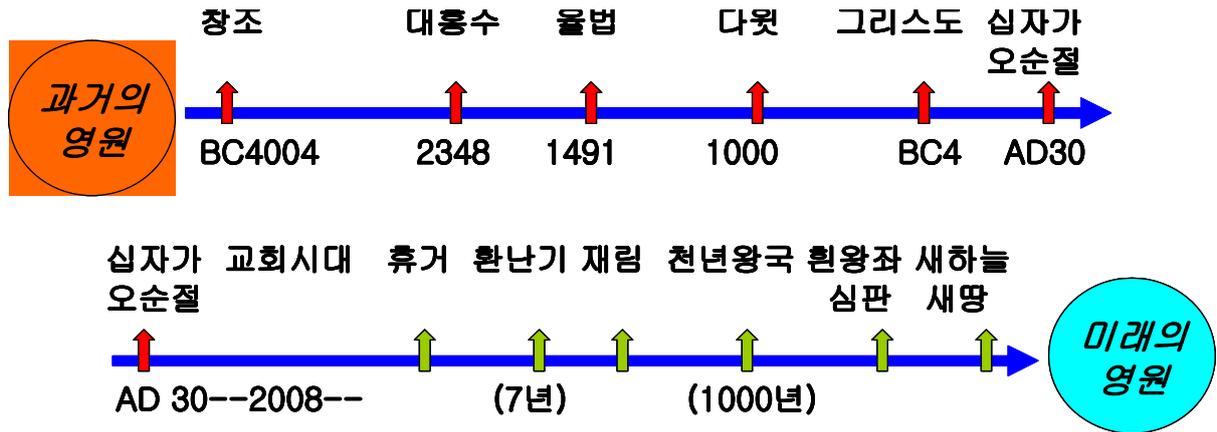
I. 경륜이나 청지기직이 바뀐다고 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규정이나 조건이 바뀌지는 않는다.

- 1. 가령 어느 경륜에서나 거짓말, 살인, 도둑질은 잘못된 것이다.
- 2. 경륜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언제나 옳은 것이었다(히11장 참조).
- 3.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동일하다.

J. 경륜 혹은 세대: 같은 집안 규칙이 시행되는 때

- 1. 모세, 여호수아, 다윗, 이사야는 모두 동일한 집안 규정과 권리 아래 있었다. 즉 그들은 같은 경륜에 살고 있었다. 모세의 율법에 그 규정과 권리가 모두 기록되어 있다.
- 2. 마찬가지로 베드로, 바울, 요한도 같은 규정과 권리 아래 있었다. 신약성경의 서신서(로마서에서 계시록 1-3장까지)에 그 규정과 권리가 기록되어 있다.
- 3.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그들에게 속한 동일한 규정과 권리 아래 있었다.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어야 할 책임이 있었다.

X. 인류역사 타임라인



XI. 일곱 가지 경륜

경륜	요약
(1) 무죄(아담)	무죄 경륜은 사람이 죄를 지어 타락함으로 막을 내린다.
(2) 양심(에녹)	사람은 이 경륜 이후에도 계속해서 양심 아래 살고 있다.
(3) 인간 정부(노아, 홍수 이후)	사람은 이 경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인간 정부 아래 살고 있다.
(4) 약속(아브라함)	이 경륜 이후에도 약속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갈3장).
(5) 율법(다윗, 침례자 요한)	율법은 씨가 올 때까지 잠정적으로 유효하지만 십자가로 막을 내린다.
(6) 은혜(바울)	다른 경륜에도 은혜가 있었지만 이때에 하나님의 가장 크신 은혜가 증언된다(엡2-3장).
(7) 천년왕국	하나님의 통치가 다른 경륜에도 있었지만 왕국 경륜에는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왕좌에 앉아 온 세상 민족들을 치리하심으로 눈에 띄게 드러난다.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으로 이어진다.

- A. 일곱 개가 아니라도 된다. 다만 편의상 일곱 개로 했다.
- B. 영원 전 과거, 영원 미래(새 하늘과 새 땅)
- C. 각 경륜의 이름, 대표적인 인물
- D. 각 경륜은 하나님이 독특한 경영방식과 특권을 허락하신 체제 및 기간
 - 1. 각 경륜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독특한 규정과 권리를 가지고 있다.
 - 2.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빛의 정도에 따라 서로 다른 책임이 주어진다.
 - 3. 새로운 경륜이 열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전 경륜에서보다 더 많은 진리의 빛을 허락하신다.
 - 4. 다시 말해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계시가 진보된다.

XII. 네 가지 고찰 사항

- A. 경륜이 시작될 때 사람의 상태
 - 1. 각 경륜이 시작될 때 상황이 어떠했는가?
 - 2. 당시 사람의 책임은 무엇이었는가?
 - 3. 하나님은 사람에게 어떤 계시를 주셨는가?
 - 4. 사람이 받은 하나님의 진리는 무엇인가?

5.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B. 사람의 책임

1.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책임과 의무는 무엇인가?

2. 사람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C. 사람의 실패(혹은 각 경륜이 끝날 때 사람의 상태)

1. 사람은 자신의 책임을 완수하는 일에서 성공하는가, 실패하는가?

2. 사람은 하나님의 집안 규정에 순종하는가, 불순종하는가?

3. 각 경륜에서 사람은 비참하게 실패한다.

a. 이 사실은 우리에게 사람은 위대한 구원자가 필요한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거듭 거듭 상기시켜 준다.

b. 즉 사람이 자기 힘으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된다.

D. 하나님의 심판

1.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에 무언가를 맡기셨는데 사람이 제대로 그것을 관리하지 못했다면 심판이 따른다.

XIII. 세대주의자란?

A. 결론적으로 세대주의자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면 그것을 정말로 뜻하셨다고 믿으며 그분께서는 오직 자신이 뜻하신 것만을 말씀하신다고 믿는 사람이다.

B. 세대주의자는 간략히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고 따르는 사람이다(사66:1-2).

성경 바로 보기 제1과

I. 세대주의자는 성경에서 발견되는 명백한 차이점들을 인식하는 사람이다.

- A. 세대주의자는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다른 방식으로 경영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다.
- B. 세대주의자는 성경 속에서 다음과 같은 중대한 차이점을 인지한다.
 1. 사람의 타락 뒤에 생긴 차이
 2. 대홍수 뒤에 생긴 차이
 3. 바벨탑 심판 뒤에 생긴 차이
 4. 아브라함을 부르신 뒤에 생긴 차이
 5. 율법이 수여된 뒤에 생긴 차이
 6.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뒤 생긴 차이
 7. 교회의 휴거 뒤에 생길 차이(살전4:13-18; 요14:3): 7년 환난기
 8.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난 뒤에 생길 차이(계12:7-12): 7년 환난기 중반
 9. 천년왕국이 끝난 뒤에 생길 차이(계20-22장)
- C. 성경의 파노라마: 각각의 경륜에 대해 배울 것이다.
- D. 신약시대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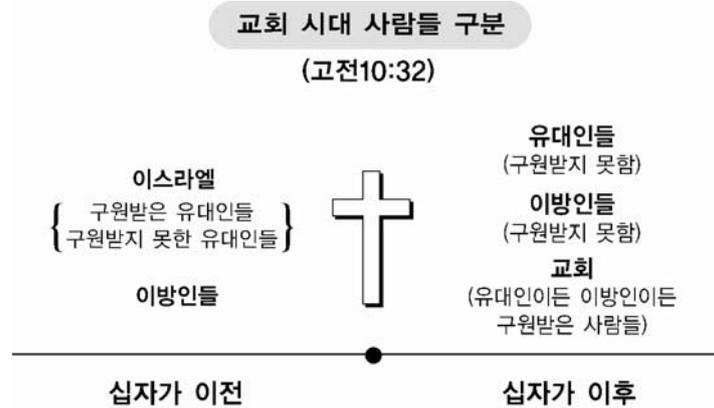
1. 십자가 사건
 2.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승천(행1장)
 3. 오순절 성령강림, 교회의 시작(행2장)
 4. 교회 시대(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됨 - 고전12:13; 행2:47 참조)
 5. 교회의 휴거(요14:3; 살전4:13-18) -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하늘로 데려감
 6. 7년 환난기(땅에 큰 고통이 임하는 때) - 후반부 3년 반은 흔히 '대환난'으로 불림(마24:21; 렘30:7)
 7. 환난기의 중간(단9:27; 마24:15)
 8.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 임하심(계19장; 마24:30)
 9.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서 천 년 동안 통치함(계20장)
- E. 천년왕국(계20:2,3,4,5,6,7)
1. 성경대로 믿으면 천년왕국 이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전천년 믿음, Premillennialism). 후천년설, 무천년설
- F. 휴거
1. 성경대로 믿으면 7년 환난기 전에 휴거가 이루어진다(환난 전 휴거, Pre-tribulation rapture), 환난 통과설(환난 중간, 환난 후), 70이레, 계3:10

II. 세대주의자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이해한다

- A. '문자적'(literal)이란 말은 '글자 그대로, 과장 없이 혹은 상상하지 않고'라는 뜻을 지닌다.
1. 6일 창조(창1)
 2. 천년왕국(계20)

III. 세대주의자는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한다.

- A. 구약시대에 살면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유대인들)은 교회의 일부가 아니다.
1. 이스라엘 사람이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을 말한다(롬9:4-5).
 2. 모세와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 같은 사람은 다 이스라엘 사람 즉 유대인이다.
- B. 이방인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들을 통칭한다.
1. 이방 사람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혈통을 이어받지 못한 사람이다(엡2:11-12).
- C. 교회는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신 유기체이다.
1. 모세, 여호수아, 다윗, 이사야는 모두 구원받은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교회의 일부는 아니었다. 다시 태어남이 없다.
 2. 오늘날에는 어떤 사람이든 구원받아 성령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는 교회의 일부가 된다(고전12:13).



- D. 신문 기사: “철수가 부산행 무료 항공권을, 영희가 제주행 무료 항공권에 당첨되었음”
1. 만나는 사람마다 “영희가 부산에 가게 됐다.” 혹은 “철수가 제주도에 가게 됐다.” 큰 혼란이 생김
- E. 예수님의 재림 때에 다음과 같은 구약의 이스라엘을 향한 약속들이 그대로 성취될 것이다.
1.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회복된다(슥10:6-12).
 2. 이스라엘이 엄청난 심판을 받아 3분의 2가 죽고 오직 3분의 1만 주님의 구원을 받는다(슥13:8-9).
우리 주 예수님은 이것을 가리켜 대환난이라고 말한다(마24:21).
 3. 이스라엘이 구속을 받는다(슥12:10-13:1). 롬11
 4. 메시아가 재림하면서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쳐부수고 예루살렘에서 치리하신다(슥14:1-21).
 5. 예루살렘에서 천년왕국 통치가 이루어진다.

IV. 세대주의자는 성경의 일관된 주제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본다.

- A.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통해 무엇을 하시는가?
1. 대부분의 사람들은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주된 목적을 사람의 구원으로 본다.
 2. 우리는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주된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본다.
 3. 노아의 대홍수, 8명 구원, 하나님이 실패하셨는가? No!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은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자신의 계획과 영광을 나타내신다. 그것의 일부가 사람의 구원이다.

V. 극단적 세대주의자들

- A. 교회는 사도행전 13장 혹은 28장 이후에 시작되었다.

1. 물 침례는 오늘날 적용되지 않는다.
2. 주의 만찬은 오늘날 적용되지 않는다(모두는 아니지만 대다수가 이렇게 말함).
3. 마태복음 28장 19-20절과 마가복음 16장 15-16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도 오늘날 적용되지 않는다. 이 명령은 교회에게 주어지지 않았다.
4. 사복음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등은 전적으로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며 교회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Peter Ruckman

B. 오류: 사도행전 2장 47절,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다.”고 말함. 이 핍박은 사도행전 7장 58절; 8장 1-3절; 9장 1-2절에서도 발견됨, 바울의 회심은 사도행전 9장에 나옴, 그러므로 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서 시작됨.

VI. 세대주의에 대한 오해

A. 세대주의는 최근에 생긴 교리로서 역사성이 없다.

1. 현 시대 세대주의의 원조: 존 넬슨 다비(AD 1800-1882)
2. 시대에 따라 하나님의 경륜이 바뀐다는 것은 초대 교회부터 누구라도 다 아는 내용이다(신약과 구약 차이).
3. 초대 교부들 및 역사의 증언
 - a. 마터(Justine Martyr, 주후 110-165) 「트리포와의 대화」(Dialogue with Trypho)
 - b. 이레네우스(Irenaeus, 주후 130-200)
 - c.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Clement, 주후 150-220)
 - d. 어거스틴(Augustine, 주후 354-430)
 - e. 피오레의 요아킴(Joachimm, 주후 1135-1202)
 - f. 포와르(Pierre Poiret, 주후 1646-1729)는 「하나님의 경륜」(L'OEconomie Divine)
 - g. 에드워즈(J. Edwards, 주후 1639-1716)는 영국 국교회의 칼빈주의 목사로서 1699년에 「모든 세대들의 전체 역사 혹은 개관」
 - h. 찬송가 작시자로 잘 알려진 와츠(I. Watts, 주후 1674-1748)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지정해 주신 모든 종교와 그들을 향한 그분의 모든 세대의 조화」
 - (1) 무죄 세대 혹은 처음의 아담의 신앙
 - (2) 은혜 언약의 아담 세대 혹은 타락 후의 아담의 신앙
 - (3) 노아 세대 혹은 노아의 신앙
 - (4) 아브라함 세대 혹은 아브라함의 신앙
 - (5) 모세 세대 혹은 유대교 신앙
 - (6) 기독교 세대

B. 천주교 예수회의 임마누엘 라쿤자가 만든 이론이다(아일랜드의 개신교인들의 주장).

1. 천주교가 삼위일체를 믿으므로 삼위일체는 이단 교리인가? No!
2. 우리는 성경에 여러 경륜들이 있으므로 믿는 것이지 라쿤자를 따라 믿는 것이 아니다.

C. 세대주의는 시대마다 구원의 방법이 다르다고 가르친다. N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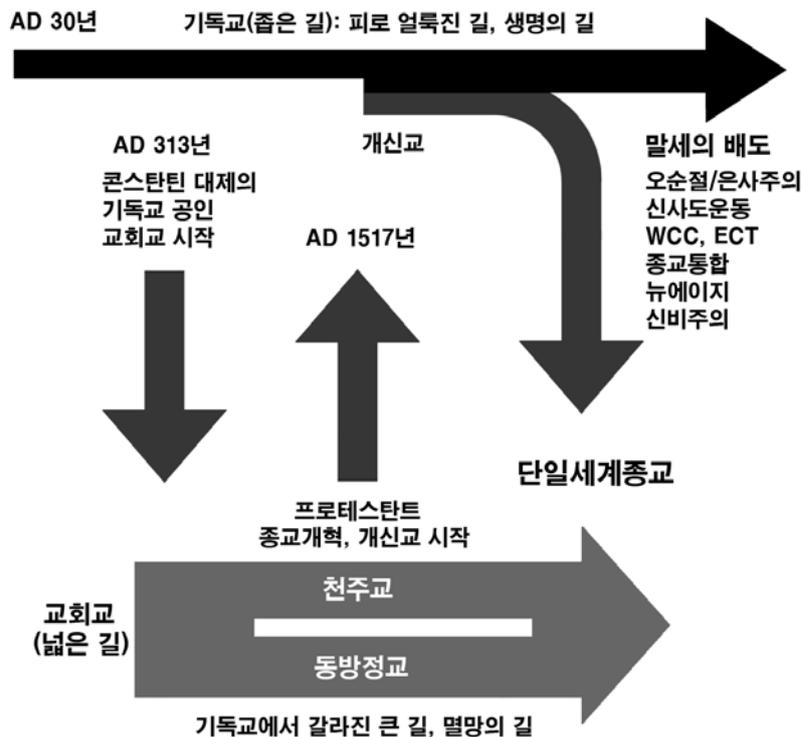
성경 바로 보기 제1과

V. 세대주의자가 아닌 사람들: 언약주의자들, 천주교와 대부분의 프로테스탄트들

A. 언약주의를 이해하려면 교회 역사를 이해해야 한다. 마16:18에서 예수님의 교회 창립 선언

1. 기독교의 요람은 어디인가? 천주교로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2. 천주교를 이해해야 모든 것이 풀린다: 성경, 신학, 종교통합 문제 등
3. 천주교의 기초를 놓은 인물: 어거스틴(AD 354-430), 북아프리카 카르타고 히포의 교부
 - a. 19세에 노예 여자와 동거하며 아이 출산, 육체(섹스)를 견디지 못하다가 금욕주의를 가르치는 마니교에 심취, 마니교 성직자들은 선민으로 금욕, 독신 유지
 - b. 마니교
 - (1) 선과 악의 극단적 이원론 체계(AD 300-700년 사이)
 - (2) 기독교, 조로아스터교 등의 융합 종교(종교 통합), 보편적 구원론
 - (3) 영지주의의 일종: 육체는 악하므로 영적인 지식을 통해 구원에 이른다.
 - c. 개종 후 유아세례(도나티스트 탄압), 연옥 교리 확립
 - d. 교회가 구약의 이스라엘을 대체하였고 모든 약속을 대신 받는다. 유대인 박멸(Jesus killer), 반셈족주의(Anti-Semitism)
 - e. 천주교 교황의 그리스도 대리 통치 교리: <하나님의 도시>(신국), 핵심: 천주교회가 다스리는 세상이 곧 그리스도의 왕국이다.
 - f. 창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을 경건한 셋, 불경건한 가인의 후예로 변개
 - g. 중세 유럽의 모든 국가는 교회와 국가가 하나가 되는 국가 교회: 루터교, 성공회, 장로교 등 모든 프로테스탄트 교회들도 마찬가지,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박탈, 수많은 순교자들 (1781년, 침례교 선조들에 의한 미국 헌법에서 처음으로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명시)
 - h. 그 당시 상황: 유대인 말살, 구약 성경의 예언 성취 매우 희박함

몬타니스트, 노바티안, 카타리, 도나티스트, 바울파, 왈텐시스, 보고밀, 알비겐시스, 재침례성도들 등
오직 성경, 믿음, 은혜, 구원받은 자들만의 교회 회원권, 주의 만찬, 유아세례 No!!!



4. 존 칼빈(1509-1564)의 제네바 통치: 프로테스탄트 교황

- a.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자유를 억압함(4년 통치 기간에 무려 58명 학살, 그중 35명 화형)
- b. 특히 삼위일체를 부인했다고 세르베투스를 죽임, 성경 신자들은 자기와 믿음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
- c. 칼빈의 사상(특히 예정론)에 반대하면 모두 처형함(극도의 독재 체제), 정수영 목사님의 교회사 37-40 참조, 슈테판 츠바이크의 <다른 의견을 가질 권리>, 원제: <폭력에 대항한 양심-칼뱅에 맞선 카스텔리오>
- d. 어거스틴의 국가 교회 통치 이론을 칼빈주의 5대 강령(TULIP)으로 구체화 함: 목표는 인간 자유 말살 및 구약식 신정 전제 국가 설립
 - (1) 전적 타락(**T**otal depravity)
 - (2) 무조건적인 선택(**U**nconditional election)
 - (3) 제한 속죄(**L**imited atonement)
 - (4) 저항할 수 없는 은혜(**I**rresistible grace)
 - (5) 성도의 견인(**P**erseverance of saints)
- e. 이것을 요약한 것이 <기독교 강요>: 스코틀랜드 장로교, 영국의 청교도, 개혁주의, 천주교회와의 일치 주장. 제네바 성경의 편파적인 번역
- f. 칼빈 이후로 장로교는 그의 이론에 따라 천주교의 무천년주의를 따르고 유대인들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으며 구약 성경의 왕국 대언을 비유로 해석함
- g. 주재권 구원(Lordship salvation): 행위 구원
- g. 청교도들, 존 오웬, 매튜 헨리, 조나단 에드워즈, 마틴 로이드 존스, 존 맥아더, 존 파이퍼, 폴 워셔, R. C. 스프로울, 마크 데버 등
- h. 1948년에 이스라엘 설립으로 언약주의는 폐기되어야 할 이론
- i.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통치 때에는 반유대 정서(Anti-semitism)가 승기를 잡아야 하므로 오히려 유대인들의 권리를 인정하는 세대주의가 무시를 당함.
- j. 500-1500년 전에 어거스틴으로부터 나와 칼빈이 정착시킨 언약주의는 그 당시 시대의 산물
- k. 이제 우리는 그런 것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 문자 그대로 성경을 읽고 믿고 따르면 된다.
- l. 1910년경 유대인들의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시점에서 라킨 등이 문자 그대로 성경을 읽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외쳤다.
- m. 성경 그대로 재림이 이루어지고 구약의 메시아 예언과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성경 바로 보기 제1과

1. 무죄 경륜(Dispensation of Innocence)

I. 경륜이 시작될 때 사람의 상태

A. 사람은 하나님을 나타내었다.

1. 창1:26-27
2.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도덕적 성품(마22:18-21)
3. 거울을 보면 나의 형상이 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 안에 있다.
4. 형상과 모양은 육신적인 것이 아니다. 도덕적/지적 성품(엡4:23-24; 벧후1:3-4)
5. 그 형상은 곧 그리스도이시다(고후4:4; 골1:15; 히1:3; 고후3:18; 엡4:13).
6. 잘못하면 이단이 된다(창1:26-27, 안중회)
7. 아담은 모든 것을 다스릴 권한을 받았다.



B. 하나님은 죄인을 만들지 않는다.

1.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좋았다(창1:31).
2. 하나님은 죄의 창시자가 아니다.
3. 아담은 창조 이후 어느 시점에 죄인이 되었다.
4. '무죄하다'(innocent) 혹은 '천진난만하다'는 말은 '죄로부터 자유하다', '죄가 없다', '잘못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처음에 아담은 죄가 없다. 그는 무슨 범법이나 죄를 범하지 않았기에 '무죄'였다.
5. 아담의 마음은 지금 사람들 같이 악으로 가득하지 않았다. 즉 악과 친숙하지 않았다.
6. 그는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었다(요일1:8과 비교). "나는 죄짓지 않았다!"고 말할 수도 있었(요일1:10과 비교).
7. 아담은 또한 하나님과 함께 걷고 이야기하며 하나님과 놀라운 교제를 할 수 있었다. 또한 아담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을 만한 죄가 그의 삶에 들어오지 않았다(사59:2와 비교).
8. 아담은 완전한 환경에서 살았다. 그때 세상은 오늘날과 같이 죄로 인해 저주받은 세상이 아니었다.
 - a. 범죄, 질병, 죽음, 가난 No!
9. 오직 마귀와 그의 천사들만 악하였다(창3:1; 계12:9). 사실 마귀도 처음에는 선한 존재였으나 '하나님과 같게 되려는 불법'을 마음속에 품은 이후로 악한 존재가 되었다.

II. 사람의 책임과 권리

- A. 아담에게 주어진 사명(창2:15), 아담은 에덴동산을 가꾸고 지키는 임무가 있었다.
- B. 아담의 권리(창2:16), 아담은 모든 종류의 맛있는 과일을 마음껏 먹을 수 있었다.
- C. 아담의 책임(창2:17),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야 했다(창2:9).
- D. 그것을 먹으면 죽는다고 하나님은 경고하셨다(창2:17).

III. 사람의 실패

- A. 아담의 실패(창3:6), 그는 생명대신 죽음을 택하였다.
- B. 누가 사탄에게 속았는가?(딤후2:14; 고후11:3)
- C. 그 결과 무죄 상태가 깨졌다.

IV. 하나님의 심판

- A. 아담은 쫓겨났다(창3:22-24).
- B. 생명나무 접근 금지, 나중에 계시록 22장에 가서 등장함(22:1-2).

V. 아담의 죄의 결과

- A. “그가 먹으니라”(He did eat, 창3:6)는 말이 온 세상을 통째로 바꾸어버렸다.
 - 1.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미쳤다(롬5:12).
 - 2. 고되게 일해야 먹고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창3:19).
 - 3. 출산에 고통과 슬픔이 따랐다(창3:16). 4.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롬5:19).
 - 5. 모든 사람이 정죄를 받았다(롬5:18). 6. 땅이 저주를 받았다(창3:17-18).
- B. 오늘날의 죽음과 쇠퇴와 파멸이 이때 모두 시작되었다. 엔트로피의 증가
- C.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 이것들을 원상 복귀하고 고치면서 더 큰 은혜를 주신다.
 - 1. 마귀의 작전(창3:6; 요일2:15-17; 눅4:1-12)
 - 2. 롬5:17-19
 - 3. 고전15:22, 45

성경 바로 보기 제2과

1. 무죄 경륜(Dispensations of Innocence)_연속

D. 형상이 손상되었다. 더는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

1. 하나님의 형상에는 잃을 수 있는 형상이 있고 잃을 수 없는 형상이 있다(창5:1, 3 비교).
 - a. 잃을 수 없는 형상(고전11:7; 약3:8-9; 창9:6): 짐승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영광, 일반적인 도덕적 성품, 양심, 불신자들도 이 형상을 가지고 있다.
 - b. 잃을 수 있는 형상(골3:9-10; 엡4:24)
 - c. 잃어버린 형상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섬기는 능력, 하나님과의 교제가 결여된 것을 뜻한다.



1. 아담의 자녀들(창5:3)
2. 그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그의 형상대로 태어난다(예수님 제외).
3. 이것을 해결하려면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한다(고후5:17).

E.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있다!

1. 아담은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하는 매우 중요한 선택을 해야만 했다.
2. 그는 생명과 사망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만 했다.
3. 모든 사람은 사망과 생명, 복과 저주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한다(신30:19; 수24:14-15).
4. 아담의 결정은 나무에 달려 있었듯이 우리의 결정도 나무에 달려 있다. 그 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나무이다(벧전2:24).

VI. 하나님의 형상 보충 설명

- A. 하나님은 눈에 보일 수도 있는 형상의 영이시다(요1:32).
- B. 하나님은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나기도 하셨다(출24:9-10; 사6:1).
- C. 여러 가지 현현에 의해 과거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요1:18; 출33:18-23).
- D. 하나님을 본 경우와 그분을 볼 수 없다고 하는 구절은 모순이 아닌가?

대답: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고는 내 얼굴을 보았다고 말하는 것과 또 나는 내 얼굴을 볼 수 없다고 말하는 것에 모순이 있는가? 없다. 아무도 하나님의 본질적인 형상 혹은 모양을 볼 수 없다.

1. 형상(모양)은 사람의 3중적 구조를 뜻한다(밑에서 설명).
2. 성육신과 관계가 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사람',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다(벧후 1:4).

E. 이미지 예배 금지(출20:3-5; 롬1:18-25)

VII. 사람은 영혼육의 3중 존재인가? 몸과 혼(혹은 영 혹은 영혼)의 2중 존재인가?

A. 2중적 존재

1. 하나님의 계획에 상관없이 우주는 물질과 비물질로 되어 있다: 몸과 혼, 영은 비물질이므로 혼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영혼으로 보는 것이 맞다(플라톤의 이원론, 샤머니즘).

- a. 장로교 개혁주의 입장: “영과 혼은 같은 실체를 가리키는 두 용어일 뿐이다.”
- b. 개역성경, 마리아의 찬양(눅1:46-47) : 시제에 유의, …내 혼이 주를 크게 높이고(doth magnify), 내 영이 하나님 곧 내 구원자를 기뻐하였나니(hath rejoiced) ※ 개역은 ‘soul’을 영혼으로, ‘spirit’을 마음으로 오역함.

B. 3중적 존재

- 1. 성경에 영혼(spirit-soul)은 없으며, 성경은 항상 영과 혼을 나누어 표기한다.
 - a. 살전5:23, 평강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 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
 - b. 히4:12,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찢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 2. 사람은 세 단계의 의식을 가진다: 몸은 세상 의식, 혼은 자기 의식, 영은 하나님 의식
- 3. 성경은 사람의 3중 구조를 지지한다(창2:7).
- 4. 하나님의 삼위일체와는 조금 다르다.

성경 바로 보기 제2과

1. 무죄 경륜(Dispensation of Innocence)_연속

C. 혼은 무엇인가?(창2:7)

1. 성경에서 혼은 사람 자체를 가리키기도 하고 사람을 구성하는 몸과 혼과 영의 세 요소 중 한 부분을 가리키기도 하므로 문맥상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잘 살펴보아야 한다.
2. 성경에서 혼은 대부분의 경우 사람 자체를 가리킨다.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루아흐)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 있는 혼(네페쉬)이 되니라”(창2:7; 고전15:45 비교).
 - a. 개역: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루아흐)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원래 ‘living soul’, 네페쉬)이 되니라(창2:7), 영은 루아흐, 혼은 네페쉬. 개역에서 ‘생령’에 사용된 말은 네페쉬임. 그러므로 ‘생령은 완전 오역’
 - b. 성경에는 혼이라는 단어가 535회 나오는데 기존의 우리말 성경은 히4:12같이 꼭 혼이 나와야 되는 구절에서만 혼으로 번역했고 대부분의 경우 ‘영혼’ 혹은 ‘자’(者) 등으로 바꾸어서 혼의 개념을 모호하게 만들었다.
 - c. “누룩 있는 빵을 먹는 혼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출12:15).
 - d. ‘soul winning’
 - e. 그러므로 사도행전에서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에도 하나님은 많은 혼을 구원하셨다(행2:41).
 - f. 또 하나님은 사람의 혼을 구하는 자를 지혜롭다고 하신다.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나무니 혼들을 얻는 자는 지혜로우니라”(잠11:30).

3. 그러므로 성경은 “내가 혼이 있다”고 말하지 않고 “나는 혼이다”라고 말한다. “나는 몸도 있고 영도 있지만 나는 혼이다.”(창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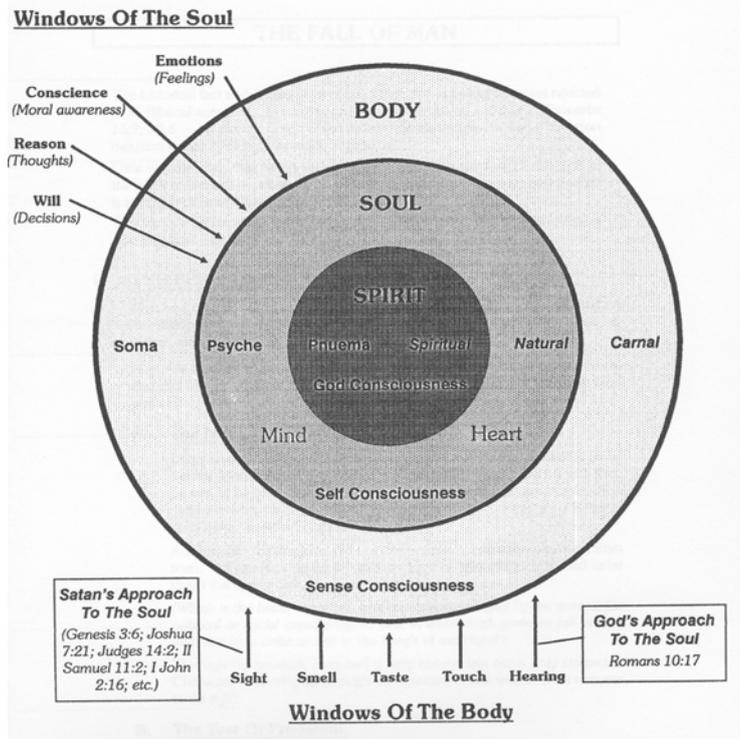
4. 혼의 구원(히10:39; 벧전 1:9-10), 그리스도께서 혼을 구하기 위해 죽음의 고통을 감당하셨으므로 우리는 그분이 귀히 여기는 혼들의 구원을 위하여 복음을 선포하는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혼은 전 인격체를 말함.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이 있어야 사람이다).

5. 하나님의 형상의 한 속성: 불멸, 그러므로 혼(사람)의 불멸은 계시 종교의 근본 교리.

6. 고대 히브리 사람들은 생명을 부여하는 부분 즉 혼이 숨 속에 있으며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숨과 함께 혼이 떠난다고 믿었다(창35:18).

D. 사람을 구성하는 영혼육의 세 부분으로서의 영과 혼과 몸

1. 혼: 혼은 자기를 의식하는 생명, 식물은 혼이 없음
2. 혼의 기본 속성: 지성(intellect), 분별력(sensibility), 양심(conscience), 의지(will) 인격



체: 생각, 기억, 양심, 판단, 의지

3. 사람의 혼에 접근하는 방법

a. 마귀가 혼에 접근하는 방법(이브 창3:6; 아간 수7:21; 삼손 샷14:2; 다윗 삼하11:2; 요일 2:16 등)

b. 하나님께서 혼에 접근하는 방법(롬10:17)

E. 영: 하나님을 의식하는 부분(잠20:27; 요4:24; 롬8:16; 고전14:14-15), 하나님과의 소통 기관: 믿음, 소망, 경외함, 기도

1.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난다.

a. 영이 죽거나 소멸된 사람은 하나도 없다.

b.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태어나는 순간 영적으로 살아난다.

F. 몸: 세상을 의식하는 기관

1. 몸은 혼의 파트너이다. 몸은 하나님의 전이므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전6:19). 다만 몸이 주인이 되게 하면 안 된다. 또한 몸을 원수로 생각해서도 안 된다. 몸은 하나님께 복종해야 한다(롬12:1). 이로써 우리의 몸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는다(빌1:20). 궁극적으로 성도들은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로 인해 보상을 받는다(고후5:10).

2. 사람이 죽으면 혼이 떠남(창35:18), 영은 하나님께로 감(전3:21), 몸은 무덤으로 감. 눅16장 등은 최종적인 몸을 입기 전에 중간 단계의 몸이 있음을 보여 준다.

VIII. 창세기 창조: 기독교 믿음의 기초

A. 기록자: 모세, 기록 시기: 주전 1450년경, 성격: 역사, 기간: 약 2,315년(어셔의 연대기)

B. 이름: 유대인들은 이 책을 '처음에'(In The Beginning)라고 불렀다. Genesis는 창세기를 가리키는 그리스어 책명 '게네시스'에서 나와 라틴어를 거쳐 영어로 정착된 이름으로 '기원'을 뜻한다. 따라서 창세기는 사람과 온 우주의 시작을 보여 주는 책이다.

C. 목적: 사람을 구속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온 인류에게 보여 주는 것

D. 내용: 창세기는 창조주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의 기원을 보여 주는 책으로 온 우주 만물의 창조, 사람의 창조, 가정의 형성, 죄의 기원, 사람의 타락, 희생 예물을 통해 하나님과 잠정적으로 관계가 회복되는 것과 여자의 씨인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종적으로 회복될 것에 대한 예언, 노아의 대홍수, 민족들의 발전,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시작, 족장 시대 믿음의 사람들에 관한 기사, 요셉을 통한 이스라엘 민족의 이집트 진출 등을 담고 있다. 창세기는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특별히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과 그 뒤 죄가 은밀히 들어와 온 세상에 파멸과 죽음을 가져온 것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비극적 결과를 보여 준다. 창세기는 사람이 죽는 이유와 만물이 쇠퇴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므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초가 된다. 그래서 창세기는 곧장 신약으로 연결되어 창세기의 말씀들이 신약성경의 17권의 책 속에서 60여 차례 인용되고 있다. 창세기는 생명으로 시작해서(1:20-28) 사망으로 끝난다(50:26).

E. 핵심 장: 1장(창조), 12장(아브라함을 부르심)

F. 핵심 절: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1:1)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면 성경의 다른 부분을 믿는 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 한 구절은 사람이 만든 여러 가지 그릇된 이론을 산산조각 낸다. 하나님이 계시므로 무신론은 존재할 수 없고 창조주 하나님과 창조물은 전혀 다른 차원에 있으므로 범신론도 존재할 수 없으며 유일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므로 다신론도 무효하고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으므로 물건이나 천체를 숭배하는 유물론도 무효하며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므로 진화론도 성립되지 않는다.

성경 바로 보기 제2과

1. 무죄 경륜(Dispensation of Innocence)_연속

IX. 사람의 기원

- A. 무신론적 진화(Atheistic evolution)—무생명에서 생명, 단순한 종류에서 복잡한 종류로 종이 변함, 빅뱅 이론 등, 진흙탕을 오래 두면 베토벤의 음악, 미켈란젤로의 조각 등이 나옴.
- B. 아담 이전 종족들과 사탄의 심판과 간극 이론(Pre-Adamic, gap theory)—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대격변이 일어났는가? 사탄의 타락이 있었다고 믿는 분들이 있다.
- 1850년대 이후: 진화론, 공산주의, 성경 오류 주장 등이 등장함.
다윈(Charles Robert Darwin, 1809-1882), an English naturalist
1859, 「종의기원」(*On the Origin of Species*)
 - 교회의 대응: 간극이론, 출머스(Thomas Chalmers, 스코틀랜드)
멤버(George Hawkins Pember, 1837- 1910)
「초기 지구의 연대와 현대 심령술과의 관계」
내용: 창1:1절은 원래 창조이며(수억 년 전에 이루어짐) 사탄의 반역(사14; 궤28)으로 인해 지구가 2절처럼 되었고(was가 아니라 became) 3절부터는 재창조임. 마귀들은 그 전에 살던 존재들임. The earth was without form, and void. 몸을 잃어버린 마귀들이 사람이나 짐승의 몸에 들어가려고 함.
 - 「스코필드 성경」: 갭 이론과 세대주의의 확산, 근본주의자들의 성경, 참조 「톰슨성경」
 - 성경 단어 왜곡: The earth was without form, and void. 여기의 was를 became으로 왜곡, 28절의 replenish를 ‘다시 채우라’로 왜곡, replenish의 ‘re’는 다시의 뜻이 아니다.
 - 추종자들: 1980년대 이전의 대부분의 세대주의, 근본주의자들(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라킨(Dispensational Truth), 반하우스, 렉크맨 등.
 - 1960년대 이후의 헨리 모리스 등의 창조과학회 활동 등으로 인해 지구의 생성 연대가 몇 천 년 정도(만 년 이내) 되었음이 밝혀지면서 재창조를 믿는 사람들은 급격히 줄어들.
 - 롬5:12; 8:20-22는 사람의 죄로 인해 사망(심지어 짐승도)이 임하였다고 함. 그러나 간극 이론은 아담이 짐승들의 무덤 위에 거닐었다고 함. 창1:1은 1, 2장의 요약
- C. 유신론적 진화론(Theistic evolution)—하나님이 진화를 사용해서 우주와 세상을 지으셨다는 주장. 성경과 진화론을 조화시키려는 노력, 하루 10억년
- D. 특별 창조(Special creation)—24시간의 6일을 사용해서 모든 것을 무에서 유로 만든 창조
- 히브리말 ‘욘’(yom)은 거의 대부분 ‘24시간의 날’을 가리킨다. 무한정 긴 시간을 가리키는 ‘올람’(olam)이 사용되지 않았다.
 - 창세기 5, 11장의 계보, 969세, 하루가 1000년이거나 10억년이면 969년은 얼마나 될까?
 - 동일 기록자 모세의 증언(출20:8-9, 11; 31:16-17)
 - 다윗의 증언(시33:6-7, 9)
 - 느헤미야의 증언(느9:5-6, 이스라엘 역사 7-38)
 - 누가의 증언: 누가복음 3장, 예수님의 계보,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눅3:38), 셋이 아담에게서 직접 나왔듯이 아담은 하나님에게서 직접 나왔다.
 - 예수님의 증언(막10:6-7), 창조의 시작에
 - 바울의 증언(행17:24; 고전11:8-9, 12; 딤후2:13-14; 롬5:12-21과 고전15:22, 45-47은 첫 아담과 둘째 아담을 비교한다).

E. 결론: 불신 과학자의 고백: “나는 불가능한 것을 믿는다!”

미국 하버드 대학 교수로 1967년에 생리학/의학 분야에서 노벨상을 수상한 생물학자 조지 왈드 (George Wald)는 ‘Scientific American’이라는 인본주의 잡지에서 이렇게 말했다.

“생명이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오직 두 가지 가능성이 존재한다. 한 가지 가능성은 자발적인 발생 곧 진화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행위이다. 세 번째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발적인 발생론은 이미 120년 전에 파스퇴르와 다른 과학자들에 의해 불신임을 받았다. 이로써 우리에게 한 가지 논리적 귀결 즉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행위로 생명이 발생했다는 결론만이 남게 되었다. 그러나 나는 철학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결론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믿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아는 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믿기로 했다.”(George Wald, "The Origin of Life," Scientific American, May 1954)

F. 불신 세상에서 창조 과학의 위치: 유대인과 이방인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

1. 이방인에게는 반드시 창조주 하나님을 설명해야 한다(사도행전 17장 22-31절)
2. 창조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심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3. 그러면 구원받을 필요가 없다.

G. 복음 증언에서 가장 중요한 것: 구원의 원리

- 필요성: 모든 물건에는 그것들을 만든 존재 즉 메이커가 있다. 펜, 의자, 자동차, 책 등 모든 메이커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물건을 판단하여 폐기 처분한다. 사람에게도 메이커가 있다. 물건도 메이커가 있는데 하물며 물건을 설계하는 고등 존재인 사람이 흠에서 그냥 생길 수 있겠는가? 사람을 만든 메이커가 그 사람이 자신의 목적에 부합되는 삶을 살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때가 있다(행 17:31; 히9:27). 이 같은 심판에서 부적격자로 드러난 사람은 메이커가 폐기시킨다. 성경은 이런 메이커를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폐기 처분되는 것을 ‘유황 불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말한다(계20:10). 그러므로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은 먼저 “내게 메이커가 있는가, 없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 방해물: 사람과 물건의 차이는 사람에게 자유 의지가 있다는 점이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적격자로 판정내리는 근거가 죄라고 말하는데 근본적으로 죄란 ‘목표에서 벗어난 것’을 뜻한다. 하나님은 처음에 사람을 만드시며 사람이 자신의 영광에 이르기를 원했지만 사람은 자유 의지를 이용하여 고의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는 그분의 목적에서 벗어나 그분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를 짓게 되었다(롬3:23). 첫 사람 아담에게서 시작된 이 죄라는 독은 사람의 핏줄을 타고 전 인류에게 퍼졌다(창5:3; 롬3:10). 죄의 삶은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 따라 그 이후 모든 사람에게 육체적인 사망이 임했다(롬 6:23).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모든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과 떨어져서 지옥 불속에서 지낼 수밖에 없게 되었다.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셔서 티끌만큼의 죄도 차마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합1:13).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은 “과연 나는 죄인인가, 아닌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 계획: 설사 펜 공장에서 나오는 펜이 자기가 잘못되었음을 알았다 해도 자기 자신이 혹은 그 옆의 펜이 그 펜을 고칠 수 없다. 사람의 죄의 병은 똑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 즉 공자, 석가모니, 마호메트, 소크라테스 등이 고칠 수 없다. 펜을 설계한 메이커가 펜을 고칠 수 있듯이 사람의 설계자인 하나님 즉 사람과 차원이 다른 외부의 존재만이 사람의 죄의 독을 제거할 수 있다(행4:12).

- **확신:**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의 말을 믿는가? 그 사람의 신실함에 근거해서 믿는다.
그런데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 곧 온 천하 만물을 만드신 분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3:16).
구원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뿐이다. 창조주 그분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기에 우리는 그것이 진리임을 믿는다(요14:6).
“죄의 삯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한 영원한 생명이니라”(롬6:23).
- **초청:** 인생은 마치 달리는 기차역을 향해 달리는 사람과 같다. 많은 사람이 단 몇 시간을 아끼려고 열차 시간에 늦지 않으려고 부지런히 역으로 달리고 있다. 그렇지만 영원이라는 무궁한 시간을 아끼려 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은 언제 닥칠지 모른다(히3:13). 나이와 직업과 성별과 지위 고하에 상관없이 오늘 그 시간이 닥칠 수 있다. 그러므로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이 베푸시는 방법을 그대로 믿고 수용하라. 그러면 우리에게 다시 태어나는 기적이 일어난다(벧전1:23).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라. 그분께서 약속하신 대로 누구나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은 값없이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주(主)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主)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롬10:9-10, 13).

먼저 당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십시오.

당신의 죄들로 인해 영원히 형벌 받을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십시오.

당신 스스로 당신을 구원시킬 수 없음을 고백하십시오.

회개하고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하기 바랍니다.

당신을 구원하고 당신 삶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주님께 간구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다음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롬10:13).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네 집이 받으리라”(행16:31).

1.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 우리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2. 오늘 그분을 부르기를 바랍니다.
3. 누구든지 자기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으면 즉시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 바로 보기 제2과

2. 양심 경륜(Dispensation of Conscience)

지난 4시간: 무죄 경륜,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되리라.”(롬5:19)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모든 인류는 나면서부터 죄인이 되었음.

둘째 경륜은 보통 ‘양심 경륜’이라 불린다.

양심 경륜은 아담의 타락에서 노아의 홍수 때까지 이어진다.

I. 경륜이 시작될 때 사람의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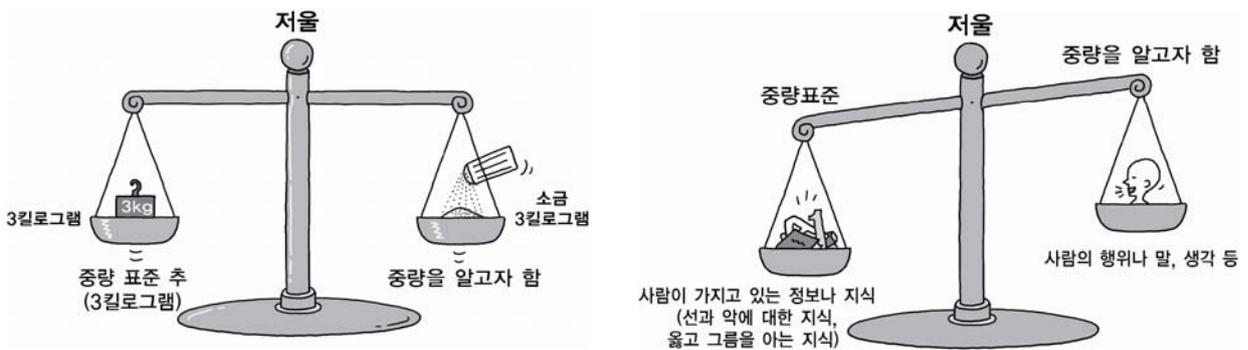
A. 선악과

1. 아담이 먹지 말라고 명령받은 나무의 이름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다(창2:17).
2. 창3:5에서 마귀는 이브가 금지된 열매를 먹는 날엔 세 가지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 a. 너희 눈이 열린다.
 - b. 너희가 신들같이 된다.
 - c. 선악을 알게 된다.
3. 창3:6은 아담과 이브가 금지된 열매를 먹었다고 기록한다.
4. 창3:7은 그들이 열매를 따먹기 전과 후의 상태가 바뀌었음을 보여 준다(창2:25와 비교).
5.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에게 그들이 죄를 지었음을 말해 줄 필요가 없었다. 그들은 스스로 그것을 알았다. 아담과 이브는 즉시 무언가를 인식하게 되었다(창3:7)!
6. 자기들 스스로 선이 아닌 악을 행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죄를 지었음을 안 아담과 이브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실패와 죄를 인식하게 되었다. 눈이 밝아져서 죄에 대해 알게 되었다.
7. 그러나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돌이키기엔 때가 너무 늦었다.
8. 하나님은 악을 경험하신 적이 없지만 악에 대해 훤히 알고 계신다. 반면에 아담과 이브는 경험을 통해 악을 알게 되었다(창3:22). 죄를 짓기 전에 그들은 악에 대해 알지 못했다.
 - a 부모와 아이의 난로 이야기

B. 양심이란 무엇인가?

1. 자신의 행동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판별할 수 있는 능력,
 - a. 사람마다 옳고 그름에 대한 자각이나 인식이 있다.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것
 - b. 양심(conscience): ‘con’ 함께, ‘science’ 안다. 그러므로 ‘함께 안다’는 뜻, ‘우리과 함께 아는 것’, 나쁜 일을 하면 마음에 고통이 느껴진다. 이처럼 양심은 우리와 함께 아는 것이다.
 - c. 양심은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은 이후에 즉각 나타난 기능이다(옷 벗음의 수치).
 - d. 하나님은 사람의 삶 속에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을 때 그가 그것을 깨닫고 고쳐나가길 원하신다.
 - e. 하나님은 사람이 죄를 짓거나 잘못을 범했을 때 그가 잘못을 알고 죄책감을 느끼기를 원하신다.
 - f. 죄를 지었는데도 여전히 즐겁다면 그는 완전히 구제불능의 상태이다.
2. 신체의 신경: 신체에 이상이 생겼을 때 그것을 알려주는 장치
 - a. 몸에 이상이 생기거나 다쳤을 때 우리는 그것을 느낀다.
 - b. 신경이 사람에게 해로운가? 이로운가?
 - c. 뜨거운 난로에 닿았는데도 고통이 없으면 큰 문제
3. 우리 혼의 이상 여부를 알려주는 장치가 바로 양심이다.

- a. 양심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나쁜 느낌을 갖게 한다. 그것이 죄책감이다.
- 4. 짐승은 양심이 없다. 선과 악을 알지도 못한다.
 - a. 짐승은 하나님께서 주신 본성대로 살아가며 이따금 혼란을 통해 특정한 행동 양식을 보이기도 하지만 사람처럼 양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 b. 개가 먹이가 아닌 것을 먹고 거실 카펫을 더럽힌다고 해서 죄책감을 갖지는 않는다.
- 5. 결론적으로 양심은 사람이 자기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 C. 양심은 계기판의 빨간 불과 비슷하다: 엔진 오일, 냉각수
 - 1. 계기판을 망치로 깨면 안 된다.
 - 2. 양심에도 '망치 요법'을 사용하면 안 된다: 술, 담배, 마약, 죄들 등, 이 경우 양심이 망가진다(딤후 4:2).
 - 3. 왜 어떤 성도들은 더 분별력이 많은가? 왜 어떤 성도들은 갈 곳, 볼 것, 들을 것, 할 것을 잘 아는가? 양심이 제대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 D. 양심은 저울과도 비슷하다.
 - 1. 양심은 자아의 판단을 재는 저울이다.
 - 2. “이 행동이 바른 것인가 틀린 것인가? 선한 것인가 악한 것인가? 이것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 3. 바른 답을 대기 위해선 정확한 저울이 필요하다.
 - 4. 저울의 정확성은 표준 추의 정확도에 달려 있다
 - a. 표기된 표준 추의 무게는 3킬로그램인데 실제 무게는 2킬로그램인 경우
 - 5. 무언가를 달아 보기 위해서는 먼저 정확한 진리의 표준이 필요하다.
 - a. 양심에 바른 정보나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면 제대로 측정할 수 없다.
 - b.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해하면 할수록 양심의 저울도 정확해진다.
 - c. 인디언 부족의 습관: 남편이 죽으면 아내를 산 채로 매장하는 것, 인디언에게는 그것이 양심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영국인에게는 양심에 문제가 됨



성경 바로 보기 제24과

2. 양심 경륜(Dispensation of Conscience)_연속

E. 대개 양심은 잘 작동한다

1. 하나님은 사람 안에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식을 주셨다.
2. 사람은 이 기본 지식으로 자신의 행동을 비추어 판단할 수 있다.
3.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출20장)과 다른 율법들을 주셨고 이로써 그들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 살인, 도둑질, 간음, 탐욕 등(출20:13-17)
4. 율법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가? 그들도 선과 악, 옳고 그름을 알 수 있을까?
 - a. 이 질문에 대한 놀라운 답이 로마서 2장 14-15절에 나와 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도 옳고 그름을 알 수 있다.
 - b. 기록된 율법이 없는 사람의 마음속에도 하나님께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두셨다.
5. 기록된 율법이 없어도 사람이 옳고 그름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예
 - a. 아비멜렉, 너그러운 왕: 창26:6-11, 이삭과 아비멜렉의 이야기, 아비멜렉은 블레셋의 왕, 그에게는 성경은커녕 십계명도 없었다. 이삭은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 리브가를 자기 누이라고 말함(창26:7). 뒤에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비멜렉은 매우 근심했다. 자기 사람 중 한 사람이 리브가를 아내로 취하게 되면 그것은 곧 간음이 되기 때문이었다. 아비멜렉은 간음이 나쁜 것임을 알았다(창26:10-11).
 - b. 벨리데의 야만인들: 행28:1-6, 그들에게는 성경도 십계명 사본도 없었다. 그들에게도 마음에 새겨진 법이 있었다. 독사가 바울을 물자(행28:3) 이를 본 야만인들은 그가 죄인임에 틀림없다고 말했다(행28:4). 원주민들은 살인이 나쁘다는 것과 살인자는 죽어 마땅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뱀에 물린 바울을 보고 그가 응분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생각했다. 물론 나중에 바울에 대한 자기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지만(행28:5-6) 선과 악에 대한 그들의 개념만은 옳았다.
6. 모든 사람 즉 구약의 율법을 직접 받은 유대인들과 구약의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보여 주셨기 때문이다.

E. 때로는 양심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1. 빨간 경고등: 폭우로 전선이 젖으면 차에 이상이 없는데도 경고등이 작동될 수 있다.
2. 이처럼 양심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 a. 고전8:1-8, 우상에게 바친 음식물 먹기를 꺼려하는 사람, 약한 양심(고전8:7), 좀 더 많은 지식이 필요함.
 - b. 짐승을 죽이는 것이 나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파리, 모기도).
 - c. 회심 이전 다소의 사울(바울)의 양심,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 생각했다(행26:9-11). 그리스도인과 전쟁을 벌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요16:2와 비교). 나중에 그는 자기에게 필요한 정보를 받게 되고(행9장) 자신의 행위가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 d. 대부분의 경우 사람은 선과 악을 알며 양심도 제대로 된 신호를 보낸다. 선과 악을 구분하는 예리한 지각이 있다.

II. 사람의 책임

- A. 사람은 선과 악을 알았다(창3:22).

1. 지식에는 책임이 따른다. 양심이 좋다고 인정하는 것을 하고 양심이 정죄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2. 창4:2-5, 아벨은 선을 행했고(히11:4) 가인은 악을 행했다(요일3:12와 비교). 그런데 잘못 행한 가인은 화를 냈고 의기소침해짐(창4:5). 이런 나쁜 느낌은 그의 양심이 보낸 것이며 그는 이를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야 했다.
3. 하나님은 가인에게 가서서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창4:6-7).
 - a. 가인은 선을 행하든지 악을 행하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할 수 있었다(창4:7).
 - b. 가인에게는 잘 행할 책임 즉 바르고 선한 것을 행할 책임이 있었다.
 - c. 그러나 가인은 잘 행하지 못했다(창4:8-9). 하나님의 경고와 자기 양심의 소리를 무시했다.

III. 사람의 실패

- A. 창세기 6장에는 홍수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지독한 실패가 묘사되어 있다.
 1. 사람의 사악함이 심히 컸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생겨난 생각은 항상 악했다(창6:5).
 2. 또 땅도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폭력이 땅에 가득했다(창6:11).
 3. 땅 위에서 모든 육체가 자기의 길을 부패시켰다(창6:12).
 4. 이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을 믿고 '잘 행했던' 소수가 있었다.
 - a. 히11:4-7의 아벨(창4), 에녹(5), 노아(6)
 - b. 그 시대에 경건한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했다.
 - c. 유14-15에는 경건한 에녹이 당대의 사람들에게 선포했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다.
 - d. 15절에는 '경건치 않은'이란 단어가 무려 네 번이나 나온다.
 - e. 에녹은 이처럼 불경건한 세상에 살았던 매우 경건한 사람이었다.

IV. 하나님의 심판

- A. 이처럼 부패된 세상을 하나님은 홍수로 심판하셨다(창7:11-12, 23).
- B. 이 심판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여덟 명이였다(벧전3:20; 벧후2:5).
- C. 하나님은 이 같은 홍수의 심판을 다시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다(창9:11, 15-16).

성경 바로 보기 제25과

2. 양심 경륜(Dispensation of Conscience)_연속

V. 양심 경륜은 끝났으나 양심은 지속된다

A. 양심 경륜이 막을 내렸지만 사람은 계속해서 양심 아래 살고 있다.

1. 시대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양심을 소유하고 있다.
 - a. 모든 경륜에서 사람에게는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해야 할 의무가 있다.
 - b. 홍수 이후의 율도 악을 멀리했다(욥1:1).
 - c. 이러한 의무는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져 있다(롬12:9; 벧전3:10-11).
2. 그러나 이제는 '양심이 우리의 안내자'가 아니다.
 - a. 우리의 안내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성경)이다.
 - b. 성경이 선과 악을 우리에게 말해 준다.
 - c.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다(요17:17).
3. 양심의 저울에 참되고 바른 표준이 놓일 때 우리는 정확히 무게를 잴 수 있다.
 - a.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른 신호를 보낸다.
 - b. 롬14:22에 나오는 '행복한 사람'이란 양심대로 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c. 양심이 정죄하는 일을 행하는 것은 결코 안전하지 않다.
 - d. 양심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 e. "그르다고 믿는 일을 행하지 않는다! 바르다고 믿는 일만 행한다!"는 규칙을 따라야 한다.

B. 양심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1. 대부분의 사람들이 양심대로 살려고 한다(혼적인 효소).
2. 양심에 따라 구원이 이루어지면 그것은 행위 구원
3. 구원은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4. 양심은 죄를 보여줄 수 있지만 해결책은 아니다.
5. 창조 세상과 같은 일반 계시, 그리스도에게로 이끄는 인도자

VI. 선한 양심

A. 성경 전체에서 양심 31회 모두 신약성경, 선한 양심(5회, 행23:1; 딤후1:5, 19; 히13:18; 벧전 3:16, 21)

B. 선한 양심을 붙들지 않으면 구원받은 사람도 믿음에서 파선한다. 즉 보상이 없다.

1.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딤후1:18-19)
2. 믿음과 함께 선한 양심이 있어야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다. 악한 싸움이 아니라 선한 싸움(딤후 4:7-8)
3. 세월호 사건, 유명인과 그 일가들의 행태, 선한 양심이 없다(현금 강요, 재산 축적, 불법 비리, 공권력 무시).
4. 이들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 큰 수치를 당하고 있다.
5. 구원 얼마나 좋은 것인가? 좋게 시작했다가 악하게 끝나면 참으로 큰 수치가 아니겠는가?
6. 선한 양심을 버리면 믿음에서 파산할 확률이 크다(19). 자기도 파선하고 남들도 파선시킨다.
7. 이 파선은 목숨을 잃는 것일 수도 있다(20; 고전5:5; 요일5:16-17). 즉 구원받은 자라도 선한 양심을 버리면 믿음에서 파선하여 사망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이로써 신성모독을 할 수 없게 된다(민16-17장의 고라의 반역).

C. 선한 양심의 효과

1. 하나님께 반응하여 구원받고 심지어 침례로 인도한다(벧전3:21).
2. 행위를 지도한다: 사도 바울의 고백(행23:1; 24:15-16), 스스로 힘을 써야 한다.
3. 기도를 돕는다: 요한의 고백(요일3:18-22)
4. 양심은 인격을 성숙하게 한다(히5:13-14). 즉 양심은 영적인 감각이다.
 - a. 고무줄의 특징; 늘었다 줄었다 한다. 그런데 오래 두어 굳어지면 그 작용을 못한다.
5. 양심은 모든 일에서 선하게 행동하게 한다(히13:18).

D. 선한 양심은 훈련으로 유지된다: 선악을 분별하는 감각

1. 히5:13: 말씀으로 훈련시켜야 한다.

VIII. 악한 양심(히10:22)

A. 악한 양심은 선한 양심과 반대가 된다.

B. 악을 행하면 담대함을 주고 선을 행하면 가책을 준다.

1. 사5:20-21
2. 빌3:19

C. 특징

1. 죄를 장난으로 여긴다(삼하2:12-16),
 - a. 이스보셋, 아브넬, 다윗, 요압, 기브온, 12명씩 겨루게 함. 상대의 머리를 붙잡고 옆구리를 찌르게 함. 모두 죽음
2. 고백과 회개가 부실하다.
3. 평판에만 신경을 쓴다. 보이지 않는 데서는 아무렇게나 한다. 위선
4. 명백한 진리에 대항한다. 창조, 하나님의 말씀 보존
5. 소유자: 사울, 하나님의 선택을 받음(겸손함), 말씀을 어기고 제사장 노릇을 함, 아말렉을 멸절시키지 않음, 다윗과 사무엘을 미워하고 죽이려 함, 결국 자살하게 됨

D. 악한 양심이 생기는 이유: 죄를 소홀히 여기기 때문이다. 죄가 없다고 한다. 무엇을 해도 용서가 된다고 한다.

1. 요일1:6, 8, 10

E. 해결책 요일1:9, 고장 난 계기판은 고치면 된다.

1. 자기를 낮추고 통회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함(다윗의 고백, 시51)
2. 히(9:14; 10:22)

IX. 양심에 대한 결론

A. 당신의 양심은 얼마나 정확한가? 얼마나 선과 악에 예민하게 반응하는가?

1. 옳고 그름을 저울질할 필요가 있을 때 당신의 양심 저울은 얼마나 정확한가?
2. 성경을 읽는 목적이 정말 바른 것과 그른 것을 알아내기 위한 것인가?
3.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저울에다 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가?
4. 우리의 저울이 정확한 저울이 되기를 바라야 하며 더욱 주의하여 우리가 아는 대로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해야 한다.

성경 바로 보기 제26과

2. 양심 경륜(Dispensation of Conscience)_연속

I. 이 경륜은 아담의 타락 이후 약 1,500년 동안 지속됨

A. 가인과 아벨, 에녹, 무두셀라, 노아와 그의 아들들

1. 에녹과 무두셀라(창5:21-27; 히11:5-6)

a. 에녹(유14), 동행(암3:3): 가정 생활하면서

b. 휴거의 예표(살전4:16-17; 고전15:50-52)

c. 무두셀라: “죽을 때에 그것이 보내어질 것이다.” 그것은 대홍수(노아의 600세에), 그가 죽던 해에 홍수가 생김. 969세로 최장수 인물임

2. 라멕과 노아(창5:28-32)

a. 노아(안식): 셋의 후손들은 안식을 원함. 노아의 선조들은 대개 100세에 아이를 낳음, 노아는 500세에 낳음,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생김

b. 예수님의 경고: 재림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마24:37-39).

c. 노아는 120년 동안 하나님의 심판을 외침(창6:3)

B. 노아 시대의 가장 큰 특징: 하나님의 아들들의 출현(창6:1-4),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6:5-8)

1. 하나님의 아들들(Sons of God): 경건한 셋의 후손들 혹은 천사들

2. 어거스틴의 출현 전까지는 거의 모든 신자들이 천사들로 봄

3. 천주교(프로테스탄트) 신학에 의거하여 많은 성도들이 경건한 셋의 후손들로 보지만 큰 오류임.

4. 성경은 분명하게 그들이 천사들이라고 말하며 요세푸스의 저서에서 볼 수 있듯이 정통 유대인들 역시 그들을 천사들로 본다.

5. 창6:2, 4에 나오는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며 이것은 ‘창조의 하나님으로서의 주님’을 가리킨다. 그래서 창1:1의 하나님은 엘로힘이며 그 뒤에도 엘로힘은 계속해서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을 지칭하는 데 사용된다. 구약성경에는 단 한 번도 구속의 하나님을 지칭하는 여호와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여호와(주)의 아들들’이 나오지 않는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칭호는 구약성경에 총 다섯 번 나오며 그 다섯 번 모두 ‘창조에 의한 하나님의 아들들’ 곧 천사들을 의미한다(창6:2, 4; 욥1:6; 2:1; 38:7).

6. 창세기 6장에는 ‘경건한 셋의 후예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간과하는 말이 있다. “당시에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뒤에도 있었으니”(창6:4).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거인들이 있었다.”

a. 홍수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 들어가 아이들을 낳았고 홍수 이후에도 역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로 들어가 아이들을 낳았다. 그런데 만일 이 구절이 홍수 이전의 경건한 셋의 아들들과 불경건한 가인의 딸들을 의미한다면 홍수 때에 셋의 아들들과 가인의 딸들이 다 흠 속에 묻혀 버렸을 터이므로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b. 이 문제에 대한 단 한 가지 해결책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타락한 천사들이며 사람들의 딸들은 육신을 갖고 있는 여자들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경건한 사람이 불경건한 사람과 결혼해서 거인을 낳은 것은 성경이나 세속 역사에 없다. c. 그리스 신화의 거인들(타이탄, 헤라클레스)

7. 여기 나오는 거인은 영적 거인이 아니고 실제적 거인들로 홍수 이후에 여러 이름으로 불렸다: 엠 족속(창14:5; 신2:10-11), 수스 족속(창14:5). 아낙 족속(신2:10-11; 수11:21-22), 르바 족속(창14:5; 15:20), 삼숨 족속(신2:20).

8. 사무엘기상 17장에 나오는 거인 골리앗은 적어도 3.3미터나 되는 신장을 갖고 있었으며 바산의 왕이던 거인 옥은 길이가 4.2미터, 너비가 2.1미터나 되는 침대에서 잠을 잤다(신3:11).

9. 신약성경 역시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였음을 보여 준다.
- a. 유5-7에서 유다는 (1) 이집트의 속박에서 구원을 받았으나 후에 불신앙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 이스라엘 백성과 (2) 하늘을 떠나 낮선 육체를 따라가며 음행을 행한 불순종한 천사들과 (3) 낮선 육체를 따라가며 음행을 저지른 연고로 죽어서 영원한 불의 보복을 받은 소돔과 고모라의 거주민들에 대해 말한다.
 - b. 첫째 사건은 민수기 14장에 기록되어 있으며(가나안에 들어가기를 거부함) 셋째 사건은 창세기 19장에 기록되어 있다. c. 구약성경 전체에서 유대인 신자들에게 둘째 사건을 기억나게 해 주는 구절은 창세기 6장 말씀뿐이며 따라서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이다. 한편 사도 베드로 역시 벤후2:4-6에서 같은 사실을 보여 준다.
10. “부활 때에는 그들이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아니하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다.”(마 22:30)는 말씀으로 천사들이 결혼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이들, 이 구절은 “부활 때에 어느 누구도 결혼하지 않으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은 결혼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것은 결코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과 육체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음을 말하지 않는다.
11. 실로 성경에는 성이 없어 중성처럼 행동하고 중성처럼 보이는 천사는 단 한 명도 없다. 성경에 등장하는 천사는 다 남성이며 남자처럼 생겼고 그래서 종종 남자들로 오인되곤 했다.
12. 성경에 언급된 거인은 모두 고대에 유명한 남자들이며(창6:4) 여기에도 이유가 있다. 아이가 수태될 때 아이의 성(性)을 결정하는 것은 남자이다. 그런데 천사들 중에는 여성이 없으므로 타락한 천사들의 정자는 단지 남자만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즉 타락한 천사의 성염색체가 모두 YY이고 이것이 여자의 성염색체 XX와 결합하면 언제나 XY가 되어 남자만 나올 수 있다.
13. 천사: 능력이나 지혜에서 사람보다 고등한 인격체 즉 하나님 주변에 둘러 서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
- a. 하나님은 그들을 사역자로 사용하여 세상사를 집행하시기도 하고 개인이나 국가의 혹은 전 인류의 복지를 증진시킨다(마1:20; 행7:30 등).
 - b. 그들은 순수한 영으로 혹은 영적인 몸을 가진 존재로 존재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완전한 남자의 모습으로 사람이 알아채지 못하게 나타난다(히13:2).
 - c. 천사는 꼭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사람이 하는 것과 같은 것을 행한다(창19:1, 3, 소돔의 남자들의 성적 만족의 대상, Sodomites, 신약의 예: 행10:3; 30; 계21:9; 17; 히13:2)
 - d. 성경은 천사를 언급하면서 언제나 남성 단수 대명사 he를 사용하며 이로써 천사들이 남성임을 보여 준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여자 천사나 아기 천사 혹은 날개 달린 천사는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 한편 천사들은 우리의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창조된 것으로 보인다(욥38:7).
 - e. 천상에는 천사들, 그룹, 스랍 등이 있다(사6:2-6; 겔10:1). 천사들 가운데는 천사장이 있고 천상의 존재들 가운데는 왕좌, 통치, 권능, 정사 등 여러 등급이 있다(골1:16; 계12:7).
 - f. 천사들은 성경의 여러 사건에서 언급되며 한 마디로 그들은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한 ‘섬기는 영들’이다(시91:11; 103:20; 히1:14).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신뢰하거나 그들에게 경배하거나 그들의 이름으로 기도해서는 안 된다(계19:10; 22:8-9).
 - g. 사람의 창조 전에 천사들의 일부가 루시퍼와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하여 사탄의 천사들 즉 마귀들이 되었다(마25:41; 계12:9).
14. 적용: 노아의 때, 롯의 때(눅17:26-33; 단2:43)⁸⁾

8) <http://www.youtube.com/watch?v=oKjd3CV0MCs>, Chuck Missler - Genesis Chapter 6 Sons of God Nephilim Rephaim Anakim Emim, 10만 회
<http://www.youtube.com/watch?v=LAQQfzO2wg0>, Genesis 6 Giants, Mighty Men of Old - Steve Quayle - Hagmann, 30만 회

성경 바로 보기 제2과

3. 인간 정부 경륜(Dispensation of Human government): 홍수 이후부터 바벨탑까지

I. 경륜이 시작될 때 사람의 상태

A. 전 세계적인 홍수 이후 8명이 살아남음(창8:15-16; 벧전3:20), <창세기의 발견>, 주(舟)와 선(船)

1. 노아는 의로운 사람(창6:9), 의(義), 기독교는 하나님 앞에서 의를 찾는 것
2. 노아는 믿음의 사람(히11:7),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
3.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창15:5-6), 전가된 의(imputed righteousness)
4. 진실로 의로우신 분은 예수님 한 분이시다(요일2:1; 벧전3:18)
5. 그분에 의해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후5:21; 롬3:22).
6. 하나님의 의: 사도 바울이 발견한 것(롬1:16-17)
7. 의를 얻는 수단: 복음

B. 8명이 확신할 수 있었던 일

1. 계절(창8:22)
2. 짐승들의 두려움(창9:2-3), 육식 허용
3.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로 땅을 멸하지 않으실 것(창9:11-15)
4. 이들은 한 언어를 사용하였다(창11:1과 비교)

II. 사람의 책임

A. 방주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은 사람들과 짐승들(창8:17)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들이 나가서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는 것이었다(창9:1; 9:7). 그런데 사람들은 땅을 채우는 대신 한 곳에 모여 살고자 했다(창11장).

B. 인간 정부의 책임

1. 홍수 이후 창9:4-6에 보면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법이 나온다.
2. 살인자 즉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반드시 사람이 죽어야 한다(레17:11; 히9:22).

C. 사형제도

1. 죽음은 두려움 중에서 가장 두려운 것(히2:15)
2. 잡히면 죽는다는 것을 아는 범인은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할 것이다.
3. 하나님이 친히 살인자를 죽일 수도 있었지만 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그 책임을 사람에게 주셨다.
4. 하나님은 정부를 두셔서 범죄를 처벌하는 권리와 책임을 정부에게 주셨다(그래서 인간 정부 경륜).
5. 이것은 인류에게 큰 복이었다.
 - a. 첫째 행악자를 벌할 수 있고
 - b. 둘째 범죄를 방지할 수 있으며
 - c. 셋째 무죄한 자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전8:11).
6. 사형 제도는 그 이후로 지금까지 내려온다
 - a. 사형제도는 모세 때에도 있었다(출21:12, 15-17).
 - b. 모세의 율법 하에서 사람을 쳐서 죽인 자, 부모를 치는 자, 사람을 흠쳐서 파는 자, 부모를 저주하는 자 등은 죽어야 했다.
 - c. 오늘날에도 세상 정부는 사형을 집행할 책임이 있다.
 - d. 롬13:1-4, 정부의 통치자는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사역자이다.
 - e. 그러나 지금 세상의 대부분 정부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다.

7. 오늘날 하나님이 직접 처벌하는 일은 거의 없다. 그러나 장차 이 땅에 임할 천년왕국 때에는 그분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8. 사도 바울은 사형에 해당하는 일을 한 사람은 죽어야 한다고 믿었다(베스도 총독 행25:11).
9. 그리스도 곁에서 죽은 범죄자 중 하나는 자신이 자기 행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생각했다(눅23:40-41).
10. 심지어 미개한 야만인들도 살인자가 마땅히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행28:4).
11. 성경은 모든 사람이 범죄자이고 법을 어긴 죄인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우리는 다 사형을 받아야 한다(롬6:23).
 - a. 롬1:29-31에 나오는 죄의 목록
 - b. 롬1:32는 이 같은 일을 범한 자는 죽어 마땅하다고 말한다.
12.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다(딤후1:15).
 - a.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 값을 지불하시려고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롬6:23; 5:8; 뱀전3:18).

III. 사람의 실패

- A. 노아의 날 대홍수에서 살아남은 것: 8명, 짐승 그리고 죄라는 마음의 병(렘17:9-10).
 1. 창9:20-21절은 의로운 노아 안에 있던 죄의 문제를 잘 보여 준다.
 2. 노아의 가족들의 변영: 아라랏 산에서 움직이기 시작하여(창8:4)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사이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비옥한 지대의 땅인 시날에서 정착하였다(창11:2). 창11:1-4절 읽고
 3. 이때 이 사람들이 사용한 언어는 단 하나였다(창11:1).
 4. 이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돌 대신 진흙으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였다(창11:3-4).
 5. 이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원치 않았다(창9:1-7).

IX. 하나님의 심판

- A. 하나님은 사람들, 도시, 요새, 그들의 악한 계획 등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창11:6).
- B. 죄인들이 연합하여 상상을 초월할 악을 행할 것을 하나님은 아셨고 이들의 계획을 막으셨다.
- C. 하나님은 오늘날 인간 정부 - 경찰, 판사, 법 등 - 를 사용해서 죄인들을 제지하신다.
- D. 하나님은 그들이 연합하지 못하도록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창11:7). 전 세계 3,000종 언어
- E. 그들의 건축 계획은 무산되었고 그 도시는 혼란을 의미하는 바벨이라 불리게 되었다(창11:8-9).
- F. 이로써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세상으로 흩어져서 땅의 여러 곳에 정착하게 되었고 이것이 바로 나라들 혹은 민족들의 시작이다(창10:5, 20, 31, 32).
- G. 나라들이 뭉치게 되면 참으로 위험한데 이는 모든 힘이 한 사람의 사악한 독재자의 손에 들어가기 때문이다(행17:24-27).
- H. 마지막 때는 Melting pot이 된다.
- I. 성경은 현 시대 경륜의 마지막에 세계가 연합하여 한 지도자와 한 정부 아래 있게 될 것이며 누구든 이 사악한 체제에 순응하지 않으면 죽음에 처해지게 될 것이라고 예언한다(계13장).
- J. 바벨의 결과: 외국어 공부, 성경 번역, 선교사 파송 등

성경 바로 보기 제2권과

3. 인간 정부 경륜(Dispensation of Human government)_계속

세월호 사건, 약 2달이 지남, 유병언과 구원파,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고 돈만 모으다가 초대형 안전사고, 법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 국가의 공권력을 멸시하며 도망다님, 망명 신청까지 냄.

“구원받은 사람이 과연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생긴다. 사적으로 문의가 온다.

5,000억 횡령, 교회 프렌차이즈, 그리스도인 병역 기피자가 될 수 있을까? 세월호 참사 등이 나면 촛불 집회장으로 나가야 하는가? 직장에서는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은 어떤 국가관을 가져야 하는가?, 사회적 책임,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가르친다.

베드로전서: AD65년경(1장 1절), 국가의 박해로 고난당하는 성도들, 핵심은 2:11-3:12

내용은 세상 권위에 순종하는 것, 국가(11-17), 사회 직장(18-25), 가정(3:1-7), 교회(3:8-12) 롬13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다.

무법 세상, 평등 세상에서 실행하기 어려움. 권위가 파괴되는 시점에서 우리는 무엇을 살펴보아야 하는가?

국가, 사회, 가정, 교회에서 권위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은 노예를 뜻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을 뜻한다. 권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질서 파괴되고 국가, 사회, 가정, 교회가 멸망한다 (고전14:33).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 가정, 국가, 이스라엘, 교회, 국가가 없이는 삶과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다. 국가의 형성: BC 2400년경 노아의 홍수 이후 하나님은 사형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시면서 인간 정부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창9:5-7). 순서, 권위 하에서 다산하라. 창10-11장 민족 형성, 바벨탑 분산

I. 예수님과 사도들의 국가/사회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예수님의 국가관에 대해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1. 마17:24-27, 가버나움에서 공세를 내심, 자녀들은 면제, 세상 사람들을 실족시키지 않으려고 내심.
2. 마22:15-22, 바리새인들, 카이사르에게 세금 바치는 문제, 카이사르의 것들, 하나님의 것들
3. 눅13:1-5,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섞은 것,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것, 데모해라. No! 사람인지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탐욕, 실수). 그럼에도 나라를 전복시키는 일은 안 됨.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일 자체를 행한 적이 없다.
4. 유대 민족의 지도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빌라도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지만 그분은 세상의 모든 규례에 순종하고 십자가 처형까지 당하였다(벰전2:13).
5. 지금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은 로마 제국 하에서 네로라는 사악한 왕의 지배를 받고 있다. 로마에 불을 내고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워 수많은 성도들을 죽인 악랄한 자, 그래도 13-14절에 따라 성도로서 마땅히 세상 권위에 순종해야 함.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자세, 좋은 시민
6. 사도 바울의 고백: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하나님이 의로 심판하신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걸려 옥에 갇힘. 베스도 총독 앞에서 바울의 고백(행25:8; 11), 결국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수형을 당하고 죽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순교하였다.
7. 지난 2,000년 동안 이 세상을 살아간 성도들의 기본자세: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과 사도들의 본을 받아 세상 권위에 순응하며 살았다.
8. 그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에 있다: 내 왕국은 여기에서 속하지 않는다(요18:35-37).
9. 이 땅에 성도들이 사는 이유: 진리를 따르고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나머지는 하나님이 처리하신다.
10. 교회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가 아니다.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불의와 비진리를 미워하지만 무력으로 그것들을 타파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영혼의 문제를 가장 크게 여기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성경 신자는 나라를 사랑하며 세상의 모든 규례에 순종해야 한다. 기도하고 주님께 맡겨야 한다.

II. 왜 국가와 사회의 모든 규례에 복종해야 하는가?(벧전2:11-25)

A. 세상의 불신자들을 위해서(11-12)

1.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임을 기억해야 한다(11).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을 받고 있다. 그 사랑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자들로서 세상에서 좋은 시민으로 살아야 한다.
2. 나그네요, 순례자다. 즉 우리의 고향은 여기가 아니다. 여기는 외국이다. 외국에 가면 거기 시민들이 방문자, 순례자들을 유심히 살펴본다. 괜히 트집을 잡는다. 우리나라의 외국인 학대
3. 육체의 정욕들과 싸우는 군사들이다. 교회는 세상과 분리된 자들, 세상과 달라야 한다. 구원과 사람들처럼 정욕들을 이기지 못하면 세상에 패하고 조롱거리가 된다.
4.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들 가운데서 행실을 정직하게 해야 한다(12). 그래야 우리를 비방하다가도 돌아선다. 그들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행실을 본다.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지 않지만 사람은 본다.
5. 12절의 '돌아보시는 날'은 재림의 때를 가리킨다. 그때에 이들이 우리에게 대해 증언할 것이다.

B. 주님을 위해서(13-17)

1. 성도의 의무는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널리 전하는 것(2:9), 즉 성도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사로 살고 있다. 우리의 행동 하나 하나가 하나님을 나타낸다.
2. 우리는 주님을 위해 모든 규례에 복종해야 한다. 왕과 총독, 대통령, 장관, 시장, 군수 등
3. 이것은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다(15). 하나님의 뜻은 어려운 데 있지 않다. 좋은 시민으로 국가의 발전을 도모하며 충성하며 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4.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단3, 6장의 형상숭배, 기도 금지). 국가의 법이 믿음을 위협할 때 양심의 요구에 따라 순종하지 않았지만 데모하고 반역자가 된 것이 아니다. 촛불 시위한 것이 아니다. 겸손하게 왕의 권위에 순종하였다. 지난 2,000년 동안 교회사의 성도들, 로마 제국과 카톨릭 교회의 핍박을 받았지만 좋은 시민으로 법에 순종하며 살았다. 주님을 위해서
5. 그 이유는 무엇인가? 롬13:1-7까지 읽고 설명
6. 그러므로 우리는 국가의 권력자들에게 순종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딤후2:1-3).
7.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왕을 존경하고 국가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17).

C. 우리 자신을 위해서(18-20)

1. 종들에 대한 의무: 로마 시대에 종들이 있었다. 주인이 있었다. 둘 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 경우 종이 자기 주인을 무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2. 까다로운 주인들에게도 복종해야 한다(18).
3. 심지어 부당한 일을 당하여도 참아야 한다(19). 직장 생활에 얼마나 부당함이 많은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참고 이겨야 한다. 청년들에게 주는 교훈
4. 잘못하지 않았어도 참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20). 좋은 직장인/사회인이 되어야 한다.

D. 예수님이 본을 보여 주셨다(21-25)

1. 무언가를 새로 제작하거나 시작하려면 본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잘 보여 주셨다(21).
2. 무죄한 가운데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셨다(22-23). 이 땅의 교회에서도 문제가 많이 생긴다. 심판자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한다.
3. 죄인들을 위해 심지어 자신을 죽기까지 내어주셨다(24). 십자가의 역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요, 이를 통해 죄인들을 구원하셨다. 그래서 성도들도 이런 본을 보여야 한다.
4. 그 결과 길 잃은 양이던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로 돌아오게 되었다. 혼의 목자, 감독(25)

E. 대한민국을 사랑해야 한다. 1945년 8월 15일 해방, 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창립, 위대한 조국, 대한민국을 부끄럽게 여기면 안 된다. 북한의 공산주의자들과 하나가 될 수 없다.

성경 바로 보기 제2과

3. 인간 정부 경륜(Dispensation of Human government)_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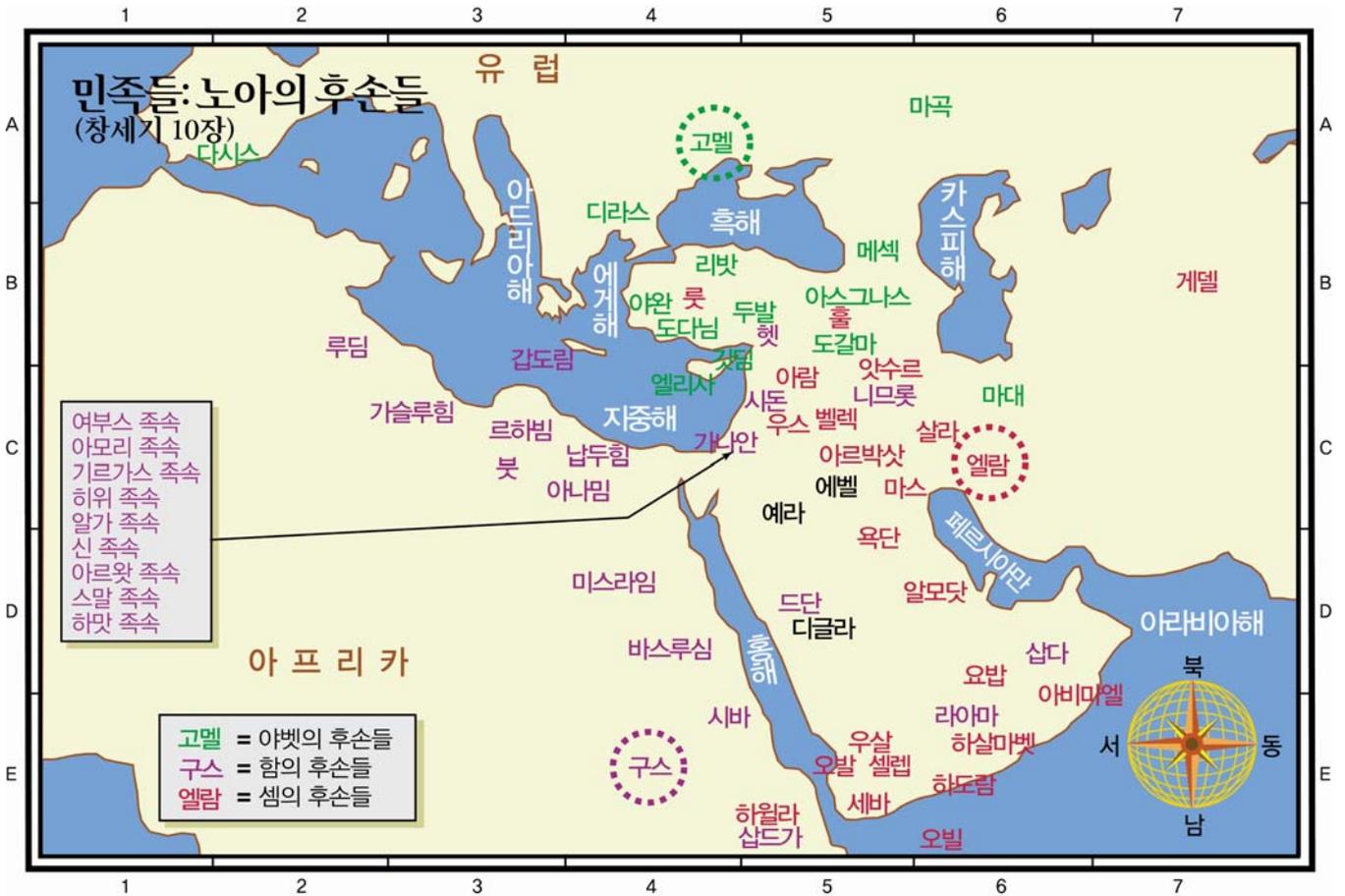
창세기 10장: 민족들과 국가들의 형성

10장: 인류의 뿌리와 족속과 지명과 나라의 기원을 다룬다. 특히 메시아 계보: 창1-5장은 노아까지, 그 이후 노아부터 에벨과 벨렉까지의 계보

창9:1의 성취, 9:19 말씀 설명, 노아(1), 세 아들(3), 70개 가지: 야벳(14), 함(30), 셈(26)
 셈과 함과 야벳의 세대들(1절), 야벳(2-5), 함(6-20), 셈(21-31), 결론(32), 대상1:5-27
 셈은 '이름', '명성', '명예', '평판'의 뜻을 지닌다. 아시아 족속들의 조상

함: '따뜻하다', '덥다'를 뜻한다. 함은 시적으로 이집트를 가리키기도 한다(시78:51; 105:23, 27).

야벳: '증대', '확장'(창9:27), 인도-유럽 족속의 조상



창10:2-5 야벳의 계보, 크게 중요하지 않음

창10:2 고멜: 마대(메대), 아완(그리스), 두발과 메섹: 겔38:2; 39:1에는 마곡의 속국, 소아시아 동부, 흑해 지역, 아마겟돈 전쟁 때 이스라엘을 치는 국가들(겔38:2,5,6)

창10:3 아스그나스: 게르만 족, 도갈마: 터키 동부

창10:4 다시스(스페인), 깃딤: 키프로스 섬

야벳의 자손은 지중해 족, 북서, 북동 유럽 족, 알프스 족, 힌두 족 등이 되었다.

창10:5 셈의 개념, 언어와 가족과 민족

국가의 특징: 한 선조, 영토, 언어, 씨족과 부족으로 구성된다.

창10:6-20 함의 계보, 15절 할애, 매우 중요함

구스: 에티오피아, 미스라임: 이집트, 가나안: '낮은'의 뜻을 지닌다. 팔레스타인, 붓: 리비아

창10:7 하월라: 아라비아 사막 지역(아프리카), 세바와 드단: 아라비아 반도

창10:8 니므롯: 강력한 자, 통치자의 자리에 오름, 주 앞의 '앞'은 '대적하다'의 뜻이 있다. 난폭한 사냥꾼, 바빌론의 시조, 바벨 탑 건축의 주동자, 세미라미스(렘44:15-19, 18-19의 하늘의 여왕), 담무스(겔8:14)

창10:10 시날은 '뒤집어엎다'의 뜻을 가지고 바벨은 '혼잡', '혼동'의 뜻을 가진다. 여기서 바벨은 함무라비의 바빌론 제국의 수도

약갓: 아카드 왕조의 수도

창10:11 앗수르가 나아가 여러 도시를 세움

창10:14 블레셋은 가슬루힘에게서 나옴(암9:7, 크레테), 미스라임의 후손

창10:15-19 가나안의 후손들, 창10:15 시돈, 페니키아 족속, 수도, 헛: 히타이트 족

창10:16 여부스 족속: 예루살렘 주변 족속들(수15:8; 삿1:21), 아모리 족속: 요르단 동서편 산에 거하던 사람들(창15:16)

창10:17 히위 족속: 세겜과 기브온, 헤르몬 산 아래 거주함(수9:7; 11:3),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차지함(수9:3-21)

창10:19 가나안 족속들의 지경

이들은 이집트, 팔레스타인, 이디오피아, 아프리카 사람들의 조상

창10:21 셈은 그 형 야벳의 동생, 창5:32를 보면 셈과 함과 야벳으로 나온다. 개역성경 등은 창10:21에서 셈이 야벳의 형이라 말한다. 그러나 마소라들의 기록과 다른 기록들은 야벳이 셈의 형임을 보여 준다. 창11:10은 셈이 노아의 503-4세에 태어났음을 보여 준다. 노아의 홍수: 600세-601세(창7:11), 2년 뒤는 603-604세, 그로부터 100년을 빼면 503-504년이 된다. 창5:32는 500세에 아들을 낳았음.

에벨은 셈의 증손자, 셈, 아르박삿, 살라, 에벨(24절): Eber은 '건너온 자', 히브리(Hebrew), 창14:13; 수24:3

창10:22 엘람(이란), 앗수르(앗시리아), 아람(시리아), 밧단아람(창25:20; 28:1-7; 31:20; 신 2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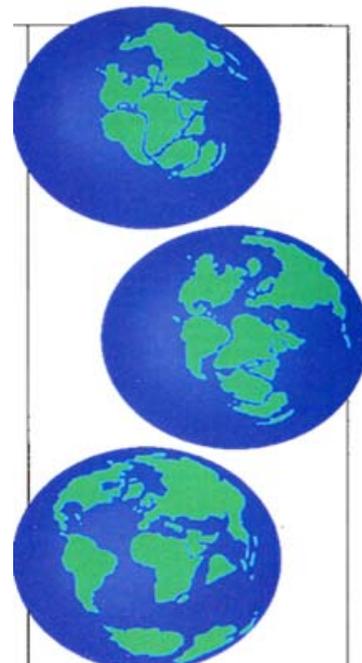
창10:23 우스(읍의 고향: 읍1:1), 창10:29 오빌(왕상9:28)

창10:25 벨렉의 때에 땅이 나뉨: 실질적인 땅의 분리 혹은 민족들의 분리

창10:32 민족들이 나뉨



<베게너의 대륙이동설의 '판게아' 땅>



사40:22의 원

성경 바로 보기 제3과

4. 약속 경륜(Dispensation of Promise): BC 2000-1500년

바벨탑 사건으로 국가와 민족들 탄생(창10:1)

야벳의 아들들(창10:2-5), 함의 아들들(6-20), 셈의 아들들(2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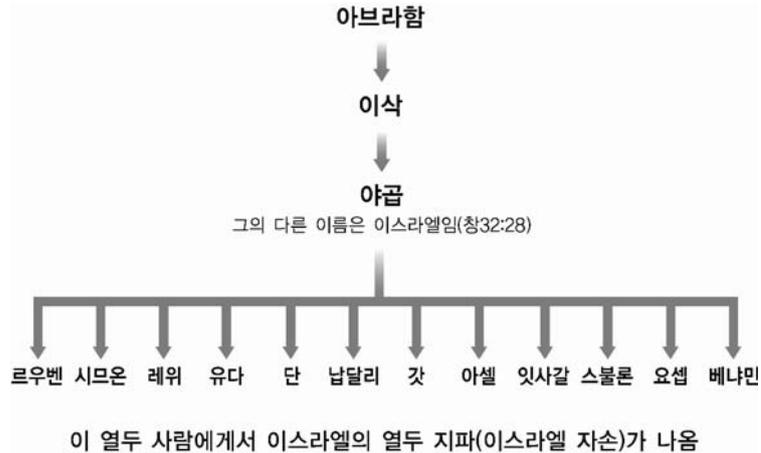
하나님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함(창12:1-3; 17:5)

한 사람 ----- 아브라함

한 가족 ----- 아브라함의 가족

한 민족 ----- 아브라함에게서 나올 민족(이스라엘)

아브라함의 가계



I. 경륜이 시작될 때 사람의 상태

A. 아브라함을 부르심(창12:1): 이것은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니었다(히11:8).

B. 데라(수24:2, 14). 우상숭배자: 지금도 하나님은 거짓 종교에서 사람들을 불러내신다(살전1:9).

C. 창12:2-3의 놀라운 약속

1. 이 같은 약속은 땅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적이 없었다.
2.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족에게 주어진 약속은 매우 특별한 것이었다(갈3:16과 비교).
3. 창12:2-3에서 하나님은 “내가 하리라.”(I will)고 5차례 말씀하신다.

D. 하나님의 약속(아브라함 언약, Abrahamic covenant)

1. 내가 너로부터(아브라함으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리라(창12:2): 이스라엘 민족
2. 내가 네게 복을 주리라(창12:2):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미친다.
3.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창12:3; 참조 신30:7; 미5:7-9; 슥14:1-3; 겔26:2-3).
4. 네 안에서(아브라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창12:3): 이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에게서 어느 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마1:1)가 나올 것이고 그분이 이스라엘뿐 아니라 전 세계의 구원자가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요일4:14).

E. 이 두 구절(창12:2-3)에서 하나님은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네 가지를 약속하셨다.

1. 민족(2절), 2. 복(2절), 3. 보호(3절), 4. 구원(3절)

F.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었고 그대로 행했다(창12:4; 히11:8).

G.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또 하나의 약속이 창13:14-17에 나온다.

1.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과 그의 후손에 대해 약속하셨다(창15:18에 이 약속 반복).

H.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창17:5-8에도 나온다.

1. 하나님은 자신이 아브라함과 그의 씨(자손)와 매우 특별한 관계를 맺을 것을 약속하셨다.

- I. 하나님은 동일한 약속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주셨다(창26:1-5).
- J. 또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도 주셨다(창28:10-15).
- K.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매우 특별한 약속을 받았다.
- L.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으므로(딤후1:2; 히6:18), 사람이 아니므로(민23:19), 약속하신 것을 이행할 능력이 있으므로(롬4:21), 신실하시므로(히11:11) 항상 자신의 약속을 지키신다.

성경 바로 보기 제3과

4. 약속 경륜(Dispensation of Promise)_계속

II. 사람의 책임

A.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면 사람은 그것을 믿어야 할 책임이 있다(히11:13).

1. 아브라함의 믿음(창15:5-6)

- 15장 6절의 상황: 14장에서 왕들을 물리침, 그런데 그들이 다시 쳐들어올까봐 걱정이 됨(1절)
- 아브라함은 이미 씨에 대한 약속을 받았지만 그것이 성취되지 않았다(창13:15-16).
- 하나님이 별들을 보여 주시며 네 씨가 이와 같으리라고 약속할 때에 그 말을 믿음(아멘).
- 창세기 15장 6절과 관련된 신약성경 말씀: 롬4:3, 9-12; 갈3:6

2. 하나님의 약속 이행(창22:17의 약속 참조).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 그 수는 모두 70명에 불과함(출1:5). 그런데 하나님은 이 민족을 창대한 민족으로 만드셨다.

- 출1:7-12, 20; 5:5; 행7:17
- 오늘날 세상에 있는 유대인 즉 아브라함의 자손은 수천만 명에 이른다!
- 천년 왕국 이후에도 유대인들과 이 땅의 믿는 민족들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며 번성함(계22:2)

3. 이 같은 놀라운 약속을 받은 자들은 아브라함이 행한 대로 믿음으로 행해야 했다(롬4:20-21).

4. 또한 복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필요했다(창26:2-4).

- 약속의 땅 가나안 즉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이 바로 복의 땅이다.
- 약속의 땅에서 벗어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대개 곤경에 빠졌다(이집트나 바빌론).

III. 사람의 실패

A. 아브라함의 실패

-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다(창15:6).
-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도 믿음의 시련이 있었다. 파라오와 아비멜렉과 사라
- 예를 들어 창16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내 사래를 통해 아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대신 사래의 종 하갈을 통해 아들을 얻었다. 물론 뒤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롬4:20-21).

B. 이삭의 실패: 그랄에서 아비멜렉과 리브가(창26)

-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야곱(동생)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아이가 될 것이라 약속하셨다(창25:21-23).
- 그러나 이삭은 맏아들인 에서를 사랑했다(창25:28).
- 이삭은 속아 부지중에 야곱을 축복했고 마지막에 “야곱이 복을 받으리라.”고 말했다(창27-28).

C. 야곱의 실패

- 거듭 거듭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리라 약속하셨다(벧엘 창28:13-15; 압복강 32:24-29; 세겔에서 벧엘로 떠나며 35:9-12).
- 그러나 야곱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에 의심이 갈 정도로 어려운 시기가 있었다(창42:36).
- 모든 일이 야곱을 대적하여 일어난 것이 아니라 야곱의 복과 선을 위해 함께 협력한 것이다(롬8:28).

D. 야곱의 아들들의 실패

- 창세기 37장에 보면 열 명의 형들이 요셉에게 무서운 일을 행한다.
- 처음에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는 요셉을 죽이려 했고 요셉은 결국 이집트에 노예로 팔린다(창37:28).
- 그들은 야곱을 속여 자기들이 한 일을 은폐하였다(창37:31-34).

4. 결국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됨(창50:15-21).

E. 이스라엘 자손의 불신: 이집트로 내려간 뒤 하나님의 은혜로 속박을 벗어나서도 그들은 줄기차게 하나님을 불신하였다.

1. 이집트 탈출 뒤 파라오가 추격하자 곧바로 이집트로 가겠다고 불평함(출14:10-14)

2. 마라에서 마실 물이 없자 즉시 불평함(출15:23-26)

3. 떡을 빵이 없다고 불평함(출16:1-8), 4. 호렙에서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시험함(출17:1-7)

IV. 하나님의 심판: 이집트 노예 생활

A. 요셉의 형들은 자기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노예생활을 하리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다.

1. 그보다 훨씬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이 이집트의 노예가 될 것을 말씀하셨다(창 15:12-14).

2. 창46:3-4, 27에는 야곱의 가족이 이집트로 내려가 거주하게 된 이야기가 나온다. 7년간의 극심한 기근이 있었고 이들은 이대에 이집트로 내려가 그 땅의 노예가 되었다.

3. 출애굽기 1장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그 땅의 노예가 되었는지 기록되어 있다.

a. 이집트 왕 파라오의 국고 저장 도시 건축

b. 고난과 고통의 날이 계속되면서 이스라엘 자손은 노예 생활로 인해 부르짖었고 주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출2:23-25; 행7:34).

B. 노예 생활 중간에도 하나님은 이 민족에게 몇 가지 놀라운 약속을 주셨다(출6:6-8). 여기서도 “내가 하리라.”는 표현이 자그마치 일곱 번이나 나온다.

C. 하나님은 결코 약속을 어긴 적도 취소한 적도 없다.

1. 한때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라고 고용된 사람이 있었다(민23:7-18).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었는데 그 이유는 민23:19와 같다.

2. 그렇다! 하나님은 일단 약속하면 그 약속을 취소하지 않는다.

V.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

A. 약속과 믿음

1.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약속들을 주셨다.

2. 그러나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이것들이 다 소용이 없다.

3. 히4:1-2를 보면 약속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어졌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다.

4. 이처럼 우리도 믿음과 그 약속들을 섞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 소용이 없다(히4:2).

B.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

1. 영생의 약속(요일2:25; 요5:24)

2. 구원의 약속(행16:30-31; 롬10:9, 13)

3. 죄들의 용서에 대한 약속(행10:43; 행3:19)

4.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보장과 안전의 약속(요10:28-30; 롬8:1, 38-39)

5. 하나님의 돌보심의 약속(벧전5:7)

6. 하나님의 계속적인 임재의 약속(히13:5; 마28:20)

7.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리라는 약속(빌4:19; 시23:1)

8. 강건함의 약속(빌4:13; 고후12:9-10; 사4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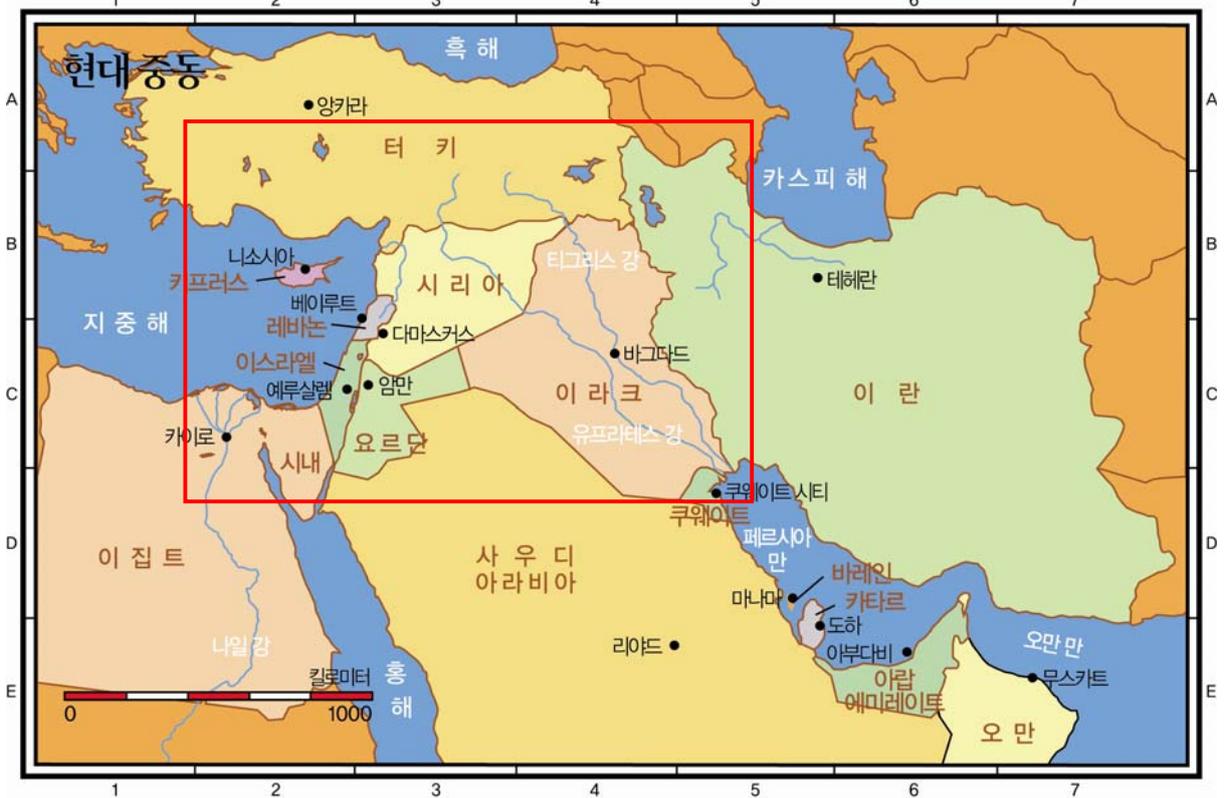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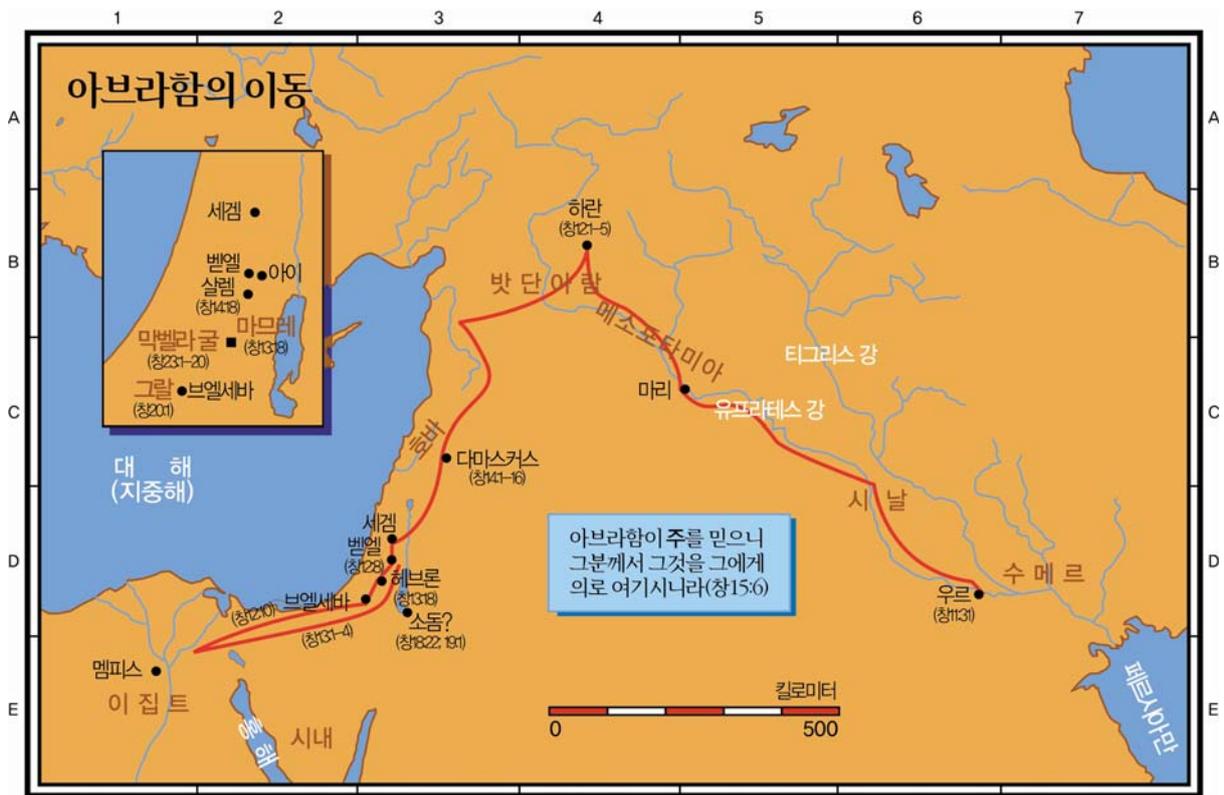
9. 도움의 약속(히13:6; 사41:10, 13)

10. 용서와 죄 씻음의 약속(요일1:9), 11. 성경 보존의 약속

C.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하고 안전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믿는 것이다.

1. 이것 외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다른 방법이 없다(히11:6).

2.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친히 행하리라고 단순히 믿는 것이다!



II. 출생부터 사망까지 네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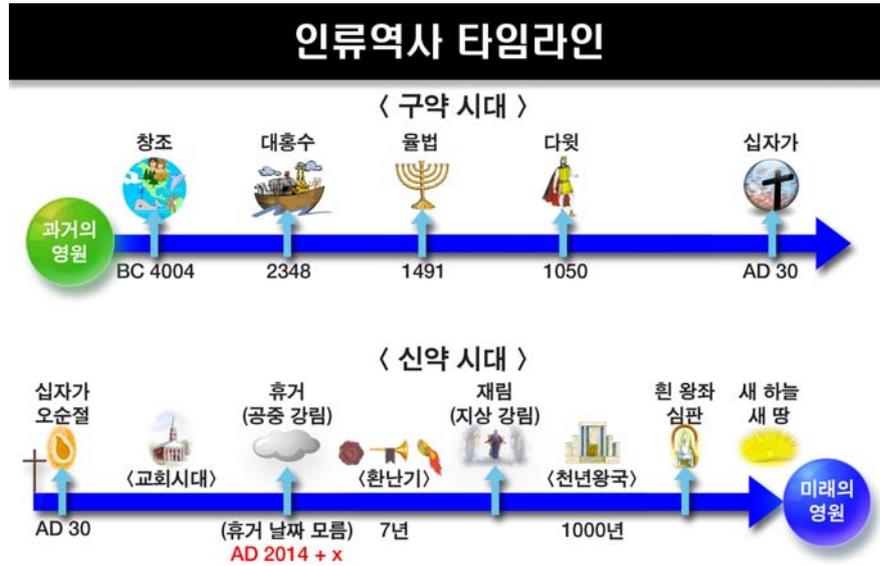
A. 첫째 기간: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고 가나안에 갔다가 이집트로 갔다가 다시 가나안에 가는 기간

1. 우르에서 하란까지 감(창11:27-31; 행7:2-3)
2. 하란에서 떠남: 75세(창12:4), 아버지 집과 분리하고 고향을 등지고 떠나야 함, 자기 형제 나홀을 두고 롯을 데리고 감(요세푸스에 따르면 상속자로 데리고 감). 아브라함 언약(12:1-4)
3. 가나안에 도착함: 모레의 평야, 에발 산과 그리심 산 사이, 제단을 쌓음(창12:6-7).
4. 이집트 생활: 기근으로 이집트로 감. 사라와 파라오 사건(창12:10-20)

5. 가나안으로 되돌아옴: 다시 자기 장막이 있던 곳에 이르러 주의 이름을 부름(창13:3-4).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갈라짐. 롯은 소돔(남동쪽)으로, 아브라함은 헤브론의 마므레의 평야로 감(마므레는 사람 이름)
6. 롯의 구출: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롯을 구해 옴
7. 멜기세덱을 만남: 창14:17-20
 - a. 살렘(예루살렘)의 왕,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제사장(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바침).
 - b. 시110편 설명: 메시아 시편(마22:43-44)
 - c. 시110:4: 메시아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다(히5:6, 10; 6:20; 7:11, 17, 21).
 - d. 히5:1-11 설명
 - e. 히6:20-7장 설명, 구약의 제사장들과 신약의 유일한 제사장 비교
 - f. 그리스도와 멜기세덱은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지닌 제사장이다(히7:1-22).
 - (1) 비 레위 지파
 - (2) 제사장 겸 왕
 - (3) 아브라함보다 우월하다(요8:56-58).
 - (4) 시작과 끝을 알지 못한다.
- B. 둘째 기간: 씨에 대한 약속과 언약의 재확인 기간
 1. 언약에 대한 꿈(15장): 씨에 대한 약속, 아브라함의 믿음(창15:6), 하나님의 언약 확인, 아브라함의 씨가 가나안을 떠났다가 400년 만에 다시 돌아옴.
 2. 이스마엘 출생: 가나안에 거한 지 10년이 지나도 아이를 얻지 못함. 풍습에 따라 하녀를 얻어 아들을 얻음, 86세(창16:16)
- C. 셋째 기간: 언약의 확인, 이름 변화, 할례, 천사들의 방문 등이 일어남(창17-21장)
 1. 이름의 변화: 아브람이 99세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심(창17:1-8)
 2. 할례의 표: 언약의 표로 할례를 받음(창17:9-27).
 3. 천사들의 방문: 세 천사(창18장), 아브라함의 씨 재확인, 소돔에 대한 아브라함의 청원
 4. 소돔의 멸망: 창19장
 5. 사라를 아비멜렉에게 빼앗김: 창20장
 6. 이삭을 낳음: 창21장, 100세에
- D. 넷째 기간: 믿음의 시험, 마지막 날들(창22:1-25:11)
 1. 아브라함의 믿음의 최대 시험: 이삭을 바쳐야 함(요세푸스에 따르면 그는 20세 정도가 되었음).
 2. 사라의 죽음: 127세에(창23:1), 막벨라 굴을 소유 매장지로 삼
 3. 이삭의 결혼: 창24장, 리브가, 아브라함의 종
 4. 아브라함의 죽음: 175세, 막벨라 굴(창25), 다른 아내 그두라(창25:1)에게서 미디안(2절), 아말렉은 에서의 아들(창36:12)
- E. 아브라함의 생애의 네 번의 위기:
 1. 고향과 친족을 버리는 일(창12:1)
 2. 조카와 갈라서는 일(창13)
 3. 이삭으로 인해 이스마엘을 버리는 일
 4. 이삭을 희생물로 바치는 일(창22:1-19; 히11:17-18)
- F. 이 모든 것을 거치는 것이 인생 특히 믿음의 인생이다(히11:8-16).

성경 바로 보기 제3과

5. 율법 경륜(Dispensation of Law)



0. 개관

- A. 율법 경륜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 율법을 하나님께 받은 때부터(출19-20) 시작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고 오순절에 교회가 출생할 때 끝이 난다(마27장, 행2장).
1. 율법 경륜은 대략 1,500년의 기간 동안 이어져 왔다.
 2. 구약성경의 거의 모든 책이 이 기간에 기록되었다(욥기 등 제외).
 3. 말라기 이후의 400년의 침묵기
- B. 이 기간에 이스라엘 자손은 한 민족으로 성장하여 여러 시대를 경험하게 된다.
- C. 율법 밑에서 이스라엘의 역사
- 광야 생활(모세)
 - 가나안 정복(여호수아)
 - 사사들(재판관들, Judges)
 - 왕들(Kings)
 - 포로(아시리아와 바빌론)
 - 고토의 회복(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 사복음서(마태, 마가, 누가, 요한)
- D. 율법 경륜에는 모세, 여호수아, 삼손, 사무엘, 사울, 다윗, 솔로몬,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다니엘, 에스겔, 에스라, 느헤미야, 침례자 요한과 같은 주요 인물이 살았다(드보라, 에스더와 롯).
1.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인물이 율법 경륜 하에 살았다.
 2. 심지어 예수님도 율법 밑에서 태어나 율법을 완성하시고 십자가를 통해 신약시대를 여셨다(갈4:4; 롬10:4; 15:8). 진정한 의미의 신약시대는 십자가 이후부터이다(마26:26-29; 히9:15-17).

성경 바로 보기 제34과

5. 율법 경륜(Dispensation of Law)_연속

I. 경륜이 시작될 때 사람의 상태

- A.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속박의 집, 쇠 용광로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시는 놀라운 일을 하셨다(출 20:2).
1.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 땅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있었다(창15:13).
 2. 모세를 만남(출3), I AM THAT I AM(출3:14-15; 요8:58의 I am, 히13:8)
 - a. 그분은 존재하시기 때문에 존재하신다. 사람은 부모가 존재하므로 존재한다.
 - b. 그분은 어느 누구 혹은 어느 것에도 의존하지 않으신다. 생각(롬11:33-34), 뜻(롬9:19; 엡1:5), 권능(시115:3), 계획(시33:10-11).
 - c. 아무도 이 신비를 찾을 수 없다.
 - d. 사람은 I am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 I am a boy. I am good... 오직 하나님만 I AM이라고 하실 수 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그분에게서 나왔기 때문이다. 우리는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변한다(1분 전과 1분 후가 다르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변하신다(창21:33).
 - e. 출3:14 후반부의 'I AM'은 주어이다. "And God said unto Moses, I AM THAT I AM: and he said, Thus shalt thou say unto the children of Israel, I AM hath sent me unto you." (1) 하나님이 존재한다(히11:6). (2) 하나님은 절대적인 인격체다. (3) 하나님은 개인들과 상관하신다(me). (4) 하나님은 사람을 자신의 메신저로 삼아 사람들에게 보내신다.
 - f. 요한복음의 I am: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부활이다. 목자다. 문이다(요8:58).
 - g.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분'(계1:8)
 3. 열 가지 재앙: 그들의 신들 심판(출12:12; 20:3)
 4. 유월절 사건(출12), 어린양(2-7, 11, 21-23)
 5. 하나님은 엄청난 기적을 통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고 속박의 땅에서 건져내셨다(출14:21-22).
 6. 이스라엘 자손은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권능과 위대하심을 목격하였다(출14:30-31).
 7. 이 놀라운 일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이 이스라엘을 돌보고 계심을 유감없이 보여 주셨다. 홍해의 기적으로 이 사실을 입증하였다!
- B. 이스라엘 지손에게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을 믿어야 할 책임이 있다.
1. 출3:8, 17에는 모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나온다.
 2.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시겠다고 약속하셨다.
 3.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리라고 약속하셨다.
- C. 이스라엘이 반드시 기억했어야 할 두 가지 사실
1. 하나님이 자기들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고 약속하신 것(출3:8, 17)
 2. 과거에 하나님이 자신들을 보호할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신 것(출14장 - 홍해를 건넌 사건)
- D. 그런데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놀라운 권능을 목격한 이스라엘은 줄곧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
1. 출15:22-26(홍해를 건넌 뒤 셋째 날) - 물이 쓰다(마라의 물)!
 2. 출16:1-5(홍해를 건넌 지 한 달 후) - 먹을 것이 없다!(신8:1-5)
 3. 출17:1-7 - 물이 없다(맛사와 트리바)!
 4. 이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 가운데 계시면서 모든 필요를 채우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성경 바로 보기 제35과

5. 율법 경륜(Dispensation of Law)_연속

E. 시내 산의 이스라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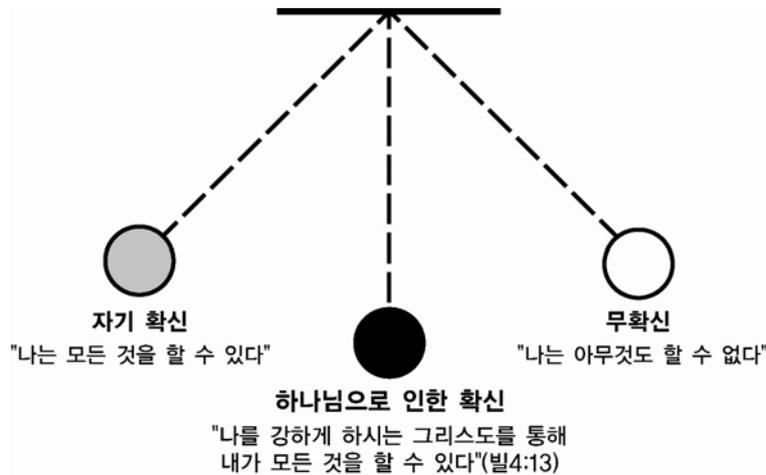
1. 이집트 탈출 후 셋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은 시내 산의 언저리에 도착했다(출19:1-2).
 - a. 오순절에 율법을 받음
 - b. 레23: 1월 14일(유월절), 17일(초실절), 이로부터 50일 지나서 오순절(레23:15-16): 지금의 6월 초순
 - c. 오순절에 구약시대에는 율법을 주시고 신약시대에는 성령님을 주심(출32:28; 행2:1, 41)
2. 시내 산 도착 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무언가를 상기시키는 말씀을 주셨다(출19:4). “...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 a.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하신 일을 보았다(출14:30-31).
 - b. 하나님께서 어떻게 쓴 물을 단물로 바꾸셨는지 보았다(출15:25).
 - c. 하나님이 사막 한 가운데서 어떻게 먹을 것을 주셨는지 보았다(출16:11-15).
 - d.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신 것을 보았다(출17:6).
 - e. 그들은 불평과 불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긍휼을 보았다.
 - f. 그들은 하나님의 권능과 위대하심을 거듭 거듭 목격하였다.
4.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려 하신다: ‘모세 언약’(Mosaic covenant).
 - a. 언약의 조건(출19:5-6): 순종
 - b. 이스라엘의 순종 이행 약속(출19:8)

F. 자기 확신의 위험

1. 백성은 한 목소리로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우리가 행하겠습니다.”라고 말함(출19:8).
2. 후에 모세에게서 율법을 받았을 때도 같은 말을 함(출24:3).
3.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께 순종할 만한 힘이 없음을 깨닫지 못했다.
4. 신명기 5장 27-29절에서도 그들의 자기 확신은 매우 컸다.
 - a. 이스라엘 자손의 문제는 ‘마음’에 있었다(29절).
 - b. 실제로 그들의 말과 마음은 너무나 달랐다(28절).
5. 이스라엘 자손은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 깨달았어야 했다(렘17:9-10).
6. 율법을 주시기 전 하나님의 시험(출16).
 - a. 첫째 규칙은 ‘다음날 아침까지 만나를 남겨 두지 말라’는 것(출16:19), 불순종 20절
 - b. 둘째 규칙은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지 말라는 것(출16:22-26). 그들의 불순종(출16:27)
7. 그러므로 출19:8과 24:3, 7에서 그들은 달리 대답해야만 했다.
 - a. “주님, 저희는 주의 명령을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은 사악하고 반역하며 죄로 가득합니다. 우리 자신은 순종할 힘이 없습니다. 저희는 만나를 모을 때 주셨던 두 가지 규칙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도우사 힘을 주시지 않으면 저희는 실패하고 맙니다. 주님, 우리는 할 수 없으니 도와주십시오!”
8. 자기 확신도 문제지만 확신이 전혀 없는 것도 문제이다.

9. 두 극단을 피해야 한다.

- a. 그리스도의 도움과 조력 없이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다(요15:5).
- b. 막14:29-31, 66-72의 베드로의 확신 역시 하나님의 확신이 아니고 베드로의 확신이었음



G.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1.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율법이라는 독특한 것을 주셨다.
2. 그것은 땅에 있는 어느 민족도 받아 본 적이 없는 것이었다(신4:5-8; 7:6-11).
3. 유대인들은 총 613가지로 율법 조항을 분류하였다.
 - a. 두 가지 형태, 즉 “~하지 말라”는 부정 명령(365개)과 “~하라”는 긍정 명령(248개)
 - b. 365는 일 년의 날 수, 248은 사람의 뼈마디 개수
 - c. 여기에는 삶에 관련된 모든 사항이 담겨 있다.
 - d. 그중 가장 중요하고 잘 알려진 것이 십계명이다(출20장, 신5장).
 - e. 그 외의 명령들은 출21-23 등을 보기 바람
4.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명령을 주신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
 - a. 하나님은 이미 첫 사람 아담에게 명령을 주셨다(창2:17): 선악과
 - b. 노아나 홍수 후 그의 자손들도 명령을 받았다(창9:1-7): 다산/번성, 사형
 - c.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명령을 주셨다(창17:9-12): 할례
 - d. 시내 산에서 율법을 받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법이나 명령이 있었다(출15:26; 출16:28).
5. 그러나 시내 산에서 주어진 율법은 하나님께서 ‘내 언약’이라 부르셨던 특별한 의미의 법이었다(출19:5). 여기에는 십계명을 포함하여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한 지침과 규정과 법이 담겨 있었다.
 - a. 도덕법: 출20:1-17(십계명),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것(4개, 6개)
 - b. 시민법: 출21:1-24:18, 중, 폭행, 악한 짐승, 재물(도둑질), 재판의 공의, 안식 등
 - c. 의식법: 출25:1-40:38, 성막과 그 안의 모든 기구들, 레위기의 헌물과 절기들
 - d. 도덕법의 기본 정신은 신약에도 동일함
 - e. 시민법과 도덕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표를 다 성취하심(마5:17). 그래서 그분은 율법의 끝마침이 되셨다(롬10:4; 갈2:19)
 - f. 그래서 믿는 모든 사람들은 더 이상 율법주의의 속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 g. 그러나 이 말은 결코 십계명의 정신 혹은 원리가 폐기되었음을 뜻하지 않는다. 무법주의 No!

성경 바로 보기 제36과

5. 율법 경륜(Dispensation of Law)_연속

6.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건져내신 민족 즉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졌음을 알아야 한다(출19:3; 20:2).
- 이집트 사람, 가나안 사람, 그 외 세상의 어떤 민족도 하나님의 율법을 받지 못했다.
 - 하나님은 이 언약을 모세와 이스라엘과만 맺었다(출34:27).
 - 수많은 법과 명령을 포함한 이 특별한 꾸러미는 특별한 민족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졌다.
 - 그 외의 다른 민족은 어떤 율법도 받지 못했다(신4:8).
 - 특히 안식일 규정(출31:13), 음식 규정(레11장), 희년(fp25:10 이하) 등은 다른 이들에게 법으로 부과된 적이 없다.

II. 사람의 책임

- A. 하나님은 거룩한 율법을 이스라엘의 손에 맡기셨고 이제 그들에게 엄청난 책임이 부과되었다.
- 출19:5-6
- B. 이스라엘 자손의 책임(신6:1-2)
- C. 모세 언약의 조건에 따르면 순종에는 복이 불순종에는 저주가 따라온다(신28). 신30:15-20 이 복은 땅의 백성에게 약속된 땅의 복이다.



- D.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행복하게 살도록 이 명령들을 주셨다(신6:24).
- 이스라엘은 율법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지켜야만 한다(신6:2; 28:1, 15), 신27:26 중요
 - 백성의 반응: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행하리이다”(출19:8; 24:3, 7).
 -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전적인 순종을 기대하신다(마28:20).
- E. 실패했을 때의 행동 지침
- 하나님은 그 누구도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음을 아셨다.
 - 최고의 인간도 실패하고 불순종과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셨다.
 - 그래서 죄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명령들이 있다.
 - 구약시대에는 모세의 법에 따라 사람들은 죄를 지었을 때 짐승을 희생물로 바쳐야 했다(레1-5장). 죄 헌물, 범법 헌물, 화평 헌물 등

5.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이다. 신자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를 고백해야 한다(요일1:9).

III. 사람의 실패: 이스라엘 민족은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렘31:31-32).

A 이스라엘의 역사는 기나긴 반역과 불순종의 기록으로 점철되어 있다.

1. 이스라엘은 신속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 모세가 시내 산을 내려오기도 전에 이미 십계명을 어겼다(출32:1-6, 8)

2. 모세의 유언(신명기): 신4:7-9, 32-36, 신7:6-7, 33:29

3. 여호수아의 유언(수28:14-22, 사2:6-7)

4. 사사(재판관)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았다.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다(삿21:25).

5. 왕정 시대의 대부분을 이스라엘은 다른 신들과 우상들을 섬기며 보냈다. 심지어 솔로몬도 이방 여신들을 섬김(왕상11:1-8)

6. 왕하17:7-19에도 이런 이스라엘의 실패가 나온다(특히 15, 19절).

B.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은 가장 큰 범 죄를 저질렀다.

1. 그들은 자기들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다(행2:22-23; 살전2:15). 더욱 슬픈 것은 이 일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의 소행이라는 점이다.

2. 물론 모든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데 실패했음을 의미하진 않는다.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은 유대인들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들이 율법과 명령들을 지키는 데 필요한 힘과 도움을 주셨다. 침례자 요한의 부모(눅1:5-6),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

성경 바로 보기 제3과

5. 율법 경륜(Dispensation of Law)_연속

IV.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면 저주가 따른다(신28:15). 이스라엘 민족에게 정확히 이 일이 일어났다.

신명기 28장 16-26절에 나오는 저주가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임하였다(49-68절, 52-54, 64절). 이스라엘 민족에게 임한 큰 심판 중 세 가지는 다음과 같다.

A. 아시리아 포로: 주전 721년 호세아 왕

- 북 왕국 이스라엘의 10지파가 강력한 아시리아 군대에 의해 포로로 잡혀감

- 왕하17:3-6 참조

- 심판의 이유: 왕하17:7-18

- 북 왕국은 아예 피가 섞여서 혼혈 민족이 되고 났(왕하17:24-25, 29, 32-34, 41, 요4장의 사마리아 여인)

B. 바빌론 포로: 1차 주전 606년(다니엘 등), 2차 주전 597년, 3차 주전 586년(성전이 무너짐)

- 남 왕국 유다가 강력한 바빌론 군대에 의해 포로로 끌려감, 시드기야 왕

- 왕하25:1-11 참조

- 심판의 이유: 대하36:14-17, 우상숭배

- 바빌론 포로 생활 이후에 우상을 숭배하지는 않았지만 파당을 만들어 이익을 추구하였다(바리새파, 사두개파, 헤롯당원, 옛세네파 등).

C. 로마군의 예루살렘 파괴: 주후 70년

- 예루살렘과 성전이 로마군에 의해 파괴되고 유대인은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짐

- 마23:37-38; 24:1-2 참조

- 심판의 이유: 마23:37; 27:23-25; 요1:11

V.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모세의 율법(시민법과 의식법)을 지킬 의무는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들(도덕법과 신약시대의 명령들)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명령들을 지켜야 한다.

A. 믿는 이가 자신이 진정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 것이다(요14:15, 21, 23).

B. 사람이 하나님의 친구가 되려면 그분의 명령들을 지켜야 한다(요15:14).

C.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시라면 우리는 그분의 명령을 행해야 한다(눅6:46).

1. 순종의 1순위가 되는 하나님의 첫째 명령은 우리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요일3:23; 행16:31).

2.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롬13:8-10).

D. 에베소서 4-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22절에 나와 있는 명령들도 지켜야 한다.

1.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할 수 있다(빌2:13; 4:13; 엡3:20-21).

성경 바로 보기 제3과

5. 율법 경륜(Dispensation of Law)_연속

VI. 율법의 역할과 목적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 율법은 사람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가? 율법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가? 율법을 지키므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한 가지를 제외하고 모든 율법을 지킨 경우 이것은 율법을 준수한 것인가, 아닌가? 율법을 어긴 대가는 무엇인가? 율법은 정말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율법과 명령들을 완전히 지키고 순종한 사람이 있는가?

A. 율법은 모든 사람을 정죄한다(고후3:6-7).

1.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왔는가? 유죄인가? 무죄인가?
2. 하나님의 가장 큰 명령: 마22:35-40(신6:5 참조), 우리는 이것을 실천하는가?
3.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을 우리는 지키는가?
 - a. 첫째 명령(출20:3) - 나는 주님을 첫 자리에 모시고 나는 항상 주님을 우선하였다.
 - b. 셋째 명령(출20:7) - 나는 결코 주님의 이름을 헛되이 일컫지 않았다. 이름의 의미
 - c. 다섯째 명령(출20:12) - 나는 항상 내 부모를 공경하고 가장 높이 모셨다.
 - d. 여덟째 명령(출20:15)- 나는 결코 남의 물건을 훔친 적이 없다.
 - e. 아홉째 명령(출20:16) - 나는 누구에게도 거짓 증언한 적이 없다.
4. 율법에서 몇 개는 지키고 몇 개는 지키지 못한 경우는 어떤가? 야고보서 2장 10-11절



5. 로프에 몸을 내맡긴 채 절벽에 매달려 있는 사람, 로프가 다섯 군데 끊어지든 한 군데 끊어지든 그 사람은 추락한다. 율법은 이 로프와 비슷하다.
6.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킨 사람이 있는가? 예수님의 말씀(요7:19)
7.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유일한 분이시다(요7:18; 8:46)

B. 율법은 나쁜 것인가?

1. 하나님의 율법으로 진단해 보면 우리는 모두 율법을 어긴 죄인이다. 그러면 율법이 나쁜 것인가? 아니다! 문제는 율법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다! 율법도 거룩하고 명령도 거룩하며 의롭고 선하다(롬 7:12). 율법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다!
2. 율법은 하나님 자신을 반영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시며 선하신 분이시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율법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율법은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를 보여 준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데 있다.
3. 찌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들여다본다고 하자. 거울은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 준다. 그러나 고칠 능력이 없다. 이것은 양심 경륜에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양심과 비슷하다. 문제는 내게 있다(롬 7:14).

C. 율법을 어긴 대가는 죽음이다.

1. 상점에서 물건을 훔치다가 잡히면 처벌을 받는다. 과속으로 걸리면 처벌을 받는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 이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

2. 십계명이 주어진 이후에 나오는 출애굽기 21장 12, 15-17절에는 율법을 어긴 자들이 죽음의 형벌을 받는 것이 기록되어 있다. 실제로 3,000명이 죽었다(출34:28).
3. 로마서 1장 28-31절에는 죄의 목록이 열거되어 있다. 이 세 절에 걸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런데 연이어 32절은 이 같은 죄에는 분명히 형벌이 있음을 말한다.
4. 로마서 6장 23절도 “죄의 삯은 사망이다.”라고 기록한다. 율법을 어기면 그 형벌로 죽게 되고 이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의미한다.
5. 갈라디아서 3장 10절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율법 파괴자에 대해 잘 말한다. 이 말씀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게 된다고 말한다.
6.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완전하게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갈3:11).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롬3:23).

D. 기쁜 소식이 있다.

1. 예수님은 율법의 저주에서 죄인들을 구해내시려고(갈3:13), 이 세상에 들어오셨다(딤후1:15).
2.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의해 무료로 주어진다(롬6:23).

E.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1. 젊은 부자 관원(마19:16-22),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거든 명령들을 지켜라.”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하지 않는가?”
2. 영생을 얻는 데는 두 길이 있다.
 - a. 하나님의 명령들을 모두 지킴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하나님의 율법을 하루 24시간 평생토록 완전하게 지킴으로).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 b.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구원자로 받아들임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해결책이다.
 - c. 다시 말해 하늘로 갈 수 있는 두 길이 있다. 하나는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지킴으로 완전한 삶을 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를 의지하는 것이다.
 - d. 이 부자 관원은 자기가 율법을 다 지키므로 선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그는 사실 자기 소유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였으므로 마22:36-38에 따르면 가장 큰 명령을 범한 자다.
3. 어떤 율법사(눅10:25-29) 이야기,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상속받으리이까?”, 예수님의 대답과 제안 “네 대답이 옳도다. 이것을 행하면 네가 살리라.”
4. 어떤 사람이 영생을 얻고 싶다면 반드시 이 두 가지를 행해야 한다.
 - a.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하라.
 - b. 이웃을 완전히 사랑하라.
5. 그런데 아무도 이 일을 할 수 없다. 만일 우리가 율법을 완벽히 지킬 수 있다면 구원자는 필요하지 않으며 그리스도의 죽음은 소용없게 된다(갈2:21).

F. 율법의 목적(롬3:20), 이 말씀은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준다.

1. 율법의 목적은 사람을 구원(의롭게)하는 것이 아니다.
2. 율법의 목적은 사람에게 그의 죄를 보여 주는 것이다(죄에 대해 알게 하는 것, 롬7:7-14 참조).
3. 율법이라는 거울은 죄를 씻지 못한다. 오직 하나님의 어린양이신 예수님만 그렇게 하실 수 있다(요 1:29). 거울이 우리를 세면대로 인도하듯 율법도 우리를 어린양에게로 인도한다(갈3:24).
4. 율법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으나 사람에게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게 할 수는 있다. 율법은 죄를 씻을 수 없지만 죄를 지적할 수는 있다.

G. 사랑의 법: 마22:36-40절, 모든 율법은 두 가지 간단한 명령으로 요약될 수 있다.

1.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롬13:8-10 참조).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롬13:10).
2.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다른 신을 섬기겠는가(출20:3)? 우상을 만들어 경배하겠는가(출

20:4-5)? 정말 자기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를 죽이겠는가(출20:13)? 이웃의 것을 훔치겠는가?

3. 그래서 율법의 모든 것은 '사랑'이라는 한 마디로 요약되고 성취된다(갈5:14).

4. 율법을 지키는 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5. 그런데 사실 말하기는 쉬워도 행하기는 어렵다. 아니 불가능하다!

6.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갈2:20).

7. 그 결과 갈라디아서 5장 22-23절의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나는 사랑을 만들 수 없으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H. 율법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1. 율법을 지킴으로. No! 불가능

2. 믿음으로, 은혜로(롬4:6-8),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회심 전의 바울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였다(롬10:1-13).

성경 바로 보기 제3과

5. 율법 경륜(Dispensation of Law)_연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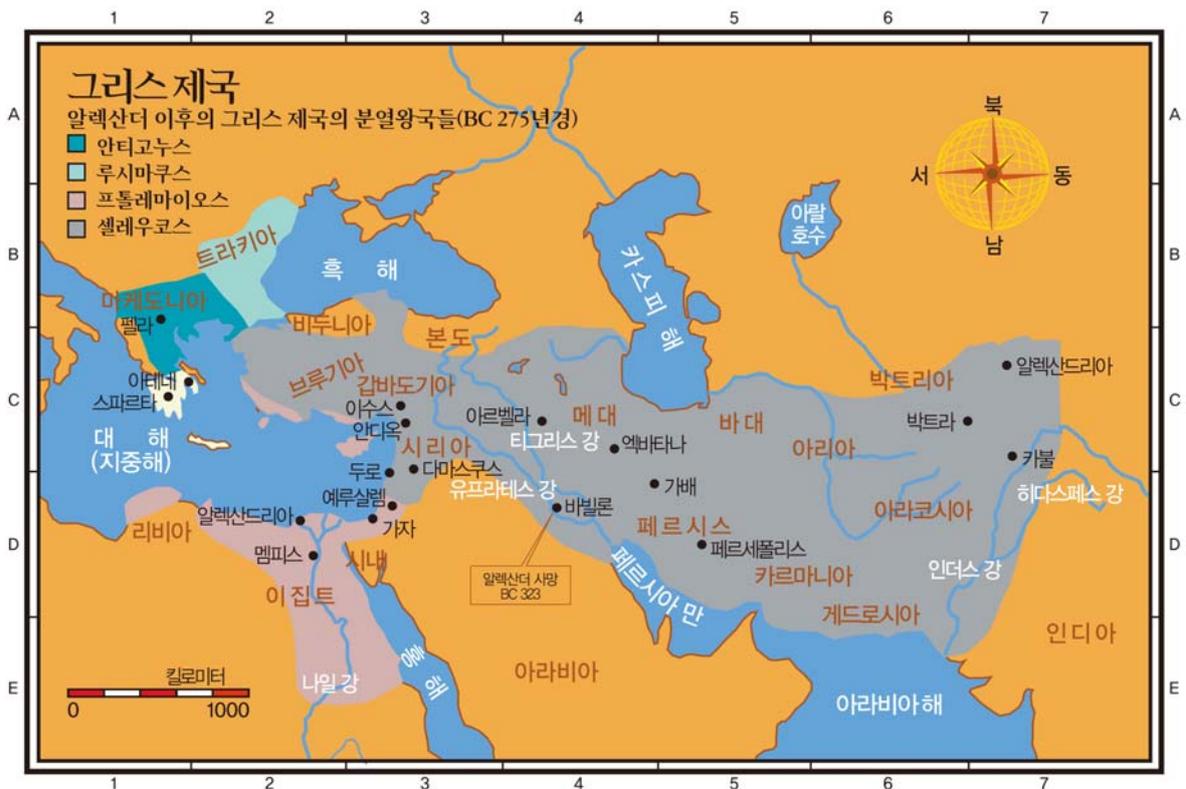
VII. '이방인들의 때' BC 606년부터(눅21:24)

A. 다니엘서의 느부갓네살이 꾸는 꿈과 다니엘이 본 네 가지 '환상', 꿈과 해석을 다 보이라.

1. 느부갓네살 왕은 즉위 제2년에 한 꿈을 꾸었다(단2:1, 31-45).
2. 거대한 형상은 세상 왕국들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그 왕국들의 통일성과 역사적 계승을 보여 준다.
3. <적그리스도와 이방인들의 때> 도표(한영 25쪽)
4. 느부갓네살 왕의 때로부터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네 왕국 즉 바빌론, 메대-페르시아, 그리스, 그리고 로마 왕국이 세상의 정부로 계승된다는 것을 보여 준다.
 - a. 바빌론: 유다의 패망과 포로 생활(BC 606, 597, 586), 70년 포로 생활, BC 536까지
 - b. (메대) 페르시아: BC 539-331 BC 539 메대 사람 다리오의 바빌론 정복, BC 536 고레스의 유대인 귀환 명령(1차 스룹바벨, 성전 재건 시작(학개, 스가라 BC 520년경))
 - c. BC 515(BC 483-473) 에스더, BC 467-457 에스라의 귀환, BC 454-445 느헤미야의 귀환(성벽 재건)
 - d. 에스라서는 10장, 1-6장은 고레스와 다리오 시대, 7-10장은 에스라 귀환 후, 6-7장 사이의 60년 동안에 페르시아에 남은 80%의 유대인들에게는 에스더/하만 사건이 일어남
 - e. BC 441- 말라기(말3:16-18), 하시딤: 바빌론에서 귀환해 온 유대인들 세계에 헬레니즘의 문화가 밀물처럼 밀려 들어와서 세속화가 가속화될 때 이를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경건과 충절을 지켜나가려는 사람들을 일컬어 하시딤(Hasidim)이라고 부름. 이 하시딤 중에서 율법 주의적, 형식주의적 하시딤으로 흘러간 사람들이 바리새인이고 신비주의적, 금욕주의적인 방향으로 흘러간 사람들이 옛세네 파라고 할 수 있다.
 - f. 그리스: BC 331-63

B. 그리스의 분할

1. 알렉산더 대왕의 죽음(BC 323) 으로 인해 솟염소의 큰 뿔인 그리스 왕국이 네 개의 소왕국들 곧 마케도니아, 트라키아, 시리아 그리고 이집트로 분열되었다. 이러한 상태는 주전 323년에서 주전 27년까지 지속되었다.



2.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제가 영토를 확장하고 죽은 뒤에 그의 왕국은 시리아의 셀류시드 왕국(시리아)과 이집트의 프톨레미 왕국(이집트)으로 나뉘었다.

C. 헬레니즘 이교주의 영향

1. 그 결과 이집트와 시리아 사이에 끼여 있던 팔레스타인 지역은 외세의 각축장이 되었고 특히 BC 170년경,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는 프톨레미 왕국에서 이스라엘을 탈취하고 헬레니즘을 강요하였다.
 - a. 그리스 문화(다신 문화)로 문화 통합하려함.
 - b. 그리스주의자 아니면 야만인 취급
 - c. 그리스 관습과 문화, 그리스 식 이름 등 미리암이 마리아로, 야곱이 제임스로...
2. 그 결과 유대교 탄압 등으로 인해 많은 유대인들이 타협하며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로 내려갔다.
 - a. 알렉산드리아의 이단들: 필로, 오리겐, 헤브라이즘+헬레니즘
 - b. 성경의 부패,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영해
 - c. 70인역이라는 가짜 성경이 여기서 생긴 것으로 추정됨

성경 바로 보기 제4과

5. 율법 경륜(Dispensation of Law)_연속

- D. 70인역의 망상: 예수님 탄생 이전에 72명의 유대 학자들이 그리스어로 번역한 구약 성경으로 알려져 있지만 상상 속에서 꾸며낸 책
1. <아리스테아스의 편지>: 히브리어 성경(구약, Old Testament)을 그리스어로 번역하여 공식적인 그리스어 역본을 만들고자 한 계획, 72명의 유대인 학자들은 이스라엘의 열 두 지파에서 각각 6명씩 선별되었을 것으로 추측됨.
 - a. 문제: 첫째 난제는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서 대표적인 학자 6명씩을 선발하기 위해 어떻게 그가 열두 지파의 위치를 알아내었을까?” 특히 북왕국의 10지파
 - b. 만일 그가 12지파를 식별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그 72명은 다음의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번역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 (1) 모든 유대인들은 성경기록을 취급하는 공식 책임자가 신17:18; 31:24-26과 말2:7에서 입증되듯이 레위 지파임을 잘 알고 있었다.
 - (2) 유대인들은 할례, 안식일 성수, 깨끗케 하는 세세한 율법 조항들과 고유의 여러 가지 법들을 고유한 전통으로 삼아 왔다. 따라서 이방인들을 위한 책을 그들이 만드는 것은 맞지 않다.
 2. 작업이 행해진 가상의 장소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이며 번역은 주전 250년경, 몇 년이 걸린 것이 아니라 며칠 안에 완성됨.
 3. <셉투아진트>(Septuagint) 혹은 ‘70인 장로들의 번역’으로 알려짐. 영어로는 LXX, L은 50, X는 10을 뜻하므로 이 숫자들을 합하면 70이라는 값이 나옴.
 4. 주전 250년 혹은 그 전후로 구약 전체를 번역한 그리스어 필사본은 현재 하나도 남아 있지 않다. 유대 역사 어디에도 그런 일을 고려했다거나 진행시켰다는 기록이 없다.
 5. 이런 전설적인 문서 <70인역>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대라는 압력을 받게 되자 학자들은 급히 주후 200년 경 오리젠이 지은 「헥사플라」(Hexapla)를 그 증거로 제시한다. 그러나 그것은 「70인역」이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때보다 거의 450년이나 지나서 기록된 것이며 신약 성경이 완성된 후 100년도 훨씬 지나서 기록된 것이다.
 6. 성경 본문 문제: 다수 사본(보편적) vs. 소수 사본(국지적), 안디옥 vs. 알렉산드리아, 로마 카톨릭 교회의 ‘소수 본문’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만들어진 ‘국지적 본문’(A local text)이었고 거기에서 유세비우스는 대음모자 콘스탄틴 황제(AD 274-337)의 요청을 수행하기 위해 50개의 성경 복사본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
 7. 그렇다면 왜 유세비우스는 안디옥 대신에 알렉산드리아를 선택했을까? 그 주된 이유는 그가 이집트 학자인 오리젠을 열렬히 추종했기 때문이었다. 오리젠이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아드만티우스 오리게네스(주후185~254년)는 성경 본문 부패의 장본인이다.
 8. 신학교의 교회사 자체가 로마 카톨릭 교회사이므로 대부분의 신학교 교과서나 참고서들은 오리젠을 가리켜 ‘위대한 크리스천 학자요, 고대 교회의 가장 뛰어나고 영향력 있던 신학자’라고 잘못 소개하고 있다.
 9. 사실 오리젠은 한때 그리스 아테네 철학의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함으로써 이단자로서 판명되었다.
 10. 그는 또한 예수님께서 ‘창조된 하나님’이었다는 이단 교리를 퍼뜨렸다.
 11. 그의 교리는 4세기경의 이단 그룹인 아리우스파의 교리 정립을 위한 토대를 제공해 주었다.
 12. 오리젠은 오늘날의 여호와의 증인들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고 ‘하나의 창조된 신(神)’

으로 믿었다. 심지어 그는 예수님께서 육체로 땅에 거하셨다는 사실조차 믿지 않았다!

13. 그는 천재였으며 수많은 책들을 모으고 읽고 저술했으며 또한 영지주의자였던 암브로스의 책들을 소장했다. 그는 또한 이교도로서 신플라톤주의를 창설한 사카스 밑에서 공부했고 매우 금욕적인 삶을 살았는데 그 예로 신발도 신지 않고 맨 땅에서 잤으며 스스로 거세(去勢)했던 매우 특이한 인물이었다(갈5:12). 그는 알렉산드리아를 떠날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어 주후 215-219년 사이에는 팔레스타인의 가이사라로 이주했고 거기서 죽음.
14. 그는 종종 구약 성경을 신비적으로 해석했고 신약 성경과 마찬가지로 비유적으로 해석했다.
15. 그의 작품 중 가장 유명한 것은 「헥사플라」(Hexapla)이다.
16. 「헥사플라」(‘6년 성경’)는 여섯 개 난에 여러 가지 언어로 기록된 성경 즉 ‘폴리글롯’으로 오직 구약 성경만을 담고 있다. 이 여섯 개의 난마다 각각 다른 구약 역본이 들어 있다. 「헥사플라」는 ‘벨과 용’(Bel and the Dragon), ‘유디스서’(Judith), ‘토비서’(Tobit)와 같은 위조된 책들과 로마 카톨릭 교회만이 유일하게 권위를 인정하는 다른 외경들도 포함하고 있다.
17. 여기의 다섯째 난은 오리겐의 작품으로 현재 「70인역」으로 잘 알려져 있다.
18. 「헥사플라」는 주후 638년까지 가이사라의 도서관에 있었으나 그 뒤 모슬렘들의 침략으로 인해 소실되었다.
19. 「헥사플라」는 단지 그 일부분만 복사되었고 특히 「헥사플라」의 다섯째 난은 ‘바티칸 사본’(B 사본), ‘시내 사본’(알레프 사본), ‘알렉산드리아 사본’(A 사본), ‘에프레미 사본’(C 사본) 등에 남아 있다.
20. 신약에 나오는 구약성경 인용 구절들이 70인역과 같은 이유는 무엇인가? 신약 성경의 인용 구절들은 절대로 「70인역」 혹은 「헥사플라」에서 인용한 것이 아니다. 신약에 있는 구약 성경 인용 구절들은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자신이 원하는 모든 방식을 통해 구약으로부터 자유롭게 인용하신 것이다. 히10:5-6, 시40:6-8

D. 제사장들의 부패: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시대, 대제사장이 권력의 실세

1. 오니아스 3세 대제사장, 그가 안디옥에 가 있는 동안 그의 동생 야손이 안티오쿠스 대왕에게 뇌물을 바치고 자기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해 달라고 청탁하였다.
2.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군자금을 마련하려고 그 제의를 받아들였다.
 - a. 또 적극적으로 헬레니즘화를 장려할 유대인 지도자를 갖게 된 것에 기뻐했다.
 - b. 그는 야손의 요청에 따라 예루살렘에 그리스 도시(폴리스)와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였다.
 - c. 야손은 체육관을 만들어 젊은 유대인들과 심지어 제사장들까지도 그곳에서 경기를 하게 하였다 (유대인들의 구별 의식이 없어짐).
3. 3년 후, 제사장 가문에 속하지 않았을지도 모를 메넬라오스가 더 많은 뇌물을 바쳤고 야손은 도망하였다. 메넬라오스는 안티오쿠스에게 돈을 주기 위해 성전 보고(寶庫)에서 거액의 돈을 빼돌렸다.
4. 오니아스 3세(안티오크에 유배된 상태)가 이 일을 공개적으로 비난하자 메넬라오스는 그를 살해할 계획을 세웠다.
5. 안티오쿠스가 죽었다는 소문이 퍼지자, 야손은 1,000명의 부하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메넬라오스에게서 대제사장직을 빼앗으려고 하였다. 하지만 안티오쿠스는 죽지 않았다.
6. 안티오쿠스는 야손이 그런 행동을 했으며 자신의 헬레니즘화 정책에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켰다는 소식이 들리자 보복 조치를 취하였다.

E. 마카비(마카베오) 반란: 주전168년경, 셀류시드 왕조의 강압적인 그리스 문화 강요

1. 유일신을 섬기던 유대인들의 반감

2. 주전 169년부터 주전 167년까지 집중적으로 진행됨
3. 유대인들이 학살당하고 성전이 약탈당하고 유대교의 관습이 금지되는 사태가 연거푸 발생했다. 할례를 받으면 사형에 처해질 수 있었으며, 안식일을 지키는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4. 주전 168년 그는 전쟁에서 떠나며 그의 장군에게 예루살렘을 약탈할 것을 명령함
5. 주전 167년 리시아스 행정관의 지휘 하에 반 유대적 포고령 선포, 매일 드리는 성전 희생 제사를 금하고 제단에 돼지 피를 드림으로써 이 성전을 더럽혔고 근 3년 동안 주님을 경배하지 못하게 함, a. 성전을 제우스에게 바침, b. 돼지를 잡아 바침, c. 구약 성경 말살
6. 1,000명 이상의 하시딤들이 처형당함
7. 모디인 마을에 파견된 관리와 제우스에게 희생 드린 배교자가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마타디아스 제사장 가문 주동)
 - a. 마타디아스의 다섯 아들: 존(Jone), 엘리에저(Eleazor), 시몬(Simon), 요나단(Jonathan), 유다(Jude)
 - b. 이들은 '망치'를 뜻하는 마카비 혹은 마카베오라 불렸다.
 - c. 마카비: 영예의 호칭(마카베오, 정치 세력)
 - d. 이들이 함께 산으로 도망하여 혁명운동 시작 + 보수적인 하시딤 합류
 - e. 게릴라식으로 셀루시드 왕조를 괴롭힘
 - f. 셀루시드 왕조에 협조하는 마을을 불사름
 - g. 아버지가 죽자 유다 마카비가 지도권을 이어받으면서 종교적인 자유를 위한 싸움에서 정치적인 독립을 위한 싸움으로 변화가 일어난다.
 - h. 마카비는 전쟁에서 승승장구한다.
 - i.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주전 164년에 죽고 유다 마카비는 군대를 예루살렘에 진입시킨다.
8. 예루살렘이 유대인의 손에 들어온 것을 축하하여 기원전 164년 12월 25일에 제단이 새롭게 봉헌되고 일주일 동안 축제가 벌어졌다. 이로써 율법에 합당하게 예배가 다시 드려졌다.
9. 이때부터 유대교는 매년 성전 봉헌(히브리어: 하누카, 요10:22, 개역성경의 수전절) 축제에서 이 사건을 기억하며 빛이 암흑과 어둠을 쫓아내는 표징으로 등불을 점화하였다.
10. 유다 마카비는 주전 161년 전쟁에서 시리아의 니카노르 장군에게 패하고 전사한다.
11. 마카비 형제 요나단에 의해 혁명은 계속된다.
12. 종교적인 자유와 정치적인 자유를 더 많이 누리게 되었다.
13. BC 143년 시리아인의 음모로 요나단이 살해되고 시몬이 뒤를 잇는다.
14. 시몬은 예루살렘을 완전히 이방인의 통치로부터 독립시켰다. 시몬은 주전 133년에 암살되었다.
15. 하스모니아(하스몬) 왕국 : 주전 142년-63년, 마카비들의 후예
16. 유대인들은 주전 142년부터 새로운 연호를 사용하였다.
 - 하스모니아 왕국의 왕들(시몬, 힐가누스 1세, 아리스토틀루스 1세 등)
17. 정치만 남고, 신앙심은 사라지다 ★★★

성경 바로 보기 제4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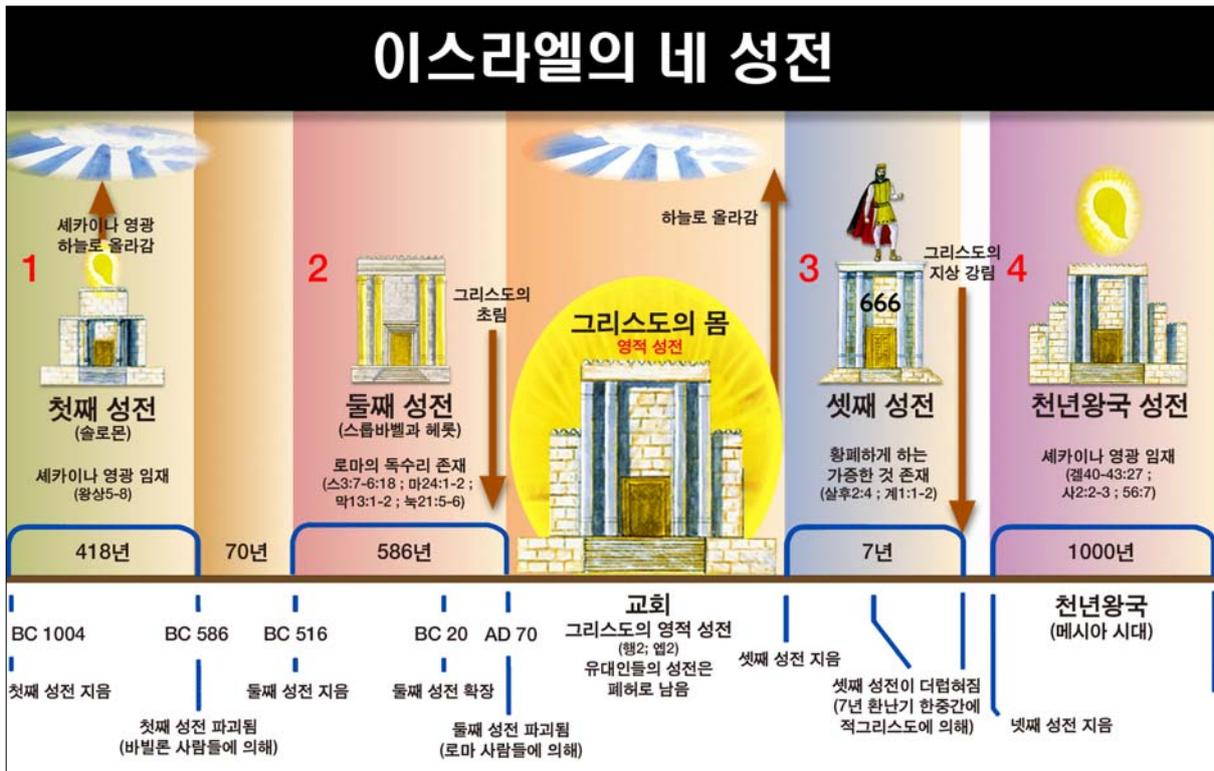
5. 율법 경륜(Dispensation of Law)_연속

F. 로마 시대

1. 로마는 BC 8세기 무렵부터 전설적 왕정기(王政期)에 속하며(로물루스와 레무스, 일곱 언덕, 늑대 양육, 3,000명 도시 국가), BC 510년부터 공화정기(共和政期)로 들어갔고 유명한 율리우스 카이사르(시이저, 가이사), 부루투스, 시이저의 양자인 옥타비아누스(BC 27년)는 원로원에서 황제 칭호를 받고 그 이후부터 제정기(帝政期)로 들어갔다(율리우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눅 2:1),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를 이김).
2. 그러나 395년 로마제국은 동·서로 분열되어 서로마제국은 476년에 멸망하고 비잔틴 제국(동로마 제국)은 1453년까지 존속했다. 로마가 이룩한 지중해 세계의 통일은 세계사상 불멸의 의의를 가진다.

G. 예수님 직전의 로마 시대

- 주전 63년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을 정복함
- 주전 40년 로마가 헤롯 대왕 임명(에돔 족속)
- 주전 37년: 헤롯이 예루살렘을 취함
- 주전 20년: 성전 복원(46년, 요2:19-20), 주전 4년: 헤롯 사망
- 주전 4년: 침례자 요한과 그리스도 탄생
- 유대인들의 생활: 물질적으로,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피폐하기 그지없었다.
- 그러므로 메시아 출현을 눈 깜짝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눅3:15; 갈4:4).



H. 성전: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 거룩히 구별된 곳으로 그분께만 경배 드리는 건물.

이곳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인데, 우상이 있는 이교도들의 신전과는 달리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지성소에서 그룹들 사이에 거하신다.

1. 솔로몬의 성전

- a. 다윗은 자신이 주님을 위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을 것을 요청하였으나 하나님은 나단 대언자를 통해 그가 아니라 그의 아들 솔로몬이 그것을 지을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이에 다윗은 자기 아들 솔로몬을 위해 많은 물자를 예비하였다.
- b. 성전을 세울 장소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했던 모리아 산이었다(창22:2, 14; 대하3:1).
- c. 성전의 모델은 성막과 거의 비슷하며 단지 외형만 커졌고 그 안의 기구들도 거의 비슷하다.
- d. 처음 성전을 짓는 데 7년 6개월이 걸렸으며 봉헌식을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대하 5:1-14; 6:1-42; 7:1-22). 성전 자체는 주랑과 성소와 지성소로 구성되어 그리 크지 않았으며 주변의 뜰과 방이 있는 지역이 넓었다. 성경에서 성전이라는 말은 지성소가 있는 건물만을 뜻하지 않고 종종 뜰을 포함한 전체 성전 구역을 의미한다.
- e. 솔로몬의 성전은 처음 33년 동안만 아름다움을 유지하였고 이집트의 시삭 왕이 이곳을 약탈한 뒤부터(왕상14:25-26; 대하12:9) 하사엘, 디글랏빌레셀, 산헤립 등이 더럽혔고(왕하 12:1-21; 16:1-20; 18:1-37) 마침내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완전히 파괴시켰다(BC 586). 그래서 첫 성전은 418년만에 땅에서 사라졌고 그 뒤 70년 동안 폐허로 남아 있었다.

2. 스룹바벨 성전

- a. 그러나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은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스룹바벨과 유대인들이 둘째 성전의 기초를 놓았고(스1:1-4; 2:1; 3:8-10) 그 뒤 이방인들의 많은 방해를 받으면서 성전 공사가 진행되어 21년이 지난 뒤 완공되었다(스6:15-16). 이 성전의 크기는 이전 것과 같았으나 겉모습은 이전 것보다 떨어져서 처음 성전을 본 사람들은 초라한 모습의 새 성전을 보고 슬퍼하였다(학2:3). 하지만 주님은 이 집의 영광이 처음 것보다 크리라고 위로의 말씀을 주셨다(학 2:9). 이 성전에는 언약궤, 금홀의 자리, 눈에 보이는 영광, 제단의 거룩한 불, 우림과 둠뿔, 대언의 영 등이 없었다.
- b. 마카비 시대: 주전 168년경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대제는 매일 드리는 성전 희생 제사를 금하고 제단에 돼지 피를 드림으로써 이 성전을 더럽혔고 근 3년 동안 주님을 경배하지 못하게 하였으나 유다 마카비는 주전 165년에 다시 경배를 부활시키고 성전을 새롭게 봉헌하였다.

3. 헤롯 성전

- a. 헤롯 대왕은 자신의 통치 제1년인 주전 37년에 두 명을 빼고 산헤드린의 모든 회원을 죽였으며 이것을 속죄하기 위해 성전을 재건하고 미화하기로 하였다. 그는 2년 동안 자재를 모은 뒤 스룹바벨의 성전을 허물고 16년에 걸쳐 다시 지었다(그 30년 증축, 총 46년). 이렇게 완공된 성전에 주님이 들어가셨으므로 학2:9; 말3:1의 예언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다. 헤롯의 성전은 대리석으로 건축되어 빼어난 아름다움과 웅장함을 자랑하였다(막13:1; 눅21:5). 그러나 그 당시 온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로 여겨지던 성전은 우리 주님의 예언대로 주후 70년에 로마 사람들에 의해 완전히 사라져버렸다(막13:2).

4. 환난기 성전(살후2)

5. 천년 왕국의 에스겔 성전(겔40-48장)

- 6. 신약시대의 성전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신자의 몸이며(고전3:16-17; 6:19; 고후6:16) 신약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는 결코 성전이 아니다. 교회가 의식화되어 천주교처럼 변하면서 목사가 제사장(사제)처럼 행세하고 예배당이 성전이 되는 구약 체계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비성경적이며 우리 주님이 미워하시는 일이다.

성경 바로 보기 제4권과

5. 율법 경륜(Dispensation of Law)_연속

I. 회당

1. 이 말은 원래 집회를 뜻하지만 교회와 비슷하게 후에는 유대인들이 주님께 경배하기 위해 집회를 갖는 장소를 뜻하게 되었다.
2. 구약성경에 이 말이 없으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이 바빌론 포로 이후에 생긴 것으로 추정한다.
3. 이전에 유대인들은 야외에서 혹은 대언자들의 집에서 집회를 가졌다.
4. 나이가 들고 경건하며 학식이 있는 사람 열 명이 있으면 회당을 세울 수 있었고 큰 마을에는 여러 개의 회당이 있었으며 그래서 우리 주님 당시에는 회당이 매우 많았다.
5. 포로 생활 이후에 유대인들은 흩어져 살았으므로 회당이 마치 지역 교회 비슷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6. 회당을 세우는 일은 매우 경건한 행위로 간주되기도 하였고(눅7:5) 천국의 열쇠로 생각되기도 하였으므로 필요 이상으로 많은 회당이 건립되었다. 그래서 한때 예루살렘에만 460-480개의 회당이 있었다.
7. 회당은 대개 높은 곳에 지었으며 건물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서 서쪽 편은 율법서가 담긴 궤가 있으므로 신전(temple)이라 불렸고 동쪽 편은 사람이 모이므로 회당의 몸이라 불렸다.
8. 사람들은 성전이 있는 곳을 바라보며 앉았고 장로들은 사람들을 마주 보고 반대편에 앉았다. 장로들이 앉는 곳은 좀 더 귀한 곳으로 생각되어 회당의 높은 자리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마23:6). 여인들은 격자창 등으로 구분된 발코니에 앉았다.
9. 모든 회당에는 직분을 가진 열 사람이 있었고 그 중에서 회당의 치리자는 모든 것을 주관하였다.
10. 그 다음으로는 회당의 천사라는 이름을 가진 회중의 사역자가 있었는데 그들은 기도와 말씀 선포 등을 담당하였다(눅4:17).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의 목사들은 이런 연유로 천사로 불린 듯하다(계2장과 3장).
11. 사람들이 앉으면 회당의 천사가 강단에 올라가 공중 기도를 하고 이때에 사람들은 다 같이 일어나서 헌신하였다(마6:5; 막11:25; 눅18:11, 13). 유대인들의 회당은 경배 장소였을 뿐만 아니라 재판 장소이기도 하였으며 그래서 종종 회당에서 매를 맞는 모습이 나온다(마10:17; 막13:9; 행22:19; 26:11; 고후11:24). 회당에서 내쫓기는 출회는 유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형벌이었다(요9:22; 12:42; 16:2).

J. 유대인들의 분파

바빌로 포로 생활 이후 유대인들 사이에는 실행과 의견 등으로 인해 네다섯 부류의 분파가 있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헤롯 당원, 열심 당원 등.

1. 바리새인: 마카비 전쟁 이후에 형성됨(BC 160년경). '바리새'라는 이름은 '분리하다'를 뜻하는 히브리말에서 나왔으며 이것은 그들이 지혜와 성별에서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있음을 뜻하였다.
 - a. 회당 중심, 제사장과 성전 배격
 - b. 그들은 구약성경의 기록된 말씀이 유대교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금식, 기도, 구제, 이방인과 세리들과 접촉하는 것 등의 외적 의식에 관한 한 여러 가지 구전 전통과 규례를 첨가하였고(마 6:5; 9:11; 23:5; 막7:4; 눅18:12) 그래서 미신과 자기 의를 세우려는 형식의 틀에서 천주교와 비슷하다.
 - c. 구전 율법 중시
 - d. 그들은 모세의 율법 조문을 중시하였지만 자기들의 전통과 철학으로 그 안의 영적 진리를 무시하였다(마5:31, 43; 12:2; 19:3; 23:23). 그들은 겉으로 경건하게 드러났고 거룩하게 보였으므로 보통 사람들 특히 여성들에게 좋은 평을 받았다. 그들은 혼의 불멸과 몸의

부활을 믿었다(행23:8).

- e. 그리스도께서는 여러 차례 그들의 위선과 교만과 탐욕을 책망하셨으며(마6:2, 5; 23:1-39; 눅16:14; 18:9; 요7:48-49; 8:9.) 이로 인해 그들은 처음부터 그분을 미워하고(마 12:14) 그분을 죽일 방도를 구했으며 그 결과 그분의 피가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돌아갔다. 한편 그들 중에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와 시므온처럼 진실로 경건한 사람들도 있었다(마 27:57; 눅2:25; 요3:1).

f. 다소의 사울 역시 엄격한 바리새인이었다(행26:5; 갈1:14). 니고데모

2. 사두개인: 마카비 반란 전에 주전 200년경에 형성됨. 제사장과 성전 중심

- a. 이들은 종종 바리새인들과 충돌하였으나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일에서는 하나가 되었다(마 16:1-12; 눅20:27). ‘사두개’라는 말이 공정함을 뜻하는 히브리말에서 나왔다는 주장도 있고 예수님이 오시기 300년 전에 살면서 이 파를 창설한 사독 혹은 사두커스에서 나왔다는 주장도 있다.
- b.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이 귀중하게 여기던 전통과 기록되지 않은 법규를 다 무시하였으며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만 유대교의 근원이고 규칙이라고 주장하였다(구전 율법 배격).
- c. 그들은 바리새인들의 마귀론을 거부하고 천사나 영의 존재를 부인하며 몸이 죽을 때 혼도 죽고 따라서 부활이나 보상 등에 대해서도 믿지 않았다(마22:23, 행23:6-8).
- d. 바리새인들은 이 세상의 모든 일이 운명이나 섭리 같은 것에 의해 지배된다고 믿었으나 사두개인 들은 개개인의 의지에 따라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믿었다.
- e. 유대의 백성들은 사두개인들보다는 바리새인들의 주장을 더 많이 수용하였으나 고위층 사람들은 그 반대였다.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 중 다수가 사두개인이었고(행23:6-9)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도 그들이 기독교를 미워하도록 하는 데 일조하였다(행4:1; 5:17).

3. 에세네파: 마카비 전쟁 당시 형성됨.

- a. 에세네파는 쿨란 공동체라 불리는 공동체 생활을 하던 유대교의 한 조류이다. 에세네파가 쿨란 공동체라고 불리는 이유는 이들이 금욕생활을 하던 정착지가 쿨란(Qumran) 동굴이었기 때문이다. 개인 경건 강조, 앞으로 도래할 종말에 대한 기대와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회와 격리되려는 경향이 강하였다. 두 메시아(정치적, 종교적), 몸의 부활 부인, 결혼 금지

4. 헤롯 당원: 헤롯 대왕과 헤롯 안디바의 추종 세력(마22:16; 막3:6).

- a. 헤롯은 로마 정권에 의존했으며 그래서 카이사르에게 세금 내는 것을 당연히 여겼으나 바리새인 들은 이를 부인했다. 이것을 이해하면 마22:16의 뜻을 알 수 있다.

5. 열심당(熱心黨): 젤롯당(Zealot당) 혹은 혁명당

- a. 로마제국의 식민통치에 폭력항쟁으로 맞설 것을 주장한 유대의 종교적 민족주의 정치 운동이다. 열심당원들은 이스라엘은 다윗 왕의 자손으로 기쁨부음 받은 유대인(메시아)만이 다스릴 수 있다고 주장하며 로마 제국에 계속해서 대항하였다. 그들은 66년에서 70년에 걸친 대대적인 유대인 반란인 제1차 유대-로마 전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들은 66년 예루살렘을 장악하여 4년간 버텼으나 70년에 로마 군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성전을 파괴하는 것으로 전쟁이 끝났다. 시몬 셀롯(눅6:15), 바라바(막15:7)

K. 침묵의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일, 갈4:4

- 1. 로마의 역할(정부): 팍스 로마나, 모든 곳에 화평이 있었다. 자유 무역, 자유 여행 길(80,000 킬로미터의 큰 길들):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기 시작함
- 2. 그리스의 역할(문화): 언어, 코이네 그리스어
- 3. 유대의 역할(유산): 산헤드린 공회, 회당, 종교 교육

성경 바로 보기 제43과

5. 율법 경륜(Dispensation of Law)_연속

VIII. 마태복음과 신약성경 개관

대부분의 성도들이 마태복음, 사도행전, 야고보서, 히브리서 등의 책에서 넘어진다.

변천기의 책들 혹은 수신자가 유대인들(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인 책들

A. 언제부터 신약 시대인가?(히9:16-17)

1.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은 역사 기록을 담고 있다.
2. 변천하는 역사 기록
3. 마태복음: 구약에서 신약, 사도행전: 유대인 기독교에서 이방인 기독교
4. 공관복음: 마태(유대인 대상, 메시아, 주후 60년경), 마가(로마 교회의 이방인들 대상, 고난 받는 중, 주후 60년경), 누가(그리스 사람들 대상, 사람의 아들 구원자, 주후 65년경)
5. 순전한 역사서이다.
6. 사도행전(주후 65년경)
7. 이 외에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의 사도 바울의 서신: 교회
8. 야고보서, 베드로전후, 유다서 등의 일반 서신: 물론 교회 대상, 히브리 책체, 특히 야고보서는 구원 받은 성도의 열매로서의 행위 강조
9. 요한복음: 주후 90-96년경, 역사서와 서신서를 총 정리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심을 보여 준다(요3:16; 20:30-31).
10. 요한123: 영지주의 이단 교리에 대응하기 위해(요일5:20)
11. 요한계시록: 교회의 휴거 이후에 있을 미래 사건, 천년왕국, 새 하늘과 새 땅, 죽은 자들의 심판
12. 요약: 신약성경 안에 있다고 해서 모두 교리적으로 교회 시대 성도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13. 교회는 마16:18에서 앞으로 이 땅에 생길 것으로 예언되었고 오순절에 처음 이 땅에 나타났다.

B. 예수님의 사역의 대상은 누구인가?(롬15:8-9, 눅1:30-33; 67-75; 눅2:25, 34; 38 등)

1. 마태복음: 유대인 주 대상(이방인들로 넘어감), 마10:5-7, 마28:19-20
2. 마태복음에서 교회를 찾는 것은 구약에서 교회를 찾는 것만큼이나 어렵다.
3. 톰슨주석성경 이사야서 등을 보면 교회가 나온다. 이런 것은 모두 칼빈주의 언약신학에서 나온 것으로 성도들을 오류로 인도한다. 구약성경에서는 교회를 찾기가 대단히 어렵다(엡3의 신비).

C. 복음서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진리

1. 하나님의 열심: 마21:33-44, 대언자들 그리고 끝에 아들
2. 구약성경의 예언을 이루시려고 메시아를 보낸다(창3:15).
3. 인류의 구속을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최종적인 계획을 수행하신다.
4. 메시아는 반드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와야 한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오신다(마 1:1).
5. 이 예수님이 바로 아들 하나님이다.
6. 또 성령님에게서 태어났다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7. 이 예수님은 동시에 육신을 입으셔야만 한다(히2:14-18).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시다.
8. 하나님이 누구시며 이 세상 모든 일에 대한 그분의 생각은 어떤 것이지 발견한다.
9. 그런데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거부한다(마23:37-39).
10. 그 결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어 교회가 형성된다(롬11:11-12).

11. 이스라엘의 미래(롬11:25-26)

VI. 마태복음 내용

- A.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출생, 삶, 사역, 죽음, 부활, 승천을 다룬다. 성도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예언에 따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임을 보여 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그래서 다른 복음서보다 더 빈번히 구약을 인용한다.
- B. 마태는 누가와 달리 예수 그리스도의 왕가의 족보를 기록하며 그분이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난 것을 강조한다(마2:2). 그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를 이기시고 제자들에게 마귀들과 질병들을 물리칠 권능을 주시고 친히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 등을 보여 주심으로 메시아의 표적을 이루신 사실을 잘 보여 주며 메시아 왕국의 본질과 영역, 활동 등을 강조한다(5-7장; 13장; 24-25장).
- C.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이 바라던 왕국을 초월한 하늘의 왕국을 이 땅에 가져오려고 했으나 유대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메시아를 거부하며 십자가에 못 박았다.
- D. 그들의 후손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외치며 그분을 받아들일 때에 즉 재림의 때에 그분께서 유대인들의 메시아로 오셔서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마23:37-39).

E. 가장 중요한 단어: 왕과 왕국(단2:44)

- | | |
|--------------------------------|-----------------------------------|
| 제1장: 왕의 족보 | 제2장: 왕의 출생 |
| 제3장: 왕의 침례 | 제4장: 왕의 사역 준비 |
| 제5-7장: 왕국의 현장 | 제8, 9장: 왕의 신임장 |
| 제10장: 왕의 메시지(열두 사도) | 제11장: 왕국의 거절 |
| 제12장: 왕을 거절하는 죄 | 제13장: 왕국의 신비 |
| 제14장: 왕의 기적(오병이어) | 제15장: 왕의 사역 대상(이스라엘) |
| 제16장: 왕의 죽음 예고(교회 탄생) | 제17장: 왕의 미래 영광(변화산) |
| 제18장: 왕국의 법칙 | 제19장: 왕국에 들어갈 자들 |
| 제20장: 왕의 죽음 예고 | 제21장 왕의 입성 |
| 제22장: 왕의 혼인 잔치 비유 | 제23장 왕의 지도자들 저주(13-33절), 37-39 중요 |
| 제24장: 유대인들의 환난기(15-21, 단12:1), | 제25장: 이 세상의 끝 설명, 천년 왕국 |
| 제26-28장: 왕의 심판, 죽음, 매장, 부활 | |

F: 특징

1. 교리적으로 볼 때 거의 유대인
2. 자신들의 메시아를 고대하는 히브리인의 관점에서 쓰임
3. 신약 시대가 열렸으나 내용 면에서 여전히 구약임
4. 침례자 요한의 사역 목적: 구약 시대를 마감하는 인물, 요1:31, 예수님의 사역 목적: 롬15:8-9

G.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진리

1. 여전히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메시아이다. 아직 구약 시대이다(갈4:4-5)
2. 40번째 책: 40은 성경에서 대부분 시험의 때를 가리킨다(40년 광야 생활, 사십 일 금식...)
3. 유대인들을 시험하는 때
4. AD 30년에서 70년까지 또 한 번 유대인들을 시험하는 때가 주어짐.
5. 그들은 여전히 기회를 이용하지 못하고 결국 완전히 쫓겨남.

성경 바로 보기 제44과

6. 은혜 경륜(Dispensation of Grace)

여섯째 경륜(은혜 혹은 교회 경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서 시작하여 그리스도의 재림 때

바울은 에베소서 3장 2절에서 현재의 경륜(칭지기직)에 대해 언급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는 특별한 약속을, 모세에게는 거룩한 율법을 주셨다.

오늘날에는 믿는 자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알려 주신다.

은혜(Grace):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 아이 이름으로도 가장 좋은 이름 중 하나

170회(창6:8; 계22:21 마지막 절), 누가복음 1회, 요한복음 4회, 사도행전 10회, 바울 서신 99회
그래서 바울은 은혜의 사도, 은혜를 확실히 체험한 사람, 은혜의 복음만 전함(고전15:9-10).

하나님은 항상 은혜의 하나님이다.

아담과 이브에게 가죽옷을 입히심으로 자신의 은혜를 보이셨다(창3:21).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로우셨고(창6:8) 홍수 후 다시는 땅을 홍수로 멸하지 않으리라고 하심으로
전 세계에 자신의 은혜를 보이셨다(창9:11).

하나님의 은혜는 아브라함, 모세, 다윗, 침례자 요한에게도 미쳤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날 가장 돋보인다.

과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의 물줄기라고 한다면 오늘날 그 은혜의 물줄기는 전에 볼 수 없이 엄청나게
불어나 커다란 강을 이루게 되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딤후1:14).

현재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은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자신의 은혜를 보여 주신다(요1:16-17).

구약시대에도 은혜를 주셨지만 신약시대에는 그 은혜를 대체하는 더 큰 은혜가 주어졌다. 여기서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는 또한 은혜 위의 은혜로 볼 수도 있다. 모세는 율법을 준 사람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한량없는 은혜를 주신 분이다. 그분은 단순히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롬
5:17)! 이 은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 모두 주어진다. 히브리서의 'better'

살아 계신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 자신이 알려지기를 기뻐하신다.

역사란 어떻게 하나님께서 각 시대에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을 나타내셨는가를 기록한 것이다.

노아 때에 하나님은 홍수를 보내심으로 죄를 미워하는 심판자로 자신을 나타내셨다.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 않는 신실한 주님으로 자신을 나타내셨다.

요셉의 때에는 자신의 백성을 위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주권적 하나님으로 나타내셨다.

홍해에서는 자신의 권능과 구원을 보여 주셨다.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는 자신의 거룩함을 보이셨다.

오늘날 하나님은 특별히 자신의 부요함과 그리스도 안에서 친히 우리를 받아 주시는 은혜 곧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보여 주려 하신다(엡1:5-7).

0. 은혜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호의'를 뜻한다. '합당치 못한 자가 받는 호의'

하나님의 호의는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격이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A. 은혜: '당치 않은 친절, 과분한 친절, 받을 가치가 없는데도 주어지는 친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친절은 결코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어진다.

B. 성경은 이 은혜를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정의 내린다.

1. 에베소서 2장 7절 - 문맥상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음

a. 이것은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친절 속에 담긴 자신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다가오는 시대들 속에서 보여 주려 하심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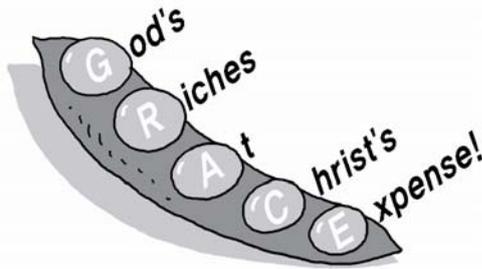
b.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은 자들에게도 친절을 베푸실 수

있다(엡2:1-3).

2. 디도서 3장 3-4절 - 문맥상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음(딤텔2:11; 3:7 참조)

- a. 사람을 향한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난 뒤에
- b. 은혜는 사람을 향한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친절과 사랑이다. 하나님은 디도서 3장 3절에 묘사되어 있는 죄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친절을 베푸신다!
- c. 하나님의 은혜는 다윗 왕과 질름발이 므비보셋의 이야기에 아름답게 그려져 있다(삼하9장). 다윗 왕은 므비보셋에게 친절을 베풀었다(삼하9:7, 13). 므비보셋은 자기가 그런 친절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8절). 다윗이 므비보셋에게 친절을 베풀 것은 므비보셋 때문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요나단 때문이었다(7절).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친절을 베푸신다(엡4:32).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를 은혜로이 용서하셨다.

C. 하나님의 은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도 있다.



은혜: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얻은 하나님의 부요함 (God's Riches At Christ's Expense)!

D.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께서 부요하셨으나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자신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E. 오직 갈보리 십자가만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을 터져 나오게 할 수 있다.

- 1.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죄인들에게 부어질 수 있다.
- 2. 만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절과 은혜를 베푸실 수 없다.
- 3. 대신 우리 죄를 심판하기 위해 우리를 심판석 앞에 세워 두고 모두를 정죄하실 것이다.

F. 좋은 소식이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죄 값의 지불로 보시고 완전히 흡족해 하신다는 것이다.

G. 따라서 하나님은 이제 자신을 믿는 이들에게 사랑과 은혜와 친절을 부어 주신다.

H.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로 인하여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자신의 호의와 은혜를 부어 주실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죄가 되셨다(고후5:21)



그리스도 안의 성도

성경 바로 보기 제45과

6. 은혜 경륜(Dispensation of Grace)_연속

I. 경륜이 시작될 때 사람의 상태

- A. 은혜 경륜이 시작될 당시에는 죄가 극에 달해 있었다. 대부분의 유대 민족이 자기들의 구원자 메시아를 거절하였다.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왔으나 그들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요 1:11). 불신과 죄로 눈먼 그들은 마침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다.
1.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사악한지 유감없이 보여 주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이것을 자신의 은혜의 위대함을 보여 주는 계기로 삼으셨다.
 2.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죄보다 훨씬 크다.
 - a. 또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넘치게 하려 함이거니와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쳤나니 (롬5:20)
 3. 율법은 죄의 진상을 낱알이 보여 주는 확대경과 같다. 율법을 공부하다 보면 이 사실을 알 수 있다. 율법은 사람이 얼마나 더럽고 죄로 가득한지 보여 주는 거울이다.
 4. 죄가 넘쳐도 은혜는 그 이상으로 넘친다!
 5. 우리는 큰 죄인이지만 우리에게는 더 크신 구원자가 계신다!
 6. 죄가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은 ‘더욱 더 큰 자신의 은혜’를 보이기 시작하셨다(롬5:20).
- B. 이스라엘이 자기의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1. 모두를 심판하셨는가?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다가가셨다.
 2. 하나님은 세계 방방곡곡 누구에게나 그 손길을 내밀기 시작하셨다(행1:8).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 a.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계22:17).
 3. 구원을 가져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딤후2:11).
- C. 기록하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상태
1.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참 모습을 볼 필요가 있다. 즉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보아야 한다.
 2.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 유죄이며(롬3:19), 불순종의 자녀요(엡2:2), 진노의 자녀이며(엡2:3), 죄 가운데 있고(엡2:1), 잃어버린 자들이고(눅19:20), 선하지 않고(롬3:12), 불의하며(롬3:10)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죄인이다(롬3:23).
 3. 이런 상태의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실 수 있을까? 그렇다!
 4.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딤후1:15).
 5.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고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은혜 베풀길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거저 주고자 하시는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곧 영원한 생명이다(롬6:23, 롬5:15-19 비교)! 이 선물을 사람이 벌어서 얻거나 사들일 수 없다. 이것은 거저 주어지는 은혜이다(롬5:15).

II. 사람의 책임

A.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책임

1. 억만 장자의 손에 지금 10억원이 쥐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자. 그가 이 돈을 당신에게 주려고 한다. 당신은 어떻게 하려는가? 받겠는가? 거절하겠는가? 자유의지의 발동
2. 하나님의 선물은 백만 불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 죄의 값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한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다(롬6:23). 이 선물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모든 사람을 위한 선물이다.
3. 하나님은 이 선물을 억지로 주시지 않는다. 거부하는 자에게는 이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다.

4. 하나님은 이 선물을 모든 사람에게 제시하시지만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5. 하나님의 영생의 선물을 받는 유일한 길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6. 요한복음 3장 16, 18, 36절에 따르면 오늘날 사람의 책임 혹은 의무는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주신 명령은 자신의 아들을 믿으라는 것이다(요일3:23).
7. 당신은 이 명령에 순종하였는가?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선물을 받았는가? 죄인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발견하였는가?

B. 구원받은 자들의 책임

1. 살아 계신 하나님은 친히 놀라운 은혜를 보여 주시길 원하신다! 즉 사람들과 천사들이 자신의 은혜가 어떠한지 보길 원하신다. 실제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서 볼 수 있을까? 산에서 볼 수 있을까? 바다에서 볼 수 있을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보려면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을 보아야 한다.
2. 모든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 주는 진열장과 같다! 박물관에 가면 진열장을 구경할 수 있다. 진열장 위에는 각양 물건이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 주는, 걸어 다니는 진열장이다, 성전이다. 지금뿐만 아니라 다가올 영원 경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 a. 이것은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친절 속에 담긴 자신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다가오는 시대들 속에서 보여 주려 하심이라(엡2:7).
3.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 주는 전시품이 된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특권이다.
4. 하나님은 또한 성도들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은혜를 천사들에게 가르치신다(엡3:10).
 - a. 그 목적은 그분께서 이제 교회를 사용하사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5. 우주는 교실이고 하나님은 교사이며 천사들은 학생이고 과목은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이며 학습 목표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바로 교회 즉 믿는 이들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다.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 같은 죄인들에게 그 같은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에 놀랄 것이다.
6. 사도 바울은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많은 것을 알았다(고전15:10). 실로 바울은 큰 죄인이었다(딤후1:13-15). 그러나 그에게는 위대한 구원자가 있었다(딤후1:15). 하나님은 바울에게 오래 참으심과 은혜를 보여 주셨다(딤후1:16).
7. “하나님은 내 안에서 자신의 은혜와 오래 참으심을 보이셨다. 나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보여 주는 트로피이다. 내게 은혜와 오래 참으심을 보이셨던 그 하나님께서 당신에게도 동일하게 행하시리라!”
8. 믿는 이라면 바울의 고백처럼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9. 구원받지 못한 이에 대한 우리의 메시지는 이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다면 당신에게도 그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다면 당신 같은 죄인도 분명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나를 보십시오. 나 자신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보여 주지 않습니까?”
10. 우리에게는 네 가지 의무가 있다.
 - a.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그 안에 거해야 한다(행13:43):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신뢰했을 때 자신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이고 나는 아무 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며 은혜로 살아야 할 의무가 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의지해야 한다.
 - b. 은혜의 복음을 증언해야 한다(행20:24):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증언하고 구원하시

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야 한다.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명백히 제시할 수 있는가?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할 수 있는가?

- c. 은혜 안에서 자라야 한다(벧후3:18):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맛보았다(벧전 2:3). 맛있는 음식을 맛보게 되면 계속 먹게 되지 않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많이 배우려 해야 한다. 우리는 그분의 진리의 말씀으로 성장하고 세워져야 한다(행20:32).
- d. 죄 안에 거하지 말아야 한다(롬6:1-2): “죄짓고 자기 맘대로 살지 그래요? 그러면 사악하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드러나지 않겠어요? 당신이 죄를 지을수록 하나님은 더 많은 은혜를 보여 주실 겁니다.”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이 할 이야기인가(롬 6:1-2)?
- e.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았고 어쨌든 하늘에 갈 것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을까(딤후2:11-12)?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할수록 그는 은혜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할 것이다.

성경 바로 보기 제46과

6. 은혜 경륜(Dispensation of Grace)_연속

III. 사람의 실패

A.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실패

1.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사람들에게 거저 주겠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극소수만 그리스도를 믿고 이 선물을 받아들였다(마7:13-14).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물을 거절하고 그리스도께서 왕과 주님으로서 그들을 다스리는 것을 거부하였다(눅19:12-14).
2. 은혜의 경륜동안 하나님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끈기 있게 기다리신다. 현재 하나님은 사람이 심각한 죄를 짓는다고 해서 곧바로 그를 쳐서 죽이지 않으시며 다만 심판 때까지 오래 참고 계신다.
3. 이사야서 30장 18절: 그러므로 주께서 기다리시리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높여지시리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주는 공의의 하나님이니 그분을 기다리는 모든 자들은 복이 있도다.
4. 그렇다고 은혜의 날이 언제까지나 계속되지는 않는다. 언젠가 하나님이 죄인들을 쳐서 죽게 하실 때가 임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 노아의 대홍수가 있기 전에도 120년 동안 은혜의 기간이 있었다(창6:3).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기다리셨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동안 하나님은 사람들이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그러나 결국 120년의 은혜의 기간은 끝이 나고 방주의 문은 닫혔다(창7:16).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었다.
 - a.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였느니라(눅17:27).

B. 구원받은 자들의 실패

1. 신자들도 종종 하나님의 은혜를 알리지 못했다. 가령, '중세 암흑기' 동안 교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지 않았다. 대신 구원이 어떤 노력과 수고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처럼 가르쳤다. 구원이 값없는 선물이라는 가르침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마땅히 '은혜의 복음'을 알려야 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 결과 도처에 영적인 어둠이 가득하게 되었다. 물론 지금도 로마 카톨릭 교회는 그렇게 가르친다.
2. 유감스럽게 이런 일이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다. 많은 교회들과 종교단체들이 구원이란 선행과 노력의 산물이라고 가르친다.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다. 다수가 진리에서 돌아서 거짓을 가르치고 있다. 환난 통과, Lordship salvation

IV. 하나님의 심판

- A. 앞서 살펴보았듯이 은혜의 날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2장 4절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멸시한 이들을 묘사하고 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롬2:3, 5). 그 날이 오면 모든 믿지 않는 세상과 한때 진리를 안다고 고백했으나 실제로는 믿지 않고 뒤에 진리에서 돌아서는 종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 질 것이다(딤후4:1; 딤후3:5; 4:3-4절 참조).
- B. 노아 시대에 120년의 은혜의 기간이 끝나고 하나님은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은혜의 날은 이보다 더 길지만 - 현재까지 약 2,000년이며 언제 끝이 날지 아무도 모름 - 끝날 때가 올 것이며 하나님은 다시 한 번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가장 큰 은혜의 때 즉 현 세대의 은혜의 경륜이 끝나면 가장 극심한 심판의 때인 환난기가 닥칠 것이다(행17:30-31). 이런 큰 환난은 전에 있지 않았다(마24:21). 우리는 곧 이 환난기를 좀 더 자세히 다룰 것이다.
- C.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면 위험하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역사를 거절하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거절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다. 당신은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인가?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구원자계로 인도하고 있는가?

V. 은혜의 복음 내용:

A. 구원 받으려면

1. 첫째, 당신이 죄인으로 태어났고 당연히 지금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라.
2. 둘째, 당신 스스로 혹은 다른 인간이 당신을 구원시킬 수 없는 절망적 상황임을 고백하라.
3. 셋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라. 바로 그분이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분의 부활이 당신의 부활을 책임진다. 당신이 구원받고 죽은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길은 오직 이 길밖에 없다.
 - a. 예수님의 말씀: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니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막2:17)
4. 넷째, 이제 주님께 당신을 구원하고 당신 삶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진심으로 기도하라. 이 기도는 다음과 같은 형태를 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간절한 마음이다.
 - a.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임을 잘 압니다. 제 힘으로 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 예수님을 제 마음에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제 마음에 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5. 다섯째, 이렇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다음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
 - a. “누구든지 주(主)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롬10:13).
 - b. “주(主)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받고 네 집이 받으리라”(행16:31).
6.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에 따라 당신에게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주실 것이다.

B. Romans' way(로마서 전도법)

1. 창조(롬1:19-20)
2. 죄인(롬3:10)
3. 죄의 대가: 사망(롬6:23)
4. 그리스도의 사랑(롬5:8)
5. 믿음(롬10:9-10)
 6. 회개(행2:38)
 7. 영접(요1:12)
 8. 확신(요5:24)
9. 안전(롬8:1)

(1)
창조
롬1:19
-다음-
롬3:10
219쪽

(2)
죄인
롬3:10
-다음-
롬6:23
223쪽

(3)
심판
롬6:23
-다음-
롬5:8
221쪽

(4)
사랑
롬5:8
-다음-
롬10:9
228쪽

(5)
믿음
롬10:9
-다음-
행2:38
172쪽

(9)
안전
롬8:1
-끝-

(6)
회개
행2:38
-다음-
요1:12
129쪽

(7)
영접
요1:12
-다음-
요5:24
137쪽

(8)
확신
요5:24
-다음-
롬8:1
224쪽

성경 바로 보기 제47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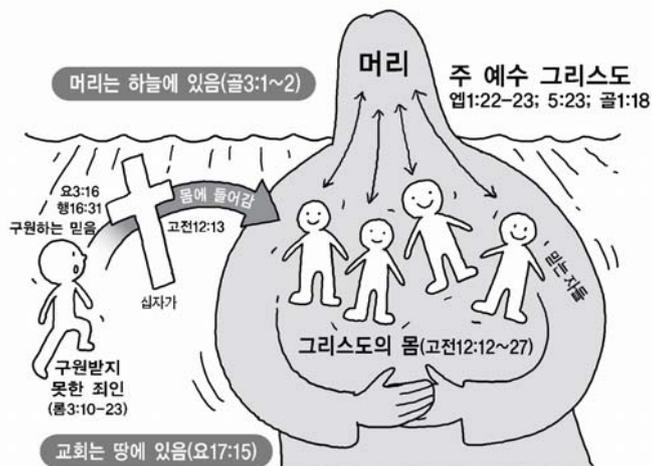
6. 은혜 경륜(Dispensation of Grace)_교회

I. 개요

- A. 오늘날 우리는 은혜의 경륜에 살고 있다. 이 경륜에서 하나님은 무언가 특별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신다. 그것은 무엇인가?
- B. 교회의 출생 예언: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우리 주님은 자신이 장차 하실 일에 대해 말씀하셨다.
1.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 C. 이 중요한 말씀에서 우리는 최소한 네 가지 진리를 배울 수 있다.
1. 예수 그리스도는 건축가이시다.
 2. 건물은 반석 위에 세워진다(베드로가 아니라 그의 믿음 고백)
 3. 교회가 바로 그 건물이다.
 4.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건물을 맡아 그 누구도 파괴하지 못하게 지키신다! -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한다.
 5.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다.
- D. 오늘날 그리스도께서는 무언가를 짓고 계신다. 자신에게 매우 소중한 무언가를 짓고 계신다.
1. 이것은 그분께 특별한, 그분 자신의 소유이다(마16:18). 하나님의 교회(행20:28), 성령님의 교회 No!
 2. 이 건물은 독특하다. 대도시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건물이 아니다.
 3. 이 건물은 살아 있는 돌들로 지어졌다(벧전2:5). 이 돌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주님이요 구원자로 받아들인 사람들이다!

II. 그리스도의 몸: 교회는 건물로 묘사될 뿐 아니라 몸으로 묘사되기도 한다.

- A. 에베소서 1장 22-23절,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아래 두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를 위해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 B. 골로새서 1장 18절, 그분께서는 몸 곧 교회의 머리시니라. 그분께서 시작이시요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에서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 C. 이 구절들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 믿는 자들은 모두 다 이 몸의 지체이다(고전 12:27). 그러면 이 몸의 머리는 누구일까(골1:18)? 교회는 살아 있는 지체들로 구성된 살아 있는 유기체(몸)이다. organism과 organization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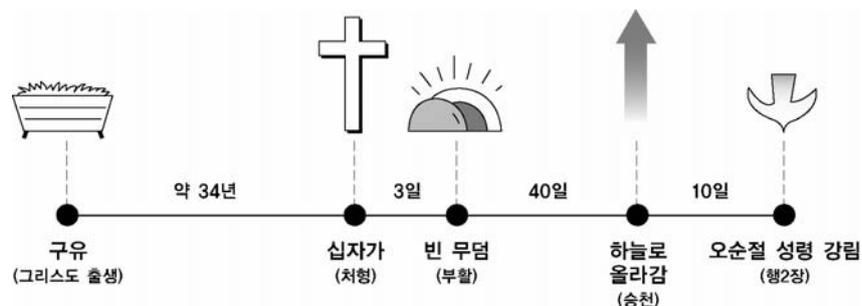


사람이 믿을 때 하나님은 그를 그리스도의 몸 안에 둔다(침례의 의미-고전12:13).

- D. 사람이 어떻게 참 교회의 지체가 될 수 있을까? 사람이 어떻게 이 건물의 ‘돌’이 될 수 있을까?
- E. 이 그림에서 보듯이 머리는 하늘에 있고(골3:1-2) 교회는 땅에 있다(요17:15). 교회의 각 지체는 머리와 다른 지체에 연결되어 있다. 믿음으로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아무도 그리스도의 교회의 지체가 될 수 없다. 사람이 믿을 때 하나님은 그를 그리스도의 몸 안에 두신다.
- F.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성령 침례의 의미로 보았다(고전12:13).
- G. 당신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가? 십자가를 통과하였는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구원자를 믿었는가?

III. 성령 강림

- A. 교회가 늘 있었던 것은 아니다.
 1. 아담, 노아, 아브라함, 다윗, 이사야 등도 모두 믿는 이들이었지만 교회의 지체는 아니었다. 그때는 아직 교회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 침례자 요한이 활동하던 때도 마찬가지이다(요3:29).
 3. 물론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에도 교회는 없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비로소 태동한다. I will build my church.
 4. 마18:17의 교회는 신약 교회가 아니다.
- B. 십자가에서 죽기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어느 특정한 날 성령님께서 신자의 마음에 거하시기 위해 오신다(요한복음 14-16장).
 1. 여기에는 ‘위로자’에 대한 말씀들이 있다(요14:16). 영원히 내주하신다.
 2. 이 위로자는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이다.
 3. ‘위로자’라는 단어는 ‘돕는 자’란 뜻이며 이 성령님은 ‘당신 편에서 당신을 돕고 위로하며 격려하는 분’을 말한다.
 4. 또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 불린다(요14:17). 너희 속에 계신다.
 5. 요한복음 16장 7, 8, 13절은 성령님께서 오실 때를 말한다.
 6.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로하며(요14:16), 그들과 함께 거하고(요14:16), 그들 속에 내주하며(요 14:17)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증언하고(요15:26), 그들을 인도할(요16:13) 위로자 성령님을 보내시리라고 약속하셨다.
 7. 성령 강림은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이다. 바로 그 날 교회가 눈에 보이게 탄생하고 시작되었다.
 8. 바로 그 날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식으로 믿는 성도 안에 거주하게 되셨다(요14:16-17).
 9. 성령님은 오순절이라는 특별한 날에 임하셨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특별히 2장의 첫 부분). 구약에서는 오순절에 율법 수여
 10. 오순절은 성령님께서 믿는 성도 안에 거주하려 오신 날이고 교회가 태동한 날이다.



성경 바로 보기 제4권과

6. 은혜 경륜(Dispensation of Grace)_교회

IV. 몸(건물)에 더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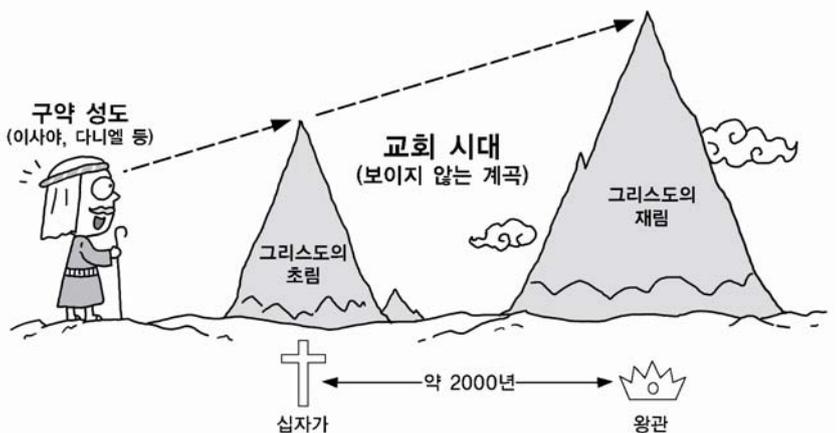
- A. 사도행전 1장 15절에는 120명의 제자들(믿는 이들)이 있었다.
- B. 사도행전 2장 1-3절에서 드디어 성령님께서 오셨고 교회가 탄생하였다.
- C. 교회가 처음 생긴 날 첫 구성원들의 수는 120명 정도였다! 즉 120개의 살아 있는 벽돌로 된 교회라는 건물이 섰다.
- D. 그 날 베드로는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였고 많은 백성이 믿었고 그 결과 그 건물에 3,000개의 벽돌이 더해졌다(행2:41).
- E. 주님께서서는 날마다 믿는 자들을 교회에 더했다(행2:47). 매일 새 벽돌이 건물에 더해졌다.
- F. 사도행전 4장 4절을 보면 믿는 사람의 숫자가 5,000명에 이르렀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건물에 벽돌을 더하셨다(행5:14) 행11:24의 안디옥
- G.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의 교회를 건축하고 계시며 언젠가 이 건축 계획은 끝날 것이다.
- H. 오늘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사도행전 15장 14절에 나와 있다.

V. 하나님의 신비

- A. 에베소서 3장 5-6절에서 사도 바울은 신비 혹은 비밀에 대해 썼다.
 - 1. 이 신비는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하나님 안에 숨겨져 온 것이다(엡3:9).
 - 2. 신비(Mystery), 교회는 신비, 이스라엘 신비(롬11:25), 휴거 신비(고전15:51-52), 고전 4:1-2
 - 3. 사도 바울에 이르러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 신비를 계시하셨다(엡3:3).
- B. 이 놀라운 신비는 구원받은 유대인과 구원받은 이방인이 함께 연합하여 한 몸이 속하게 된다는 것(엡3:6)!
- C. 골로새서 1장 26-27절도 이 신비에 대해 말한다. 27절은 그 신비가 '이방인 성도들 안에 계시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한다(골1:27).
- D.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린다(딤후3:15). 하나님께서 거기 사시니 하나님의 집이다.

VI. 구약시대에는 교회가 없었다

- A. 교회에 대한 진실은 이전의 여러 경륜에서 알려지지 않았다(골1:26; 엡3:5-6)).
 - 1. 구약 성도들은 교회에 대해 듣지 못했다.
 - 2. 또 언젠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몸속에 거하시리라는 내용도 들어보지 못했다.
 - 3. 단지 어느 날 메시아가 죽으시리라는 것은 알았다(사53; 시22; 단9:26).
 - 4. 또 메시아가 왕으로 온 땅을 치리 하고 다스릴 것을 알았다(미5:2; 사9:6-7; 단7:13-14; 렘 23:5-6).
 - 5. 구약 성도들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그 사이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
 - 6. 사61:1-2, 단9:24-27, 행 3:19-20



- B. 두 개의 산봉우리(초림, 재림), 중간 계곡: 교회 시대 혹은 은혜 경륜 혹은 성령 시대

VII.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에 있는가?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

- A. 모세 시대에 하나님은 성막에 거하셨다(출40:34-35). 주의 영광(세카이나 글로리)
- B.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은 성전에 거하셨다(왕상8:11).
- C. 주 예수 그리스도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 안에 있었다(요1:14; 14:7).
 - 1.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 2.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바로 아버지를 보는 것임을 배운다,
 - 3.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였다(요2:19-21).
- D.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에 있는가? 지금 이 땅에는 성막도 없고 예루살렘 성전도 없다. 또 현재 그리스도께서도 더 이상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지 않는다.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까? 오늘날 하나님께서 거주하고 계신 곳이 어디인가?
- E.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성도들이 곧 하나님의 성전임을 보여 준다.
 - 1. 오늘날에는 교회(성도들)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교회)을 자신의 영광으로 채우신다(엡1:22-23).
 - 2.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며(딤후3:15) 성령님을 통한 하나님의 거처이다(엡2:22).
 - 3. 성도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다(고전6:19).
 - 4. 성도의 책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고전3:17)
 - 5. 교회의 각 지체는 주님 안에서 건강한 상태로 자라나야 한다. 즉 그들은 날마다 더욱 그리스도같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어떤가?

성경 바로 보기 제4과

6. 은혜 경륜(Dispensation of Grace)_교회

VIII. 건물이 완공되는 날

- A. 언젠가 그때를 알 수는 없지만 교회(건물, 몸, 교회)가 완성될 것이다. 마지막 '벽돌'이 놓이는 순간 건물은 완공될 것이다.
- B. 교회가 완성되는 날, 무언가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이다.
- C.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교회를 하늘로 데려가시기 위해 오실 것이다.
- D. 이 놀라운 사건은 흔히 '휴거'라고 불리며 이것은 신약성경의 여러 곳에 잘 묘사되어 있다. 영어로는 Rapture, 환희와 황홀경의 시간, 이런 게 있을까? 너무 신비롭다.
1. 라틴어 Rapere, Rapere는 살전4:17에서 그리스어 harpaz를 번역하는 데 사용되었다.
 2. Caught up, 채여 올라가다
 3. 행8:38, 고후12:2,4, 계12:5
 4. 휴거와 비슷한 사건: 예녹(창5), 엘리야(왕하2), 빌립(행8), 바울(고후12)
 5. 공중 들림만 옳은가? 6. Rapture라는 말은 성경에 없지 않은가?
- E. 휴거의 정의(살전4:13-15), 부활과 공중 들림, 교회의 완성,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 어린양의 혼인잔치(계19:7)
- F. 휴거의 신비(고전15:51-52)
- G. 휴거의 대상: 예수님의 몸에 속한 사람은 모두 부활하고 모두 채여 올라간다.
1. 부분 휴거 No!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사람이면 올라간다.
살전4:16-17, 고전15:51-52의 '우리'는 아기 성도부터 어린 성도까지 모두 포함함.
- H. 휴거의 시기: 은혜의 시대의 끝은 노아의 시대와 같다.
1. 적그리스도 등장, 온 인류가 하나님을 대적함, 하나님의 진노의 7년이 이 땅에 임함,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시간
 2. 7년 환난기 전에 교회는 휴거된다(계3:10; 살전1:9-10; 5:9).
- I. 환난 전 휴거: 휴거는 7년 환난기 전에 일어난다.
1.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요14:1-3)
정혼: 신랑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신부의 집으로 가고 지참금을 지불함으로 정혼 언약을 맺음.
그 뒤에 신랑은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가서 거할 곳(mansion)을 마련함.
신랑은 1년 정도 지난 어느 날 들러리들과 함께 신부의 집으로 감(마25:1-13).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므로 신부는 매일 신랑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음.
신랑이 와서 신부를 데리고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가는데 거기에는 이미 하객들이 기다리고 있음.
그들은 신부 방으로 들어가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고 7일 동안 거기에 머뭇(창29:27).
전 과정에서 7일 동안 신부는 얼굴을 보이지 않음.
7일 연회가 끝나면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나와 만민에게 공개함.
 2. 그리스도와 교회
신랑과 신부: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의 초림 정혼, 새 상속 언약(New Testament), 고후11:2-3
신랑이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 되돌아감.
떨어져 사는 기간: 교회 시대
신랑이 언제 신부를 데리러 올지 모름: 휴거
7일간의 혼인 잔치: 어린양의 혼인 잔치(계19:7-9)

이후에 신부를 공개함: 지상 강림

그러므로 신부를 데리러 가는 것은 혼인 잔치 이전 즉 7년 환난기 이전이어야 함.

3. 환난 전 휴거 구절

눅12:35-40(36절); 미24:42-51

계3:10

계19: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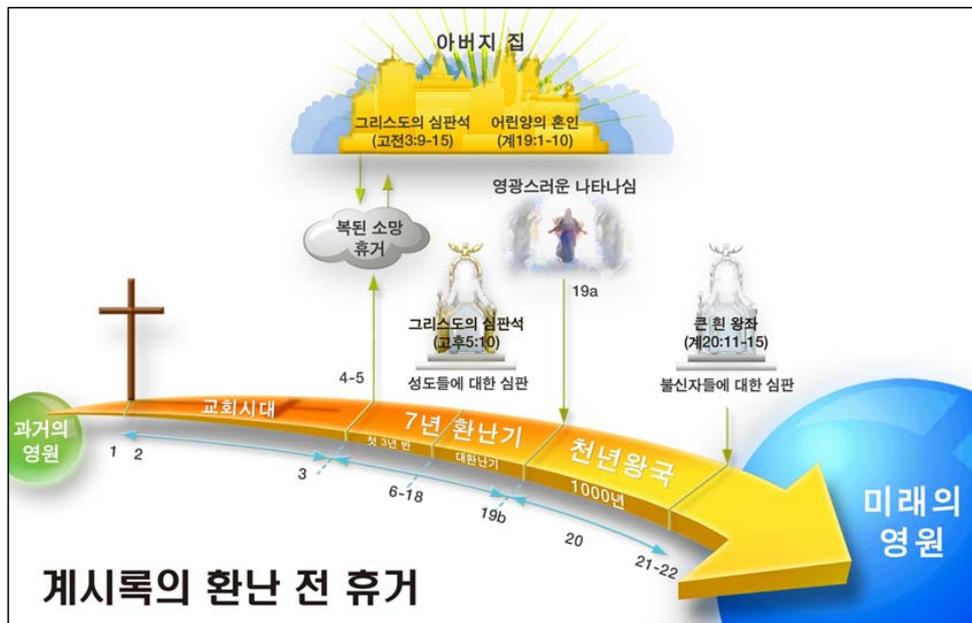
살전1:10; 살전5:9

4. 환난 전 휴거 근거

계시록의 근거: 계시록 4장부터는 교회가 등장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곳은 22:16이다.

그 이유는 6-19장까지의 7년 환난기에 교회가 이 땅에 없기 때문이다.



J. 휴거의 임박성: 휴거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전15의 우리).

1. 밤일지, 낮일지, 여름일지 겨울일지 아무도 모른다. 걱정할 필요 없다.

2. 주님에게 속한 자는 다 올라간다.

3. 구원받기 가장 좋은 날은 바로 은혜의 경륜인 오늘이다. 당신은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요일 2:28)?

K. 휴거 요약(딤후2:11-15)

1.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남(11)

2. 우리를 가르치심(12)

3. 휴거의 복된 소망을 기다리게 하심(딤후4:7-8)

4. 트로피가 되어야 한다.

5. 목사는 이것을 가르쳐야 한다.

L. 예수님께서 자기의 교회를 위해 오신 다음 세상에는 곧 7년 동안의 환난 기간이 있을 것이다.

1.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한 자는 하늘에 가나(요14:1-3; 계3:10) 그렇지 않은 자는 온 땅에 임할 환난의 때에 들어간다.

성경 바로 보기 제5과

6. 은혜 경륜(Dispensation of Grace)_교회

IX. 교회에 대한 부가 설명

- A. 교회로 번역된 그리스말 '에클레시아'는 신약성경에서 모두 117회 사용되었다.
1. 이 말은 종교적 모임이나 일반 모임을 뜻하였고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32, 39절 등에서는 '무리' 혹은 '집회'로 번역되었다. 야구팀도 에클레시아(교회)
 2. 그러나 신약성경에서 교회는 대개 종교적 예배자들의 지상 모임을 뜻하였고 그래서 심지어 구약시대 유대인들의 모임도 광야의 교회라 불렸다(행7:38).
 3. 물론 이것은 우리 주 예수님이 세우신 신약 교회가 아니다(마16:18; 고전6:4).
- B. 신약성경 용례에서 교회는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세워진 신약 교회를 뜻한다.
- C. 신약 교회의 의미로 쓰인 교회의 경우 대부분 한 지역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인 '눈에 보이는 지역 교회'를 뜻한다.
1. 로마, 고린도, 에베소, 빌립보 교회 등 사도 바울이 서신을 보낸 교회가 다 지역 교회(Local church)였다.
- D. 한편 '눈에 보이지 않는 전 우주적인 교회'(Universal church) 즉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을 뜻하는 교회도 몇 군데 발견된다(엡1:22-23; 히12:23 등).
1.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이 반석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했을 때 이것도 전 우주적인 교회 즉 그분의 몸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2. 천주교 Catholic과 catholic의 의미 차이
- E.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주님의 부활 이후에 구원받은 모든 자들로 구성된 '전 우주적인 교회'가 있음이 분명하지만 '전 우주적인 교회'를 강조하다 보면 지역 교회의 모임과 제도를 모두 무시하는 폐단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1. 그래서 이런 오류를 피하기 위해 '전 우주적 교회'라는 개념 자체를 가르치지 않거나 성경에 없는 것으로 이야기하면서 극도의 거부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다. 다시 말해 이들은 우주적 교회는 없고 오직 지역 교회만 있다고 주장한다.
 2. 극단적 침례 교회들: Landmark Baptist, Baptist Bride, No!
- F. 성경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오려면 성령 침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고전12:12-13).
1. 성령 침례는 분명하게 사도행전 2장에서 처음 일어났다. 그러므로 이 구절에 따르면 사도행전 2장 이전에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없었다.
 2. 문제는 베드로를 비롯한 120여 명의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 이전에 이미 구원받았고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침례를 받았다는 점이다.
 3. 즉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 따르면 지금 이 시대에는 성령 침례와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반해 처음의 120여 명의 경우에는 구원과 성령 침례가 다른 시기에 이루어졌다.
- G. 대부분의 온건한 세대주의자들은 변천기의 특징을 들어 이 문제를 해결한다.
1. 즉 오순절 이전에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의 경우를 오순절 이후의 구원받은 사람들의 경우처럼 취급할 수 없고 이것을 과도기적인 현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
 2. 실로 사도행전에는 이와 같은 변천 과정이 기록되어 있다(행19:1-7).
 3. 그래서 그들은 이런 변천기를 인정하면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는 오순절에 성령 침례와 함께 시작되었다고 주장한다.
 4. 또한 이들의 대부분은 지역 교회와 전 우주적 교회가 존재함을 인정한다.
- H. 반면에 지역 교회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베드로를 비롯한 120여 명의 사람들 자체가 이미 교회였으

- 며 따라서 성령 침례가 교회에 속하기 위한 필수 요소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1. 그 결과 그들은 고린도전서 12장은 모든 신약 교회에 적용되지 않으며 단지 고린도 교회라는 한 지역 교회에만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2. 또한 성령 침례를 강조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 성령님의 교회가 된다고 주장한다.
- I. 우리는 지역 교회만을 주장하는 분들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고린도전서 12장의 명백한 진리 즉 성령 침례를 통해 그분의 몸에 들어온다는 진리를 왜곡하면서까지 지역 교회를 주장하고 오순절 이전의 교회를 주장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1. 이것 역시 어떤 하나에 집착하여 성경을 균형 있게 보지 않으려 하는 데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2. 이런 주장대로라면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 교리도 고린도 교회에만 적용해야 한다.
- J. 사도행전의 기록자 누가는 먼저 오순절 날 베드로의 말을 들은 3,000명의 사람들이 ‘그들에게’ - 즉 베드로를 포함한 120명에게 - 더해졌다고 기록한다(행2:41).
1. 교회에 더해진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더해졌다.
 2. 누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백성들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셨다고 기록한다(행2:47).
 3. 즉 120여 명과 3,000명이 교회를 형성한 이후에 드디어 교회라는 말이 처음 나온다.
- K. 사도행전 기록을 통해 우리는 변천기를 인정하면서 오순절 이후에는 성령 침례와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성경에 언급된 교회의 대부분이 지역 교회이지만 여전히 전 우주적인 교회가 있음을 인정한다.
1. 몸을 가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며 이루어야 할 교회는 전 우주적인 교회가 아니고 지역 교회이므로 여기서 믿음 생활하면서는 지역 교회를 훨씬 더 많이 강조한다.
- L. 요약하자면 오순절 이후의 교회 시대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 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하여 성령 침례를 받아 한 몸 즉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고전12:13, 27-28; 참조 엡1:22-23; 5:30-32; 골1:18).
1. 물 침례를 받아 교회(그분의 몸)에 들어오지 않고 성령 침례를 받아 교회에 들어온다(엡4의 한 침례).
 2. 물 침례는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는 행위로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와 구원받은 것을 사람들 앞에서 입증하는 것이다.
- M. 교회의 출생에는 반드시 성령 침례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침례자 요한에 의해 처음 예언되었다(마 3:11; 막1:8; 눅3:16; 요1:33).
1. 그는 자신은 물 침례를 주지만 주님은 성령 침례를 주실 것이라고 말하며 성령 침례가 미래에 있을 것을 말하였다.
 2. 그 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내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미래의 일을 말씀하셨고 부활한 뒤 승천하기 바로 전인 사도행전 1장 5절에서도 여전히 성령 침례가 미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다.
 3. 이때까지는 변천기에 있던 120명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분의 몸에 들어가지 않았다(고전12:13).
 4. 이때에 주님은 며칠 지나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했고 실제로 10일 후 오순절에 그 일이 발생하였지만 사도행전 2장은 성령 침례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
 5. 그러나 뒤에 베드로는 사도행전 11장에서 고넬료가 성령 침례를 받았으며 그와 동일한 일이 오순절에 발생했음을 보여 준다(행11:15-16).
- N. 교회의 출생이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만 가능성을 보여 주는 구절들이 있다.
1. 에베소서 1장 19-23절이 그 한 예가 될 것이다.
 2.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주셨는데 이것은 그분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이루어졌다.

3. 그러므로 그분의 몸인 교회는 머리가 있기 전에 생길 수 없다(요7:39).

X. 지역 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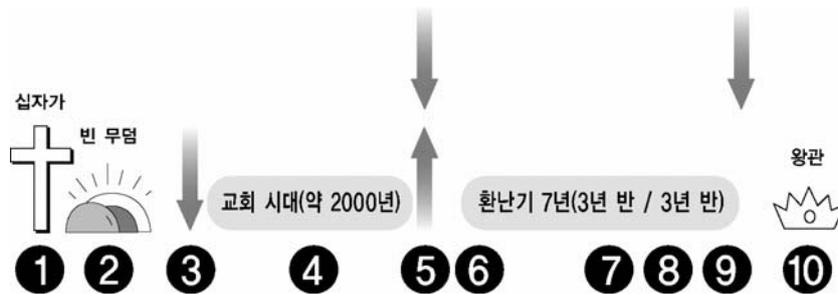
- A. 지역 교회는 침례를 받은 신자들로 구성되며 믿음의 약속과 복음의 교제로 이루어진 조직으로서 그리스도의 규례를 준수하고 그리스도의 법에 순종하며 말씀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영적 선물(은사)이나 특권을 발휘한다(고전11:2; 행2:41-42; 20:17-28).
- B. 교회의 참된 사명은 단체 사회 활동이 아니라 기회가 닿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다(롬15:26).
- C. 지역 교회는 어떤 개인이나 단체의 계급 체계를 거부하며 완전히 독립된 자치권을 갖는다.
- D. 그리스도인은 세속 법정에서 서로를 소송해서는 안 된다(고전6:1).
- E. 성경이 말하는 참 교회는 믿음의 수호와 복음의 진보를 위해 서로 돕고 협력하며 이런 협력의 분량이나 방법은 각 지역 교회의 권한에 맡겨진다.
- F. 그리고 회원문제, 정책문제, 행정, 양육, 자선 등도 각 지역 교회가 사정에 맞게 결정할 수 있다.
- G. 구원받아 지역 교회의 회원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정하심을 따라 이 세상에 대해 나그네요, 순례자요, 대사요, 증인이 된다(고후5:18-20; 벧전1:17).
- H. 그리고 그들의 삶의 첫째 목적은 선교를 통해 세상에 그리스도를 알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마 28:18-19; 막16:15; 요17:18; 행1:8).
- I. 지역 교회의 직분에는 목사와 집사가 있으며 그들의 자격이나 요건 그리고 의무는 성경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다(딤후3:1-13; 딤후1:5-11).
- J. 또한 교회에는 침례와 주의 만찬이라는 두 규례만 있을 뿐이다.

성경 바로 보기 제51과

6. 은혜 경륜(Dispensation of Grace)_교회 다음의 환난기

I. 환난기

- A.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교회를 하늘로 데려가신 직후 환난기라고 알려진 7년의 기간이 시작된다. 이 7년은 '다니엘의 70째 이레'(단9:24-27)로 잘 알려져 있다. 한 이레는 7일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여기에 나오는 한 주는 7일이 아니라 7년이다.
- B. 이 7년의 후반부 3년 반은 종종 대환난기로 불리는데(마24:21) 이는 그때가 세상이 전에 겪어 보지 못했던 가장 큰 고통을 겪는 시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환난기가 끝나자마자 그리스도의 지상 강림이라는 커다란 사건이 생긴다(마24:29-30).



1. 그리스도의 죽음(고전15:3; 롬5:8; 벧전3:18)
 2. 그리스도의 부활(고전15:4; 롬1:4), 승천 행1
 3. 오순절 성령 강림(행2장):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탄생일
 4. 현재의 교회 경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교회를 건축하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한 백성을 불러내고 계심(행15:14). 이미 2,000년이 지나갔음
 5.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교회는 '채여 올라가' 즉 휴거되어 공중에서 서로 만나는 때(살전4:13-18): 이 사건은 교회의 휴거라 불리며 교회 시대의 종지부이다.
 6. 환난기 혹은 다니엘의 70째 이레 시작: 이스라엘 민족이 적그리스도와 모종의 언약(협약)을 맺음으로 7년이 시작된다(단9:27).
 7. 7년 중간에 이 언약(협약)이 깨어지고 '죄의 사람'(적그리스도)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어 자신을 하나님으로 섬길 것을 사람들에게 요구한다(단9:27; 마24:15-21; 살후2:3-4).
 8. 예수님께서 '큰 환난'(마24:21)이라고 말씀하신 나머지 3년 반: 전무후무한 재난의 때로서 사탄의 활동이 가장 극심한 때가 되며(계12:2-12) 사탄의 사람(죄의 사람)이 땅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계13:1-10).
 9. 환난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능과 큰 영광으로 땅에 임하심으로 끝날 것이다(마24:29-30; 계19:11-16).
 10.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 왕국을 세우실 때, 흔히 천년왕국 기간으로 불린다(계20장).
- C.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 환난기에 대해 말한다. 특히 마태복음 24장, 다니엘서 9장, 데살로니가후서 2장, 계시록 4-9장
- D. 그러나 이 땅에 환난기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이 일들이 이미 성취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제까지 성경에 기록된 이 사건들이 일어난 적이 없었다.
1. 가령 계시록 6장, 8장 7-12절에 등장하는 심판이나 역병이 언제 일어났는가?
 2. 언제 한 사람이 전 세계를 다스리며 하나님으로 경배를 받았는가(계13:1-12)?
 3. 온 세상이 한 사람의 형상에게 경배하라고 강요받은 적이 있었는가(계13:14-15)?

4. 모든 사람이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아야 하며 그것이 없이는 물건을 사거나 팔 수 없던 때가 있었는가(계13:16-17)?

- E. 이런 말씀들은 분명히 아직 땅에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말하고 있다.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세대주의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 일들이 미래에 일어날 것임을 알고 있다.
- F. 환난기는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일이다. 마태복음 24장 29-30절, 25:31-35에는 이 환난의 시기가 끝나는 즉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 임하시리라고 나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이라면 당연히 환난기도 미래의 일이다.
- G. 이 환난의 때가 어떻게 다른 경륜과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7년 환난기는 대개 독립된 경륜 혹은 세대로 분류되지 않는다. 이 7년은 정확히 은혜 경륜과 왕국 경륜 사이에 들어 있다. 대개 성도들은 이 7년 환난기를 은혜 경륜의 끝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심판으로 생각한다.

II. 특별한 고통의 때

- A.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왕국을 이루시기 위하여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 주셨는데 그들은 이 메시아를 거부하였고 결국 재림 때에 이 메시아를 받아들인다(마23:37-39). 그런데 그때에도 그들은 순순히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엄청난 환난 즉 이스라엘 민족 역사에서 가장 혹독한 시련을 겪은 후에야 비로소 그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왕국을 세운다.
- B. 이스라엘의 환난기를 잘 이해해야 교회가 환난 전에 휴거를 받는지, 환난을 통과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으므로 이 내용을 자세히 보아야 한다. 이스라엘의 환난에 대해서는 신명기 4장, 다니엘서 2, 9, 12장, 스가랴서 12-14장, 마태복음 23-25장, 로마서 11장, 그리고 계시록 12장 등이 잘 설명해 준다.
- C. 환난은 영어로 'tribulation'이며 이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26회 나온다(단수로 22회, 복수로 4회). 이 단어는 라틴어 'trivulum'에서 나오며 이 말의 뜻은 '고난', '고통', '괴로움'이다.
- D. 이 말의 기원은 체질을 통해 꺾테기를 날려버리고 알곡만을 추려내는 데서 나온다. 곡식은 알곡과 꺾테기로 되어 있으며 알곡을 얻으려면 체질을 해서 꺾테기를 추려내야 한다. '환난'은 이런 과정을 표현한다.
- E. 환난은 개인에게도 적용될 수도 있고 민족에게 적용될 수도 있다. 누구나 당하는 일반적인 환난이 있고 이스라엘만 당하는 유일무이한 환난이 있다.
- F. 환난 통과를 주장하는 이들은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것이다."라는 말씀(요16:33)이나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라는 말씀(행14:22) 등을 근거로 인용하곤 한다. 그러나 이런 구절들의 환난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당하는 일반적인 고난을 이야기한다(딤후3:11-12). 반면에 재림과 휴거를 이야기할 때의 환난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유일무이한 환난을 말한다.
- G. 이스라엘의 환난은 신명기 4장 30-31절에 기록되어 있다.
- H. 바로 이 환난이 올리브 산 설교에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유대인 제자들에게 친히 알려주신 환난 즉 재림 전에 유대인들에게 임하는 환난이다(마24:21).
- I. 예레미야서 30-31장은 특별히 이 환난에 대해 잘 기록한다(렘30:6-9). 맨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 내시며 유다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데 이 일이 있으려면 유대인들의 고난이 있어야 한다.
- J. 바로 이런 기간이 환난기이다. 환난기의 1차 목적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파멸시켜 없애는 것이 아니라 꺾테기를 제거하고 알곡만 거두려는 것이다. 바로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주시며 그래서 그 때는 '야곱의 고난의 날'이다.
- K. 스가랴서 12-14장 역시 마지막 때의 이스라엘에 대해 기록한다(슥13:8-9). 이처럼 많은 사람이 한 번에 죽은 일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전무후무하다. 그래서 이 일은 세상의 창건 이래로 그 민족에게 없던 일이다. 현재 이스라엘의 인구는 800만 명, 앞으로 1,000만 명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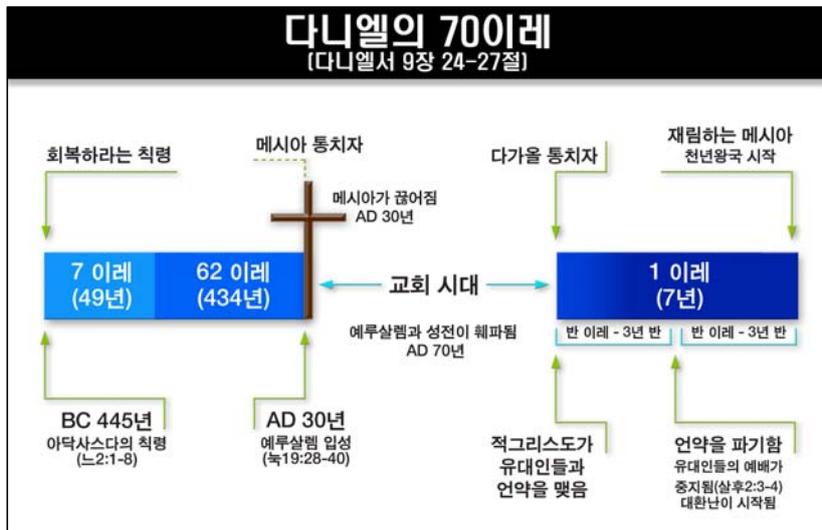
- L. 그래서 이스라엘이 당하게 될 이 환난기는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요.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날이다.
- M. 환난기가 끝나고 주님께서 친히 강림하시는 일이 연이어 14장 3-4절에 기록되어 있다.
- N. 예수님의 왕국 제안, 유대인들의 거절, 왕국의 연기, 재림 때에 왕국 시행, 그 전에 환난기 필요
- O. 환난기는 역사상 가장 어두운 때가 될 것이다. 세상에는 이미 무서운 전쟁, 극심한 질병, 박해, 독재자의 폭정 등이 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합해도 앞으로 다가올 일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다. 최악의 시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 인류가 이제껏 겪었던 것이 보통 회오리바람이었다면 이번엔 초강력 회오리바람이다!
- P. 이때에 교회는 휴거되고 믿지 않는 유대인과 이방인만 남아 있다. 하나님의 진노가 퍼부어진다.
- R. 환난기가 유래 없이 가장 고통스러운 때가 되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세 구절
1. 렘30:7, 2. 단12:1, 3. 마24:21

성경 바로 보기 제5과

6. 은혜 경륜(Dispensations of Grace)_교회 다음의 환난기

III. 환난기는 잠시 동안이다

- A. 이 엄청난 환난기에 대한 내용 중 가장 좋은 소식은 이 시기가 그리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큰 환난은 3년 반 동안 지속될 것이다.
- B. 환난의 기간: 다니엘서 9장 25-27절의 70이레
- C. 대언자 다니엘은 열다섯 살쯤에 바빌론에 포로로 잡혀왔고 거기서 68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다. 노인이 된 상태에서 그는 이 포로 생활이 얼마나 오래갈지 하나님께 여쭙는다. 그리고 예레미야서를 통해 이 포로 기간이 70년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단9:2). 이것을 깨달은 뒤에 그는 9장 3-19절에서 회개하며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한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 가브리엘이 그에게 와서 능숙함과 깨달음을 준다(단9:20-23).
- D. 먼저 가브리엘은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70년이 아니라 70이레라고 가르쳐 준다. 24절, 70이레는 490일이다. 483일+7일=총 490일, 여기의 하루를 실제 하루로 하면 문제가 안 풀린다. 1,34년 No! 하루를 일 년으로 보아야 한다(민14:34; 켈4:6).
- E. 다니엘이 이 예언을 받을 때는 BC 540년경, 그때 이후의 어느 시점에 예루살렘을 회복하라는 명령이 떨어지고 그때로부터 69이레 즉 483년이 지나면 메시아가 죽을 것이다.
- F. 느헤미야 당시 BC 445년의 아닥사스다의 칙령, AD30년의 주님의 죽음, 30일을 기준으로 정확히 483년(태양력으로는 476년), 그리스도까지 483년, 교회 시대, 그리고 마지막 7년



- G. 27절은 '한 이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있을 한 주간(7년)을 의미한다.
- H. 27절에는 '그 이레의 한중간'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이 주간의 길이가 7년이라고 할 때 그것을 정확히 반으로 나누면 3년 반이 된다.
- I.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말씀하신 대환난의 기간은 후반기 3년 반이다. 즉 유대인들이 실제로 큰 고통을 겪는 기간이 주님의 재림 전에 있을 3년 반이라는 뜻이다. 성경은 이 3년 반의 기간을 여러 가지로 표현한다.
 - 1. 다니엘서는 봉인된 책(단12:3), 한 때 두 때 반 때(단12:7), 반 이레(단9:27)
 - 2. 1,260일(계12:6, 11:3)
 - 3. 마흔 두 달(계11:2; 13:5)
 - 4. 한 때, 두 때, 반 때(계12:14) - 한 때는 1년이고 두 때는 2년이며 반 때는 반년이므로 모두 3년 반이다.

J. 환난기의 주요 인물: 환난기를 주도하는 주연급 인물들은 다음과 같다.

- 죄의 사람(짐승 혹은 적그리스도라 불림, 계13:1-10; 살후2장)
- 거짓 대언자(둘째 짐승으로 불림, 계13:11-18)
- 용(혹은 마귀, 계12장)
- 심판자 하나님(계6, 8, 9, 16장)
- 이스라엘 민족(혹은 여자, 계12장)
- 세상의 여러 나라들(속12:9; 14:2)
- 오실 왕(계4-5장; 19:11-16)

K. 환난기 동안 등장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교회'이다.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서 세상에 임할 환난과 고통의 때로부터 교회를 떼어 지키겠다고 약속하셨다. 이후부터 요한계시록 4-19장까지는 환난기에 대한 내용이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서는 교회가 이미 휴거되어 없으므로 교회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다(계4-19장). 물론 '교회'라는 단어도 발견할 수 없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환난 전에 교회를 하늘로 데려가실 것이기 때문이다.

L. 성경의 실례: 하나님과 동행함

1. 에녹(창5:21-24; 히 11:5) - 에녹은 심판(홍수 심판)이 오기 전에 땅에서 옮겨졌다: 에녹은 오늘날을 사는 구원받은 사람들 즉 교회의 지체들을 보여 준다. 하나님은 심판의 때(환난기)가 시작되기 전에 교회를 옮기실 것이다.

IV. 이때에도 소망이 있는가?

A. 휴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사람들은 휴거 이후에도 구원받을 수 없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은 곧 한 번 구원을 거절한 사람에게는 이후에 다시는 구원의 소망이 없다는 것이다. 그들은 이것에 대한 근거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12절을 든다. 그들은 휴거 이전에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만 환난기 동안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B.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12절은 실제 그런 내용이 아니다. 즉 그것은 휴거 이전에 진리를 거절한 사람들에게 대한 말씀이 아니라 환난기에 진리를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말씀이다.

1. 이들은 고의로 죄의 사람을 따르기로 작정한 자들이다(살후2:3-9).
2. 그들은 진리를 거부하고 거짓말 즉 죄의 사람에게 경배해야 한다는 거짓말을 믿는다.
3. 그들은 의도적으로 짐승의 표를 받고 죄의 사람에게 경배한다. 이런 자들은 결국 짐승의 표를 받고(계14:9)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계14:10-11).
4. 환난기 동안 의도적으로 죄의 사람에게 자신을 내맡긴 자들은 모두 심판과 정죄를 받는다(살후 2:12).
5. 결국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12절의 등장인물들은 흑과 백이 너무나도 분명히 드러나는 때에 진리를 거절한 사람들을 말한다.

C. 이때에 사람들은 하나님께 경배하든지(계14:6-7), 죄의 사람에게 경배하든지(계14:9-11)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D.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때에 구원받는다(계7:9-17), 환난기 성도들

E. 동시에 우리는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을 신중히 기억해야 한다.

1. 인류 역사의 어느 때를 살든지 진리를 거절하면 매우 위험하다.
2. 구원의 때는 오늘이지 내일이 아니다.
3. 오늘날같이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어렵지 않은 때 즉 핍박이 거의 없는 때에도 안 믿으려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일이 어려운 때 즉 믿는 자들이 극심한 핍박을 겪는 환난의 시기에 믿으려 하겠는가? 오늘의 불신자는 대개 내일의 불신자로 남는다.
4. 우리는 한때 진리를 강력히 거절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수 있으리라 믿는다. 누구든지

- 회개하고 하나님의 아들과 그분의 말씀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다소의 사울을 생각해 보라!
5. 지금 구원을 받아야 한다! 앞에서 배운 환난기가 바로 내일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6. 휴거는 우리가 사는 현시대에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곧장 환난기가 시작될 것이다!
 7. 만일 그리스도께서 오늘 믿는 이들에게 오신다면(요14:3; 살전4:13-18) 당신도 하늘로 올라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확실히 구원받았는가?

성경 바로 보기 제53과

7. 왕국 경륜(Dispensation of Kingdom)

I. 왕국: 성경의 두 가지 중요 주제는 왕국과 구원이다.

- A. 우리말 성경에서는 왕국이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왕국을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1. 한 국가의 통치 제도는 누가 그 권력을 행사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2. 민주국, 왕국, 성경 속의 하나님의 통치 체제는 무엇인가?
- B. 신구약성경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왕국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것이다(계4:11; 엡1:6, 12, 14). 사탄의 타락+사람의 창조,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개념으로 가득하다.
- C.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도 동방에서 온 지혜자들이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나?”라고 물었으며(마2:2) 그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도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선포하셨다(마4:17).
- D. 그래서 그분께서 돌아가실 때에 십자가 위의 명패에도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 예수”라는 글이 붙었다(마27:37).
- E. 공관복음서 요약: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왕으로 즉 그들의 메시아로 오셔서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메시아 왕국을 그들에게 제시하셨으나 배척을 당하시고 결국 유대인들의 왕으로 돌아가시면서 새로운 언약 즉 신약을 여셨다. 그러므로 왕국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
- F. 마가복음 같은 경우 그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다.
1. 흥정역: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이제 요한이 감옥에 갇힌 뒤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여(막1:1, 14)
 2. 개역: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막1:14)
- G. 이렇게 왕국이 중요하므로 예수님께서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늘의 왕국(Kingdom of heaven)이 가까이 왔다.”고 선언하신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구절을 개역성경은 “천국(heaven)이 가까이 왔다.”고 번역하고 있다.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는 천국은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인데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제 너희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갈 때가 되었다고 선포하신 것일까?
- H.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보면 그렇지 않음을 쉽게 알 수 있다.
1. 흥정역: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마6:10).
 2. 개역: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 I. 개역성경으로는 이 구절의 의미를 파악할 수 없다. 개역성경이 ‘나라’로 번역한 그리스어 ‘바실레이아’는 왕국이며 여기서 예수님이 의도하신 왕국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문자 그대로 실제로 땅에 임하게 하사 자신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왕국 즉 ‘하늘의 왕국’이다(마4:17).
- J. 하늘의 왕국은 대언자 다니엘을 통하여 이미 오래전에 예언된 왕국으로 하늘의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세우시는 왕국이다.
1. 흥정역: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실 터인데 그것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리이다.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남겨지지 아니하며 이 모든 왕국들을 산산조각 내어 소멸시키고 영원히 서리이다(단2:44).
- K. 예수님께서서는 바로 이 왕국을 유대인들에게 제시하셨으며 결코 우리 성도들이 죽어서 가는 천국을 제시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왕국을 의도적으로 거부했고(마23:37-39) 이들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공훈이 전해지게 되었다(롬11:11-12; 30-31).
- L. 한편 예수님의 재림 전에 선포될 복음도 천국 복음이 아니고 바로 왕국의 이 복음이다(마24:14).

1. 흠정역: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곧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명되기 위해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마24:13-14).
- M. 위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목숨을 내걸고 주님께 헌신하는 자가 아니고 세상의 끝까지 견디는 자를 말한다. 즉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 가운데 믿음으로 7년 환난기를 통과하는 사람을 가리키며 이들은 로마서 11장 26절 말씀 즉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른 뒤에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이 성취될 때에 구원받는 자들이다.
- N. 그래서 7년 환난기에는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는 왕국의 이 복음이 전 세계에 퍼지고 그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땅에 강림하셔서 이 땅에 천년왕국을 세우신다.
1. 그러므로 선교단체나 교회 등이 마태복음 24장을 문맥에 상관없이 취해 선교사들을 많이 보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바르지 못하다.
2. 이것은 후천년주의에서 나온 발상이며 성경은 이런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 물론 선교 자체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다. 다만 문맥에 맞지 않는 구절을 취해 내 목적에 맞도록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 O.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처음부터 이 왕국의 도래가 가장 큰 관심사였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그분께 가장 먼저 왕국의 회복에 대해 물었다.
1. 흠정역: 주여, 주께서 이때에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고자 하시나이까? 하매(행 1:6)
2. 개역: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나이까
- P. 그런데 개역성경은 이 구절을 또 다시 오역하여 그 의미를 완전히 가려 버렸다. 이런 번역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의도를 전할 수 있단 말인가?
1. 이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이스라엘 대체 신학’이 주류를 이룬다.
2. 한국 성도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늘의 왕국의 설립과 특히 천년왕국의 도래 등에 대해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학자들로부터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어려서부터 잘못 번역된 성경을 읽고 그것으로 말씀을 공부하므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참 뜻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 Q. 이처럼 성경을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성도들이 대부분의 구절을 ‘영적으로 비유로’ 해석한다. 성경을 - 특히 구약성경을 - 읽으면서 그 내용을 역사적 사실로, 하나님의 치리가 이루어지는 사실로 대하지 않고 다 나하고 상관인 있는 ‘영적 QT 재료’로만 사용하기에 우리 한국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심오한 관이 형성되지 않는다.
- R. 하나님은 자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왕국을 세우시고자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에서 무엇보다 이것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다. 이런 원대한 계획안에 사람의 구속(救贖)이 들어 있고 마귀의 파멸이 들어 있다. 결코 사람의 구원이 하나님의 계획의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 S. 기존 한글 성경들을 제외한 다른 모든 성경에서 왕국으로 번역된 ‘kingdom’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모두 342회 나오며 이것은 원래 왕권(kingship)을 의미했으나 후에는 주로 왕이 다스리는 통치 체제 즉 왕국을 의미하게 되었다. 이런 중요한 단어를 ‘나라’나 ‘천국’ 등으로 일관성 없게 번역했으므로 개역성경으로는 성경의 핵심 주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성경의 핵심 주제를 보여 주는 이 단어는 단지 여호와의 증인들의 전용 용어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다.
- T. 한편 왕국의 이해가 부족하므로 인본주의자들은 다음과 같은 구절을 악용하여 천국이 장소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라고 주장하며 인본주의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
1. 개역: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눅 17:20-21)

- U. 그런데 여기의 너희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느냐고 예수님께 질문한 바리새인들이 아닌가? 그러면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저주까지 하신 바리새인들 안에 - 혹은 그들의 마음 속에 - 하나님의 나라가 있단 말인가? 여기 나오는 나라 역시 왕국이다. 이것을 왕국으로 번역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으며 그 결과 자연스럽게 문맥에 전혀 맞지 않는 영적 해석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
- V. 왕국이 성립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왕이 있어야 한다. 이 구절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질문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왕으로 너희 가운데 와서 거하므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그들에게 이르렀다고 말씀하신다.
- X. 결론적으로 '왕국'(kingdom)을 '천국'(heaven) 혹은 '나라'(country)로 바꾸는 것은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를 완전히 가려 성도들의 성경 이해를 가로막는 심각한 폐해를 낳는다.

성경 바로 보기 제54과

7. 왕국 경륜(Dispensation of Kingdom)

II. 왕국의 필요성:

- A.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래로 땅 위에 가시적인 왕국을 건설하려 하셨으며 사람에게 통치권을 주셨다는 사실은 성경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다(창1:26-28).
- B.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통치권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상실되었고 사탄이 이 세상의 왕이 되었다(눅4:5-6; 요14:30의 이 세상의 통치자).
- C.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써 땅에서 하나의 가시적인 왕국 건설을 향한 첫째 단계를 실행하셨다. 그것은 외적으로 볼 때 모세를 지도자로 하여 '유다 국가 공영권' 안에서 존재하는 형태를 띠었지만 주전 606년경의 바빌론 포로시기에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민족적 존재를 상실해 버림으로써 무산되었다. 이방인들의 때가 시작됨
- D. 그러나 '이방인들의 때' 가운데서 600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다른 일을 행하셨다. 그것은 바로 천사 가브리엘로 하여금 마리아에게 왕의 출생을 알리게 한 것이다(눅 1:26-33). 그로부터 삼십 년 뒤 왕의 길을 예비하는 자인 침례자 요한이 나타나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였고(마3:1-2) 왕이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내셨을 때도 그와 동일한 것을 선포하셨다.
- E. 그 이후에 그분께서는 열 둘 제자를 보내시고(마10:7) 다시 칠십 명을 보내셔서(눅10:1-9) 동일한 것 즉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다. 그러나 그 왕은 자신의 백성에 의해 배척당하였고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이로써 왕국의 건설은 연기되었다. 그리고 그분께서 주시려 했던 왕국은 '하늘의 왕국'이라는 이름을 가진 채 신비의 형태를 취하게 되었다.
- F.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왕국
1. 첫째, 구약성경은 사람의 아들이 통치할 가시적인 지상의 왕국이 있을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다(단7:13-14; 2:34-35, 44-45; 렘23:5; 슥14:9).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에 이스라엘 안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기대가 넘쳐났고 시므온과 안나가 '이스라엘의 위로'를 성전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눅2:25-38; 눅24:21). 또한 지혜자들이 동방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라고 질문을 한 것과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 왕 되신 그분께 경배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다(마2:1-11).
 2. 예수님께서 왕으로 태어나셨다는 사실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침례자 요한이 요르단 강에서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마3:2)라고 선포하면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예수님께서 30세 정도 되었을 때였다. 그의 임무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그분의 행로들을 곧게 하는 것이었다(마3:3; 사40:3). 그런데 그는 무엇을 위해 주님의 길을 예비해야 했을까? 그것은 '십자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왕국'을 위해서였다.
 3. 요한 자신도 그렇게 믿고 있었다는 사실은 그가 감옥에 있는 동안 예수님께 자기 제자들을 보내어 "선생님이 오실 그분이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리오리이까?"라고 묻게 한 데서 명백히 드러난다(마11:3). 예수님께서서는 수많은 병 고침의 기적들을 보여 주심으로써 요한의 질문에 답하셨다. 이 병 고침의 기적들은 메시아 왕국의 표적들이었으며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에 대한 증거들이었다.
 4. 또한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왕국이 '하늘의 왕국'이라 불린 것은 그것이 하늘에 있는 왕국 혹은 영적인 왕국이기 때문이 아니다. 실은 그분께서 사람들로부터 그 왕국을 받지 않고 하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 왕국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하늘의 왕국이라 불렸다.
 5. 나다니엘은 예수님을 만나 대화를 나눈 뒤 "랍비여,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선생님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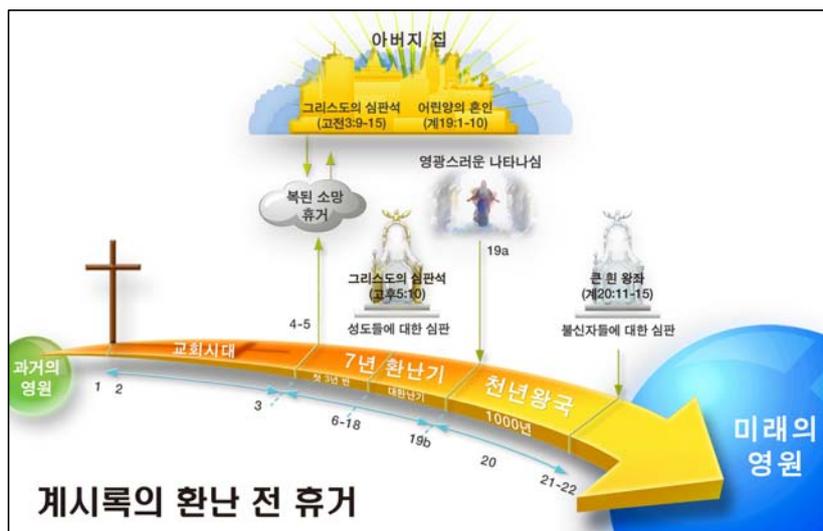
이스라엘의 왕이로소이다.”(요1:49)라고 고백하였다.

6.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그분의 메시지는 침례자 요한의 메시지와 똑같이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마4:17)였다.
7.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들에서 가르치시고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서 온갖 종류의 질환과 온갖 종류의 질병을 고치시니(마4:23)
8. ‘왕국의 복음’은 병 고침의 표적들을 동반했지만 이 복음이 직접적으로 개인 영혼의 구원과 관련이 있다는 말씀은 찾아 볼 수 없다. ‘왕국의 복음’은 교회의 휴거가 일어난 이후 왕국의 건설을 위한 때가 왔다는 것을 모든 민족에게 증언하기 위해 또다시 땅 끝까지 선포될 것이다(마24:14).
9. 예수님께서서는 열두 제자들을 파송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마10:5-8).
10. 땅에 가시적으로 세워질 왕국의 건설을 제자들이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은 야고보와 요한의 요청에서도 나타난다. 그들은 예수님의 왕국에서 한 명은 그분의 오른편에, 다른 한 명은 그분의 왼편에 앉게 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막10:35-41).
11. 빵과 물고기의 기적 즉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는 뒤에 군중들은 강제로 예수님을 데려다가 왕으로 삼기를 원했다(요6:15).
12. 예수님께서서 외적이고 가시적인 지상왕국에 대한 통치권을 부인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그분께서 종려 주일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을 때 스가라서 9장 9절의 메시아 예언에 대한 성취로 군중들이 외치던 호산나를 그대로 받아들이셨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명백히 알 수 있다(요 12:12-15).

III. 왕국의 연기: 마23:37-39

IV. 왕국의 도래

- A. 여러 세기 동안 사람들은 더 나은 세상을 꿈꾸어 왔다. 전쟁도 범죄도 굶주림도 질병도 없는 그런 세상 말이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세상이 도래할 것이라 말한다.
- B. 앞 장에서 우리는 유래 없는 고통의 때 즉 환난기(마24:21)에 대해 공부했다. 고통의 환난기가 끝난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왕국을 세우실 것이다(마24:29-30, 마25).
- C. 첫 아담이 실패한 것을 회복시키는 때(계20:1-7에는 1,000년에 6번), 천년 왕국



V. 왕국 경륜

- A. 경륜이 시작될 때 사람의 상태: 천년왕국은 어떨까? 오늘날에 비해 그 상태가 얼마나 달라져 있을까?
천년 왕국 기간에 있을 일 10가지
1. 그리스도께서 온 땅의 왕이 되신다: 또 주께서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한

주만 계시며 그분의 이름도 하나만 있으리라(슌14:9).

- a.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 세계의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 땅의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 이 왕을 섬긴다(단7:14). 예루살렘이 그리스도의 왕국의 수도가 된다(사2:3). 왕국 시대에 세워질 그리스도의 정부는 '신정 정치' 형태 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정부가 될 것이다.

2.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통치자가 되신다: 왕국 경륜에서는 완전한 통치자가 다스릴 것이다.

- a. 주께서는 우리의 심판자시요, 주께서는 우리에게 법을 주시는 이시요, 주께서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사33:22).



한국의 삼권분립 체제



이사야서 33장 22절

3.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공평과 의로 다스리신다(사11:4-5).

4. 땅에 평화가 있다(시46:9). 그분은 평화의 통치자(사9:6)

5.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가르침을 받게 된다(사2:3). 온 세상이 주님께 대해 알게 된다(사11:9).

6. 사탄이 돌아다니며 문제를 일으키는 일이 없다: 계시록 20장을 보면 1,000년 동안 마귀는 '밀바닥 없는 구덩이' 즉 무저갱에 갇혀 있다(계20:1-3).

7. 척박한 땅이 비옥하게 된다: 이사야서 32장 15절은 광야(사막)가 옥토가 되리라고 기록합니다. 이런 새로운 광경이 이사야서 35장 1-2절에 묘사되어 있다.

8. 질병과 아픔이 사라진다(사33:24). 그 날에는 귀머거리가 듣고 눈먼 자가 보게 될 것이다(사29:18; 35:5-6).

9. 사람의 수명이 늘어난다(약 1,000살까지 살게 됨)(사65:20-22), 많은 이들이 천년왕국 내내 살아 있을 것이며 그들의 수명은 므두셀라처럼 많게 될 것이다(창5:27).

10. 자연 생태계의 변화가 생긴다: 이사야서 11장 6-9절과 65장 25절

B. 왕국에는 구원받은 사람들만 들어간다(마25장의 양과 염소 민족 심판)

1.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왕국에 들어가도록 허락 받는 사람은 오직 구원받은 사람이다(마(마25:34).
2.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마25:41).

C. 사람의 책임

1. 천년왕국 시대에도 많은 아이들이 태어날 것이다.
2. 첫째 세대(부모)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해도 그로 인해 둘째 세대(자녀들)가 자동적으로 구원받게 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다시 말하지만 구원은 부모에게서 물려받을 수 없다. 부모에게서는 오직 죄성만 물려받는다. 왕국 경륜에 태어난 아이들도 이처럼 사악하고 죄악으로 찬 마음을 타고 난다.
3. 왕국 경륜에 태어날 아이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의무가 있다. 즉, 왕을 신뢰하고 왕이 자기 마음을 다스리도록 허락할 의무가 있다. 왕국 시대에도 하나님의 적들이 이 땅에 존재하지만 이들은 원치 않게 왕께 복종하고 있다.

D. 사람의 실패(계20:7-10)

1. 가장 큰 실패는 천 년이 지난 다음에야 나타난다. 천 년이 다 차면 하나님은 사탄을 다시 풀어 준다(계20:7). 그러면 놀랍게도 사람들은 사탄을 따른다(계20:8). 이 마지막 대반역에 동참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다.
2.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으나 그들은 믿지 않는다.

E. 하나님의 심판

1. 마귀를 따르는 자들은 곧장 처벌을 받는다(계20:9). 사람들을 속인 마귀는 불 호수로 던져진다(계 20:10). 마귀는 자신의 영원한 처소로 들어간다(마25:41).

F. 이 다음에 일어날 일들은 다음과 같다.

1. 불 심판: 옛 하늘과 땅은 타서 없어진다(벧후3:10-13; 계20:11).
2. 크고 흰 왕좌 심판: 이때 각 경륜에서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들이 부활하여 자기들이 거절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계20:11-15).
3. 새 하늘과 새 땅: 이로써 경륜들이 모두 끝나며 이때부터 영원한 세계이다(계21-22장). 하나님의 왕국

영원의 상태	
<p>새 하늘</p>  <p>새 예루살렘</p>  <p>새 땅</p> 	<p>새 하늘과 새 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탄은 더 이상 역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계20:10) · 바다가 없음(계21:1) · 사망과 부르짖음과 고통이 없음(계21:4) · 모든 것이 새롭게 됨(계21:1) · 밤이 없음(계21:25) · 부정한 자나 가증한 자나 거짓말쟁이가 없음(계21:1) · 저주가 없음(계22:3) · 태양이 없음(계22:5) · 성도들은 아버지의 얼굴을 마주 봄(계22:4)
<p>불 호수</p> 	<p>불 호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대언자의 영원한 처소(계19:20; 20:10) · 불신자들의 영원한 처소(계20:10) · 불과 유황의 영원한 호수(계20:10) · 거주자들이 영원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음(계20:10) · 영원한 둘째 사망(계20:14)

G. 천년 왕국의 주요 교훈

1. 사람은 자기 잘못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완벽한 환경, 그래도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2. 사람의 궁극적인 문제는 죄다(렘17:9)
3.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자이다!
4. 인생은 짧고 죽음은 확실하다!
5. 원인은 죄에 있고 해결책은 그리스도께 있다!

H. 일곱 경륜

1. 무죄, 양심, 인간 정부, 약속, 율법, 은혜, 왕국
2. 사람은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3. 하나님의 경영 통치 방식은 변한다.
4.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네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딤후2:15).
5. 성장해야 한다(엡4:11-16): 문자적 해석, 비유 해석 No!
6. 살롬